현대불교

제 80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음력 10월 5일 · 불기 2554년 · 주간)





개신교 … 또 사찰 땅밟기

7대 종교인 종교평화선언… 종단협 '종교윤리법' 제정 촉구

최근 봉은사, 동화사, 미얀마 등에서 땅밟기 예배를 해 물의를 빚은 개신교도들이 이번에는 울산지역 사찰 4곳에서 땅밟기 예배를 하고 주지스님과 불자들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혜경 · 손안식)의 사이트 신고코너에 11월 1일 한 네티즌이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서울, 대구에 이어 울산에서도 확인된 땅밟기 예배로 개신교의 계획적 · 조직적인 불교폄훼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장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는 2일 긴급상임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종단 대표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가칭)종교평화윤리법 제정을 촉구하고, 종교지도자들에게 종교인 평화선언과 종교인 윤리규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종단협의 제안에 4일 대전 유성에서는 종교인교류대회가 열려 종교평화선언문을 발표됐다.

행사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속 전국의 7대 종교인 180여 명은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앞장서고 종교평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종교인들은 선언문에서 "나를 비워 너를 품는 '사랑'과, 이웃의 기쁨은 늘리되 아픔은 줄이는 '자비' 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가르침이다. 내가 서고자 할 때 남을 먼저 세우는 '인(仁)'과,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는' 행위는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가르침이다. 사랑의 실천은 인(仁)으로 이어지고, 사람을 하늘처럼 섬길 때 자비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들은 ▷종교 배타주의를 극복을 통한 제 종교의 공존 ▷'다름'을 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 조성 ▷종교간 대화 · 연대를 통한 화해와 평화 구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신교의 불교폄훼에 종단협이 법령 제정 촉구를, KCRP가 평화선언을 하는 것에 즈음해,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법응 스님은 1일, "개신교의 불교폄훼에 조계종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개신교 지도자들에게 불교폄훼 방지와 관련해 문서로 다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개신교인들의 사찰 땅밟기 기도와 선교 행태는 현 정권의 종교차별 행태를 답습하고 용기를 얻은 행위의 결과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제22회 포교대상 선정


대행 스님


일면 스님


류진수


홍사성

한마음선원 조실 대행 스님이 제22회 포교대상(종정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혜총)은 11월 5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22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 · 발표했다

포교원은 대행 스님의 수상 이유에 대해 "스님은 현대불교신문 창간, 불교서점 개점,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창설, 심성과학연구원 설립, 불교인터넷방송국 HBTV를 개설 등 매체를 통한 포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대행 스님은 어린이 · 청년 · 거사포교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교행사의 적극동참을 통한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해 왔다. 또, 광명선원을 비롯한 15개 국내지원 및 뉴욕지원 등을 설립해 전법포교의 의지를 활발히 펼쳐왔다.

이날 포교원은 공로상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불암사 주지), 류진수 부산시불교신도회장, 홍사성 前 불교신문 편집부장, 이용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등 4명을 선정했다.

일면 스님은 군종특별교구 주지를 재임하면서 군포교 발전에 진력하고,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장기기증, 결연사업, 환우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류진수 부산시불교신도회장은 부산불교방송국, 부산불교신도회관 건립 등 부산불교활성화에 전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사성 씨는 불교언론, 출판분야에서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는 물론 후진양성에 힘써왔으며, 이용부 이사는 전통사찰총서 등 10여 종의 사지를 출판하고, 어린이 청소년 권장도서에 불교관련서적을 포함시켜 불교문화를 널리 알려왔다. 시상식은 17일 오후 2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된다.

이상언 기자

자승 총무원장, 안정 쫓아 소통한 1년

화쟁위 출범 등 목소리 모아 도약의 기반 다져

11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제33대 집행부는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연탄과 쌀을 전하는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제33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만 1년째 되는 날 열린 이 행사는 자승 총무원장의 지난 행보를 회향하고 새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같은 날, 스님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가 전달했다며 2억원을 육군훈련소 군법당 건립기금으로, 5000만원을 유네스코 저개발국가 아동복지기금으로 전달했다.

이 같은 자승 스님의 자비나눔 행보는 지난해 취임 당시 첫 공식행사를 용산참사 현장 방문으로 시작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장스님의 용산참사 현장 방문은 사회 양극화와 이에 따른 계층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낸 현장을 찾아 불교와 사회와 소통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후에도 스님은 노인복지관, 이주노동자, 교도소 등을 찾아 자비의 나눔을 통한 소통을 실천해 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소속 종책모임인 화엄회를 비롯해 보림회, 무량회, 무차회 등 4대 종책모임간 연대를 통해 당선됐다. 정책모임간 연대는 집행부 구성에서부터 정책모임간 공생 구도로 반영됐다.

제33대 집행부는 핵심공약과 추진사업들을 로드맵으로 만들었다.

승려노후복지제도, 인사고과제도 등은 과거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논의 · 검토돼 왔던 과제들이다. 종단 현실에 부딪혀 차마 실행돼지 못했던 과제들을 자승 스님은 실천했다. 사찰토지처분금 목적사업 활용, 승려개인명의 재산 사후 종단 출연, 승려교육 제도 개혁, 해외특별교구 출범 준비 등 지난 1년간 다수의 개혁입법이 추진됐다. 화쟁위 출범을 맞아 종단과 종단, 종단과 사회간 소통의 폭과 깊이도 커졌다. 사찰음식 등을 소재로 한국불교의 세계화도 강력히 추진했다. (관련기사 3면)

조동섭 기자

낙동강 마애불 중요문화재 가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최근 경북 의성군 낙동강살리기 사업 공사 현장서 발견된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을' 10월 29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애보살좌상에 대한 적절한 보존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우선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려 초기 양식의 이 마애불은 공사 관계자가 고의로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동섭 기자

사령

신규 박기범 명) 취재부 기자
경력 11월 2일부
천진영 명) 취재부 기자
수습 11월 8일부
승진 조동섭 명) 취재부 차장
11월 1일부



새 연재 **정찬주의 행복한 禪여행 과학의 시대에 한국불교는 무엇인가**

글을 시작하며

비구름이 남악 형산의 산허리를 감고 있다. 그 기세는 순례자들에게 천 년 전 형산의 일을 보여주지 않을 것처럼 도도하기까지 하다. 선승들이 깨달음의 문턱에서 은밀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밀어(密語)라고 했던가. 만리 길을 떠난 순례자들은 폭포처럼 격렬하고 봄볕과 같이 따사한 선사들의 밀어와 조우하면서 신심을 낸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정진의 힘을 받는다. 옛 선사를 만나 스스로 제자 되기를 청하고 어리석음의 허물을 벗는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깨달음의 꽃이 던져진 구도의 길을 쉬지 않고 걷는 것이리라.

형산의 정수리, 축융봉으로 난 산길은 직립한 삼나무 숲 사이로 흐릿하다. 미니버스가 가파른 산길을 힘센 수고우(水牯牛)처럼 기세 좋게 오른다. 비구름이 한사코 눈앞을 가리며 막아서지만 문명의 이기(利器)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문득, 고요한 형산으로 오기 전에 들렀던 상해의 시가지가 떠오른다. 상해에서 하룻밤 머물며 보았던 상해엑스포의 잔상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엑스포란 인류가 이룩한 과학문명의 성과를 함께 즐기려고 모인 화려한 축제가 아닐까. 참가한 나라마다 과학의 시대를 자축하고 뽐내듯 현란한 축포를 쏘아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관에서 중국관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안국선원 순례자 일행은 당황하지 않고 비를 피해 차분하게 벤치에 앉았다. 바로 예정에 없던 수불스님의 야외법석이 펼쳐졌다. 주제는 정해진 바 없었으나 자연스럽게 '과학의 시대에 한국불교는 무엇인가'로 흘렀다. 스님의 법문을 듣는 동안 나는 무례한 상해의 소낙비를 오히려 고마워했다. 일찍이 미래의 종교는 불교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불교 찬가'도 다시 음미했다. ▶19면에 계속

2011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수험생 가족이 대행스님께 길을 묻다

스님, 어떻게 하면
아이가 대학입시를 잘 볼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마음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자기 보배를 응용을 못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자꾸 '얘가 무엇이 모자라는데, 그러니 누구한테 무엇을 좀 물어봐야 하는데' 이러기가 쉽습니다. 저 나무들이 뿌리 없이 사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이끌어줄 수 있고 지혜를 줄 수 있는 바로 그 '참나'라는 보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위축이 돼서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다면 자기 몸 속의 의식들도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당신이 나의 근본이니까 저 애가 목적지까지 운전을 잘 해 나가게 하는 것도 당신 뿐이다.' 하고 자기 근본 마음에 믿고 맡긴다면 보이지 않는 능력까지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데가 아니고 또 기복으로 믿는 데도 아닙니다. 단지 멋진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걷게 하기 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치를 자녀들에게 일러 주십시오.
자기 마음의 근본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가 가야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 법어
www.hanmaum.org

“10·27법난 국가배상하라”

혜성 스님 승소… 조계종 천태종, 명예회복 촉구

10·27 법난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5부(법관 조원철 박지현 박규도)는 11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사법정 526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근배(혜성 스님)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27법난 당시 도선사 주지였던 혜성 스님은 법난 당시 신군부 합동수사단 군인들에게 강제로 연행돼 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 구타와 욕설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 후유증으로 스님은 탈장 증세와 언어장애를 겪었고 몇 년 뒤에는 파킨슨병을 얻는 등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스님은 2009년 5월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10·27법난에 대한 국가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확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경 스님을 비롯해 법난 피해자 8명이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길기관, 위대영)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은 3일 “이번 판결은 법난이 불교계 명예를 유린한 국가폭력 사건임을 확인해 준 역사적 판결이며 피해자 보상의 책임소재와 근거를 마련해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촉구했다.

또 천태종도 11월 14일 분당 대광사에서 ‘10·27 천태종 법난 명예회복 기원법회’를 열고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중앙종회 선거 뒷끝 찜찜

선관위에 선거소청심판청구, 당선증 교부 자제 요청



10월 28일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한 스님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를 둘러 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선원수좌회(의장 대원·현산)는 10월 30일 취지문을 통해 “(수좌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선원 분야 직능대표는 사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증을 교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수좌회는 “직능직 의원제가 계파 나눠먹기 등에 훼손돼 있다. 여론을 무시한 직능직선출위원회는 크게 반성하라”며 “제15대 중앙종회는 유명무실한 직능직 의원제도를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은해사교구 중앙종회 후보로 출마했다가 수계를 문제로 ‘자격없음’ 결정을 받았던 법일 스님(대전사 주지)은 11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심판청수서를 접수했다. 이에 앞선 10월 26일 스님은 호계원에 행정심판도 청구한 바 있다.

법일 스님은 선거소청심판청구에서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제233차 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은해사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을 입후보자로 한 중앙종회의원선거를 실시하라는 결정을 구했다.

법일 스님은 “비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림사·대전사 주지직과 제11·12·14대 중앙종회의원직을 수행해 왔다”면서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비구계 수지 문제로 세속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대법원으로부터 ‘영랑사, 수덕사 주지, 중앙종회 의원 역임 등을 종합하면 구족계 수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예가 있다”고 말했다.

또, “종회의원 후보자격박탈이후인 10월 29일 총무부가 발급한 수계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1980년 10월 15일 비구계를 수지한 것으로 기록 돼 있다”면서 “총무부가 승적원부에 의하지 않고 수계증빙자료가 없다고 중앙선관위에 총무부장 전결로 회신한 것은 종헌종법을 위배한 중대한 행정착오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로부터 ‘자격 없음’ 결정을 받은 원경·만당 스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심판 청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원장 심경 스님은 자격판정 시비와 관련해 선관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내년도 예산 교육·포교 집중

조계종, 2011년 예산안…1.9% 증액

2011년도 조계종 예산이 교육·포교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 늘어난 217억4980만4000원으로, 특별회계는 105억502만2011원으로 27.3% 감액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1월 2일 정례브리핑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중앙종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관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무원은 전년대비 3.0% 늘린 125억9258만7000원, 교육원은 3.6% 증액한 54억7055만8000원, 포교원은 6.8% 줄어든 25억7102만1000원으로 짜여졌다. 중앙종회는 1% 감액한 7억4340만3000원, 호계원은 7.3% 증액해 1억2851만5000원, 종정기관은 12.6% 늘어난 2억4372만원으로 편성됐다.

기획팀 이상봉 팀장은 “내년도 예산은 시설운영비 등을 10% 이상 긴축하는 대신 종단발전 4개년 계획 핵심주요 과제인 교육·포교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前 국방장관 고소 이어 개신교 비판

명진 스님, 좌파 시비 구설에 강경 대응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자신과 봉은사를 좌파라 발언한 이상훈 前 국방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해 이 前 장관과 개신교를 거세게 비판했다.

명진 스님은 11월 2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상훈 前 장관이 10월 29일 애국단체총연합회(상임의장 이상훈)의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국민대회’ 행사에서 ‘현재 81개 좌파단체가 코엑스와 인접한 봉은사에 본부를 두고 북한이랑 연계돼 있다’고 말하는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봉은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까지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스님은 “봉은사 땅밟기와 관련해 찾아 왔던 목사가 나중에 돌아가서는 ‘땅밟기 했던 학생들을 나무랄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표현했다”며 “개신교 단체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5일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고, 새 주지 임명을 명진 스님의 임기 만료일인 11월 13일 이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정광학원 이사장 교체 촉구

종관위, 승가대 이사 후보 등 선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장과 이사 정수 과반수 이상을 조계종 스님으로 선임할 것을 정관에 명시할 것을 촉구키로 결의했다. 정광학원은 그동안 백양사 주지가 맡아왔으나, 2009년 11월부터 법륜종 정각 스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일관)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0차 회의를 열고 정광학원 이사장을 타종단 스님이 맡아 종립학교 위상이 실추되거나 정재 손실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종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으로 중앙종회의원 학담·일문·일초 스님과 불교문화사업단장 정만 스님을 추천했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된다.

종관위는 승가학원 이사 임기가 만료된 지하 스님 후임에 지하·효탄 스님(문화부장), 범산 스님 후임에 범산·정안 스님(승가학원 사무처장), 박완일 이사 후임에 박완일·법산 스님(동국대 교수)을 선출했다.

조동섭 기자

기고

30년 한 풀어준 판결

2010년 11월 3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구 민사법정 562호에서 법관 박지현 박규도가 배석한 가운데 조원철 판사는 ‘2009가합63743’ 소송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근배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라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은 아주 간단하고 짧은 선고였다.

하지만 여기엔 옹근 30년 세월이 등나무 줄기마냥 피해자의 아픔이 뒤엉켜 있었다. 이근배는 혜성 스님의 속명이다. 이 선고는 혜성 스님이 2009년 5월, 법무법인 덕수를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이 마무리되는 자리였다.

혜성 스님은 1980년 10월 27일,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5시, 도선사 경내에서 국가에 중대한 방침이 서있어 같이 가야겠다는 20여 명의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서울시청 뒤편에 있는 경찰 특수수사대(경찰청 무교동분실)에 구금돼 25일 동안 갖은 고초를 겪었다.

혜성 스님은 특수수사대에 연행된 직후 승복 대신 재소자 번호가 기재된 푸른 죄수복으로 갈아입은 채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스님은 조사받는 도중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을 수시로 받았는데, 하루에 1·2차례 군복을 입은 수사보조관 4~5명이 조사실로 들어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고, 각목으로 오금을 치거나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각목을 집어넣고 무릎 누르기, 새끼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넣은 상태에서 조이기, 잠 안 재우기 등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담당수사관들은 수사보조관들에게 고문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구경하듯이 지켜봤다고 스님은 증언했다.

이렇게 고문과 폭행으로 스님을 수행자가 아닌 파렴치한 이중인격자로 만들었다. 시주금과 사찰공금을 유용했고 환속 후 생활대책을 위하여 개인사찰 건립, 회사설립, 부동산 매입, 요정 경영을 했으며 관청과 짜고 이권을 챙기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했고, 이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계엄사의 조종을 받아 심지어 ‘낮에는 주지, 밤에는 요정경영인, 겉과 속이 달랐던 사이비 승려들의 비리’라고 보도해 스님과 한국불교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았다. 수행자로서는 사형이나 다를 바 없는 가혹한 형벌로 스님은 평생 피멍울진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다. 이번 선고는 사법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스님이 갖고 있는 한의 일부나마 풀어 주는 판결이었다.

선고를 지켜보며 이 재판에 오기까지의 기나 긴 시간이 한 통의 필름을 쭈욱 잡아끌듯이 내 머리를 스쳐갔다. 1988년, ‘10.27법난’을 국회의 ‘5공화국 청문회’ 의제로 채택하도록 그때 평민당 중앙당사에서 농성하던 장면이나 서울 장충동 동국대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전투경찰과 최루탄, 화염병 공방을 벌이던 기억, 틈틈이 피해자의 증언을 채록하느라 만났던 분들, 문화방송(MBC)의 채환규 피디와 특집방송에 대해 논의하던 일,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염규홍, 유경상 조사관들과 함께 법난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과 마침내 그 조사결과를 ‘백서’로 내던 일, 그리고 국회가 ‘법난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법난심의위원회가 설치되던 과정 따위가 뭉뚱그려 지나갔다.

피해자조차 법난특별법에 대해 갸웃할 때 반드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돌아보니 그 모든 일들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여 얻은 성과물이었다. 이번 소송도 그랬다. ‘법난특별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배상’의 한계를 탓하지만 말고 대안을 세워 압박해야 했었다. 그래서 또 밀어붙였다.

권리는 주장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잊지 말아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서동석(前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및명예회복추진위 상임위원)

2011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포교사회) - 불교문화재학	30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10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5명

2.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 2010.10. 25(월) ~ 2010. 11. 30(화) 17:00까지(대학원 교학부)
2) 원서 접수 : 2010.11. 15(월) ~ 2010. 11. 30(화) 17:00까지(대학원 교학부)
3) 전 형 일 : 2010.12. 2(목) 13 : 00(박사과정) 14 : 00(석사과정)
4) 합격자 발표 : 2010.12. 6(월)
5) 등록 기간 : 2010.12.20(월) ~ 2011. 1. 7(금)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1) 장소 : 면접 고사실 - 대학본부 4층 세미나실
2) 시간 : 2010. 12. 2(목) 13 : 00(박사과정) 14 : 00(석사과정)

5.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업 및 연구계획서(본교 소정양식) 1부.
3) 석사과정 : 학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박사과정 :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1부.
4)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율 성적 기재분) 1부.
5) 승적증명서(조계종 총무원 발급, 3개월 이내) 1부.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
※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11. 2.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무료
2) 전형료 : 박사과정 80,000원 / 석사과정 60,000원

7. 사정원칙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사정회의에서 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전화 : 031)980-7864 (내선 : 7864)
팩스 : 031)980-7863

특전
1)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시 승가고시법시행령에 의거 3급 고시 응시 자격에 혜택이 있음.
2) 조계종 승려(구족계수지자 및 익년4월 구족계수지예정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3) 학업 우수 학인을 선발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기간 전액 장학 혜택부여.
4) 각종 교내·외 장학금 지급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취임 1년

정치 능하나 강한 리더십 아쉽다

로드맵 제시와 의욕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33대 집행부의 지난 1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토지처분금 활용안, 승려교육 제도 개혁안 등으로 대표되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개혁드라이브는 출발부터 곳곳에서 삐걱댔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논란은 정치권 외압과 결부돼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조기사퇴설까지 회자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봉은사 땅밟기, 대구 동화사 동영상 제작·배포와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계획 무산 등 개신교의 강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승려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령'은 시행 전부터 종도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대표적인 경우이다.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사유재산출연과 관련한 법안 제정 전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 법안 제정 후 논의가 되면서 좋은 내용이었음에도 성과가 따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님 외에도 집행부가 명분만 믿고 의욕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다보니 홍보 등에 미숙했다는 지적은 심심찮게 들린다.

승가교육 제도 개혁도 기존 강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거센 저항이 있었다. 기본교육기관 조정과 교과과정 개편, 전문교육기관 다양화, 재교육 강화 등 올곧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연이은 공청회 등으로 설득·무마되긴 했으나, 강원 교직자의 처우에 따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연수교육을 세분화·전문화해 상설운영하고 교육 대상을 본말사주지에서 종단의 모든 승려로 확대한 것은 성공적이었다. 연수교육은 주지인사고과제와 연결됐다. 현재는 본말사주지인사 규정을 개정해 초임주지의 자격기준 강화하는 한편, 직할교구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주지인사고과제를 향후 전국 교구본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사찰이 종단에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스님 또는 문중을 중심으로 주지직을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지인사고과제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토지처분금 활용안을 골자로 한 '사찰부동산관리법'도 종도 반발에 부딪혀 명분과 취지가 빛바랜 정책의 한 예이다. 제도 시행은 큰 걸림돌을 만났다. 일부 교구본사가 총무원의 토지처분금 활용안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것. 교구본사들은 교구별 토지처분금 편차가 커 해당 교구의 토지처분금은 해당 교구내에서 활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이같은 교구 이기주의에 의해 토지처분금 활용안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본사주지회의와 중앙종회를 거치며 해당 교구내에서 토지처분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33대 집행부는 취지가 좋은 제도를 재료 삼아 레시피격인 로드맵까지 작성했다. 매 월·분기별로는 해당 사업의 진행 정도를 점검하는 치밀함까지 갖추며 행정을 집행해 왔다. 처음 의도와 다르게 정책이 변질되거나 저항에 부딪힌 것은 정치력만 강하고 행정력이 부족한 자승 스님의 한계라는 지적이 있다.

참여연대 정웅기 사무총장은 "제33대 집행부의 여러 과제들의 시도는 좋았다. 진척이 없었던 것은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봉은사 사태는 이 같은 스님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예.

제33대 집행부는 수도권포교 강화 방침에 따라 3월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했다. 중앙종회에서 통과에 난항을 겪던 것을 자승 스님이 직접 종회 단상에 올라 종회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시켰다. (정치력) 하지만 종법상 인준된 직영사찰 지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주지 명진 스님과의 갈등으로 6개월 이상을 허비해야 했다. (행정력)

다행스럽게도 자승 스님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발군의 정치력을 발휘했다. 교육제도 개혁이 저항에 부딪혔을 때에는 승가교육진흥위원회를 만들었다. 봉은사 사태가 벌어지자 화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화쟁위는 출범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봉은사 사태를, 대외적으로는 4대강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메가 이슈를 선점한 덕에 화쟁위는 출범과 함께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제는 제33대 집행부의 최대 성과의 하나로 손꼽힌다.

자승 총무원장은 자신의 권력을 탄생시킨 종책모임간 연대로 인해 곤란을 겪기도 했다.

종단 내 4대강 반대 목소리와 다르게 7월 8일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민주평통 종교인지원위원 자격으로 4대강지지 발언을 했던 것. 자승 총무원장은 영담 스님에게 불참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15대 중앙종회 선거에서 자승 스님의 정치적 기반인 화엄회가 압승을 거둬 내부적인 기반을 다졌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내홍과 외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승 총무원장의 지난 1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면서도 대중은 총무원장의 강한 리더십에 목말라하고 있다.

자승 총무원장은 11월 1일 취임 1주년을 즈음한 월례조회에서 '공심'을 강조했다.

'소통과 화합'에서 '공심'을 화두로 삼은 자승 총무원장의 취임 2년차 행보에 대중이 주목하고 있다.

글=조동섭·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11월 15일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교역직 종무원 및 재가 종무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교육원장 현응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이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교구본사 등 이해관계 따라 언제든 갈등 불씨 내재

무설硏, 종단 수익사업 연구

법령 도입·전담팀 편성 필요

천주교·원불교 사례 분석, 식자재 유통 등 제안

조계종이 현재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수익성이란 내실을 기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종책연구소인 '무설연구소'는 11월 3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조계종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사례연구와 사업모델 제언'을 주제로 보고회를 개최했다.

무설연구소는 보고회에서는 조계종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가톨릭과 원불교의 수익사례를 바탕으로 조계종의 수익 사업모델을 제안했다.

무설연구소는 조계종의 현재 재정에 대해 "분담금 수입이 재정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달한다. 이처럼 총무원 등 중앙집행부의 재정 자체가 각 사찰이 납부하는 분담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사업 집행의 자율권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설연구소는 "전국 62개 문화재 보유 사찰에서 징수한 문화재관람료의 12%에 해당하는 문화재관람료분담금이 24개 교구에서 납부한 중앙분담금을 초과한다는 것은 중앙 종단 역시도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재정의 상당부분을 의지해왔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예산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줄어왔다. 조계종 전체 재정 감소의 영향요인으로 종단의 각종 시설 건립사업을 꼽을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조계종은 현대적 시설 건립이란 외적 확장에 종단 여력을 쏟았지만 상대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데에는 미진했다."

그 원인으로 무설연구소는 수익 창출 시스템의 부재를 꼽았다. 무설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도 조계종 사업수입 총액은 7억 원이다.

특히 사업수입의 87% 이상인 6억 2100만 원이 교육연수와 기념관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설연구소는 "그동안 종단 차원에서 수익 창출에 나섰지만 승가문화의 불합치에서 오는 잡음과 종단이 영리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며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 종단 안팎에 견실하게 운영되는 사업체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종단이 주도하는 불교적 사업의 성공모델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무설연구소는 장기 모델로 가톨릭, 초기 모델로는 원불교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사례로 들며 대안을 제시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현재 서울시내 220여 개 성당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산하 성모병원과 종립학교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조달 및 구매전문 기업인 평화드림을 중심으로 부속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료용품을 공급하며 사무가구 및 장례용품 공급, 출판·인쇄업, 여행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원불교 중앙교단도 원창회란 신자들의 기부단체를 통해 매년 사업자금 10억 여 원을 마련하는 한편 별도의 재정사업부를 두고 수익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무설연구소는 "이웃종교는 종단 산하 기관들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외부로 유출되던 재원을 학교법인과 교회 내부, 사회에 재환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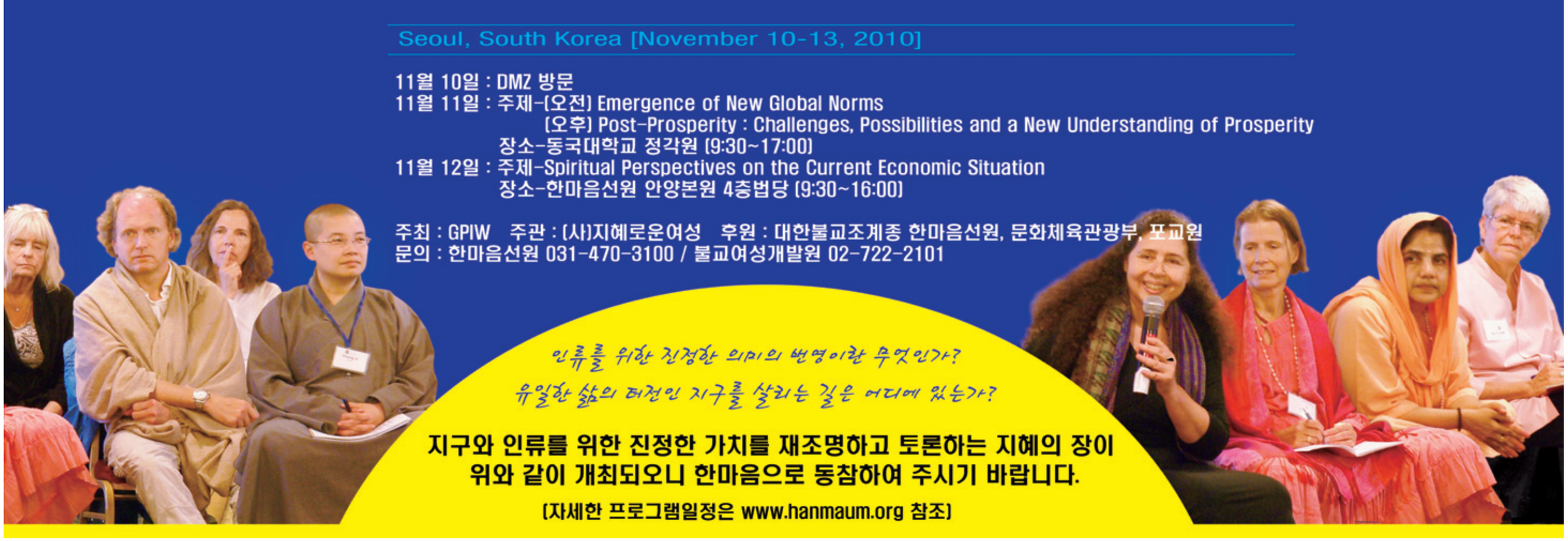
무설연구소는 "조계종도 종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종단 산하 단체와의 유기적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조계종은 종단 구성원의 협력을 보장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설연구소는 △사찰 등에 식자재 유통 △불교 용품조달 △상·장례 △보험 △건설 등 5개 분야 사업을 제안했으며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서 관계법령 도입 및 별도 사업 전담조직 편성, 경영전문가 양성의 제안도 덧붙였다.

무설연구소장 법만 스님은 "종단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연구소의 지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 이어 향후 지역사찰과 교구본사 차원의 수익사업 등 장기적으로 우리불교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일 주 문



천태종 구인사 광명전 봉불식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1월 13일 천태종 단양 구인사에서 광명전 봉불식을 봉행한다.



불교환경연대 숲유치원 개원 및 원아모집

불교환경연대 대표 현고 스님은 11월 15일 화계사에서 숲유치원 '아이숲'을 개원한다. 원아 모집 11월 13일까지. (02)734-1915



용문사 훈련소 법당 기금 전달

양평 용문사 주지 호산 스님은 11월 2일 아름다운동행에 군산훈련소 법단 신축 지정 기탁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동국대 경주캠 원자력 인력양성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11월 3일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와 경북도청에서 '원자력 인력양성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산반야회 28주년 기념법회

안동일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이사장은 11월 13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창립 2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2-1206



조계사 원심회 창립 22주년 기념법회

엄재면 조계사 원심회 회장은 11월 1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 2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20-4528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11월 11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02)722-2101



박용기 동대 교수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박용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10월 31일 제9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청봉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11월 1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전 총무원 행정부원장 청봉 스님을 임명했다.

청봉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종권수호위원회 위원, 종정홍보원 부원장, 중앙종회의원, 고시위원회 위원, 중앙사정원 부원장, 경기동부교구 종무원장, 중앙초심원장, 총무원 행정부원장을 역임했으며, 양평 용천사 주지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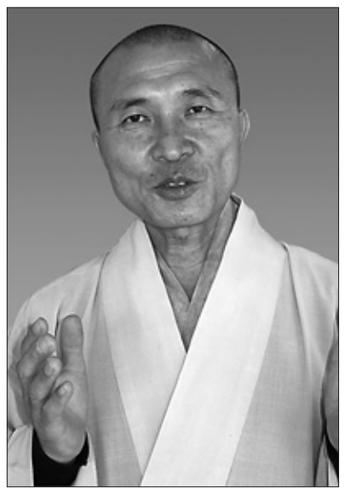
■현종 스님 인터뷰

"수행·봉사하는 명상문화 운동 전개"

(사)명상연구원(원장 현종·사진)이 설립 후 첫 명상강좌를 개설했다. 명상연구원이 소개한 첫 프로그램들은 요가, 상담, 치유, 명상을 도입해 보다 많은 이들이 수행의 참 맛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종 스님은 11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립 후 개발된 명상 대중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현종 스님은 "명상 수행자가 심리적인 상처 내지 장애가 있을 때에는 올바른 명상이 될 수 없다. 명상을 기본 수행으로 하면서 심리상담, 건강상담, 대체의학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 신체 치유의 방편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출가 후 명상의 대중화, 세계화를 화두 삼아왔다. 현종 스님은 "일반인들을 간화선만으로는 평화와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는 한계를 느꼈다"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수행과 봉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건강한 삶을 사는 명상 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 설명했다.

명상연구원은 11월 12일 박경준 교수의 '명상이란 무엇인가' 첫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15일부터는 정규 명상강좌를 본격 가동한다. 프로그램은 다라니 명상, 참선 명상, 명상 요가, 치유



요가, 건강상담프로그램, 개인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 등이다.

다라니 명상은 월, 수, 금 현종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현종 스님은 "간화선 등 다른 전문 명상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수행으로, 명상요가, 숲걷기 명상을 통해 몸을 풀고 다라니를 암송토록 지도한다"고 말했다.

참선 수행은 참선 경험자 및 명상치유와 다라니 명상 과정을 마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선 수행 지도는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이 담당한다.

명상 요가는 정통요가에서 명상을 심화시켰다. 개인별 맞춤상담과 명상을 기본으로 대체요법을 도입해 다이어트, 스트레스, 우울증, 대인관계, 학습능력 및 집중력 향상 등을 위한 건강 상담과 함께 운영된다. 또 개인상담, 음악 명상 등의 프로그램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홍혜경 상담심리전문가는 "명상과 상담은 상호 조화를 이룬다. 명상만 할 때에는 일정 수준에서 진전되지 않지만, 심리상담을 병행하면 상호작용으로 인해 명상과 상담의 뚜렷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명상연구원의 지리적 이점도 이용한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남산 자락에 위치해 도심에서 걷기 명상, 건강체조 마음다루기, 야외명상, 명상 단기출가 등도 실시한다. 또 명상 대중화를 위해 참선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시민선방을 마련해 개방할 계획이다.

명상연구원은 명상기초 연구사업, 명상프로그램 연구사업, 명상공동체 결성사업, 학교, 학원, 기업체에 명상을 통한 학습 및 성과 향상 과정 도입, 명상리더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명상 수행용품 및 전문서적 발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1577-0373

이상언 기자

보광 스님, 승가교육진흥기금 전달

체계적 지원 위해 장학재단 설립 제안

조계종 장학재단이 출범해 승가교육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달·운용하게 된다.

조계종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광 스님은 11월 4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승가교육진흥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체계적·효율적인 장학지원을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장학재단이 세워지면 종단 내 장학기금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배석한 교육부장 법인 스님에게 "2011년도 장학재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보광 스님이 전달한 승가교육진흥기금 3000만원은 10월 14일 스님의 화갑을 맞아 제자·상좌들이 간행한 〈불연록〉 출판기념회에 답지한 축하금을 모은 것이다.

조동섭 기자



(오른쪽부터) 조계종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광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

반룡사, 계율근본도량 선포식

주지 도일 스님 취임법회 및 율장연구원 현판식도

고령 반룡사가 계율근본도량으로 선포됐다.

조계종 계단위원회와 율장연구원은 11월 3일 고령 반룡사에서 계율근본도량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 반룡사에 율장연구원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행사는 '율장이운'과 헌다, 헌화,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의 고불문 낭독, 계율근본도량 선포와 제9 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의 인사말, 계단위원장 고산 스님 법어, 율주 철우 스님, 반룡사 주지 도일 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오 총장 "재임 않겠다"

동국대 홈페이지 '총장경영리포트'서 심경 밝혀

동국대 오영교 총장이 임기만료 3개월 여를 앞두고 차기 총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영교 총장은 11월 1일 동국대 홈페이지의 총장경영리포트에 '총장 선임에 즈음하여' 제하의 글을 남겼다.

오 총장은 글에서 "4년간 이끌어 왔던 '동국호'의 선장, '동국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그만 놓고 제 자신의 갈 길을 찾겠다. 이번 총장 선임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오영교 총장은 "2007년 2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동국에 들어온 이



후, 108 프로젝트를 통해 동국의 미래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대로 틀을 짰으며, 그 틀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제 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로써 제 역할은 마무리 돼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총장은 "그간 혹시 제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동국 발전에 동참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100년이 넘는 긴 역사에 걸맞은 동국의 위상, 일류 동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오로지 '우리 동국'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교 총장은 "법인이든, 교수든, 직원이든 자기 집단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일류 대학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 '나'를 버리고 '모두'를 생각하며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는 곳이 돼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의 새 총장 선출은 총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12월 말 경 이뤄질 전망이다.

조동섭 기자

신임 총무국장 현담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에 현담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4일 신임 총무원 총무국장으로 현담 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명식에서 현담 스님에게 "총무원 수석국장으로서 공심으로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담 스님은 1986년 대승사에서 법달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2년 범어사에서 석주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법달 스님이며 본사는 불국사다.

현담 스님은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후 조계사 포교국장, 포항 보경사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봉 일붕신문사 창간 27주년 기념 법회 축

- 제5대 회장 김도기 스님, 상임부회장 법흥스님, 제5대 사장 동봉스님, 부사장 각운 차우영 스님 취임 -

귀의 삼보하옵고
만추지절에 법하의 가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일붕존자님의 가호가 항상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장, 대학선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국가보위입법의원, 경주 불국사 주지등 수많은 행적을 남기시고 세계최다 박사학위(문학철학박사등 126개)를 받아 세계기네스북에 5관왕을 차지한 일붕 서경보 존자님께서 창간한 일붕신문이 어느덧 2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일붕신문사 창간 27주년 경축법회와 함께 본사 제5대 회장 김도기 스님(영주 관음사 주지, 전국일붕문도회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법흥스님(강진 남미륵사 주지), 제5대 사장 동봉(정대륭)스님(홍천사 조실), 부사장 각운 차우영 스님(대한불교불일조승종 부종정) 취임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여 법석을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 청 인

회장 김 도 기, 상임부회장 석 법 흥, 사장 동 봉
부사장 각운 차우영, 발행인 겸 편집인 이붕 서병열 합장

- 다 음 -

◎ 제목 : 1. 일붕신문사 창간 27주년 기념 법회
2. 제5대 회장 김도기 스님, 상임 부회장 석법흥 스님
제5대 사장 동봉 스님, 부사장 각운 스님 취임식

◎ 일시 : 불기2554(2010)년 양력 11월 30일
음력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2층 대회장
(서문으로 입장 주차 하십시요)
(서울 마포구 성산2동 515번지) (강변북로 성산대교 지나 바로 월드컵경기장으로 진입하십시요)
(전화 : (02)306-3600)

◎ 전화 : 일붕신문사 (02)777-0959, 일붕문도회(02)777-0901

김씨는 내 아들 장난감을 매만졌다

불교계 최초 참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30가정 새 가족 맞아

북한이탈주민 남한가정체험 1박2일

"버스가 도착했어요!" 모두의 눈이 멀리서 다가오는 버스에 박혔다. 점점 가까워지는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던 사람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가가 발그레해지더니 울먹이기 시작했다.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눈물이었다. 그리고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북한을 벗어나 우리나라에 온 북한이탈주민 126명으로 모두 하나원 145기 여자 교육생들. 남한의 가정을 체험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었다.

남한 가정체험은 사회통합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 이번 가정체험행사에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의 신도 30가정이 교육생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로 함께 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그동안 꾸준히 가정체험행사를 해 온 천주교 부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빈첸시오 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해 지역 종교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기도 했다.

11월 3일,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청 마당에서 이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다. 이미 하루 전 그들과 함께 보내는 일박이일동안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터라 적지 않게 긴장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해주면 편안해 할까? 걱정도 많았고 계획도 넘쳐났다. 그러나 나란히 앉고 보니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이유도 모르고 붉어진 눈시울과 먹먹해진 가슴으로 이미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과 신도들이 남한가정체험을 할 북한이탈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봉사자로 참가한 나는 북한 청진 출신의 30대 초반 김 씨와 가족이 되었다. 맨 몸으로 두만강을 건널 때의 두려움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위에서는 뒤집어지면 죽는다는 공포를 넘어 왔다. 김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탈출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공포를 극복하지 못해 지금도 악몽에서 깨어나곤 한단다. 중국에 어린 아들을 두고 온 김씨는 내 아들의 동화책과 장난감을 자꾸만 매만졌다.

이번 가정체험의 주 과제는 15만원으로 쇼핑하기. 한국의 물가와 쇼핑 문화를 이해하고 12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정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시간. 김 씨의 쇼핑 스타일은 신중 또 신중이었다. 그리고 함께 한 저녁 식사의 주 메뉴는 오징어 회. 뱃사람이었던 그녀의 아버지가 직접 잡아 와 자주 먹었던 음식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먹었다. 나보다 한참 어린 그녀가 겪어낸 탈북과 탈북이후의 기막힌 사연들은 밤이 늦도록 이어졌다. 얘기를 나누며 분단이 한 인간에게 가져온 삶의 질곡이 이토록 깊구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통일에 대한 기도를 이토록 간절히 해 본 적이 있었던가.

일박이일은 너무나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은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 땅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모자람이 없는 시간이었다. 버스가 멀어져갔다. 만날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보냈다. 흐려지는 버스를 바라보는 모두의 마음은 하나였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소서. **부산=천미희 객원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1월 3일 태릉선수촌을 방문,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 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11월 3일 서울 태릉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12일 개막하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를 목표로 하는 한국선수단은 총 41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1013명이 출전한다. 이 중 불자선수는 배드민턴의 이용대 선수를 비롯한 168명, 불자임원은 홍명보 축구감독 등 57명으로 총 225명이다.

자승 스님은 선수촌 도착 직후 김인건 선수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았으며 이기흥 광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체육인불자연합회장)에게 금일봉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스포츠 정신인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매너로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승 스님과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 스님들은 태권도, 역도, 필드하키,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을 둘러보며 선수들을 격려했으며 선수촌 법당을 찾아 이용대 선수를 비롯한 30여 불자 선수들에게 직접 단주를 달아주며 선전을 기원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소통과 화합의 비전을 제시 기원

종단협, G20 성공 기원 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은 11월 4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불교 종단 대표들은 G20 정상회의가 지구촌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동체대비 자타불이의 정신을 실현하는 자리가 될 것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20여 종단 대표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봉행사에서 "선진국들의 배타적인 모임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나라들의 사정과 의견이 반영되는 모임,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빈곤해소와 경제발전에도 눈을 돌리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모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잘사는 나라들만의 화합이 아니라 지구촌의 국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태고종 전국 승려 연수교육

태고종 총무원(원장 인공)은 11월 3~4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전국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인공 스님은 3일 입재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승려연수교육에서 수행교화 일선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 사암발전과 포교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총무원 부원장 화경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청봉 스님, 중앙초심원장 효성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상하 스님, 교무부장 법경 스님, 재무부장 혜산 스님, 문사부장 법운 스님, 규정부장 구산 스님 등 300여 종도가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100자 뉴스

덕숭총림 수덕사 1411주년 개산대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응산)는 10월 30일 '수덕사 1411주년 창건 개산대재 1000 승려 〈법화경〉 독경 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사시불공과 개산조 지명 법사 부도전 헌다례, 개산대재 법요식 순으로 진행됐다.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1400여 년 전 개산의 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1400여 년 전의 인연을 재현하여 구경(究竟)에는 오직 하나인 불성이 현현하여 그야 말로 세계일화(世界一花), 온 세계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 되기를 염원하는 〈법화경〉 독경법회를 온 사부대중이 함께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응산 스님은 개산대재에 열리던 산사 음악회를 대신해 모은 기금 500만원을 예산사랑장학회 기금으로 예산군수에게 전달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활인선원 제4회 참선대중화 선회 개최

안성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선원장 대효)은 11월 12~14일 제4회 참선대중화 선회 '평등한 대중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참선'을 봉행한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참선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선수행 지도는 선원장 대효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1644-5266 **이상언 기자**

서울노인복지센터 정재단(淨齋團) 발족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11월 1일 1층 만발식당에서 '정재단(淨齋團)'을 발족했다. 정재단(淨齋團)은 '정갈하고 깨끗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란 뜻으로, 정재단은 어르신, 직원, 자원봉사자 대표 각 1인씩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정재단은 매일 식사 배급이 진행되기 전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날의 식단을 시식하고 식단에 대한 체크를 한다. 복지센터는 기록된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힘쓸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보현산 충효사 중창불사 2주년 회향

보현산 지장도량 충효사(회주 해공)가 중창불사 20주년 기념회향 대법회를 10월 31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장보살님존상 5000위 점안 봉안식, 국운융창 민족화합 방생법회, 한마당 노래잔치, 산사음악회가 진행됐다.

충효사 회주 해공 스님은 "충효사는 고통 받는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지장보살이 상주하는 지장사상 중심 기도성취도량으로 불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반룡사 원효, 설총 육법공양다례재

원효 성사, 설총, 요석 공주의 얼과 행적이 살아 숨쉬는 신라천년 관음도량 구룡산 반룡사(주지 혜해)가 석축불사 회향식과 원효·설총·요석 공주를 기리는 육법공양 다례재를 10월 31일 봉행했다.

1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행사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에는 석축공사 준공식과 신라 무열왕이 외손자를 상봉하기 위해 경주에서 반룡사까지 걸었던 산길 걷기를 복원한 왕재산행이 열렸다. 제2부에는 지역 어르신에게 음식공양과 함께 즐거운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이 진행됐다. 제3부에는 원효, 설총, 요석공주 다례재가 봉행됐다.

반룡사 주지 혜해 스님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사업의 원만한 진행과 더불어 이 행사가 옛 성현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화합과 소통의 새 역사적 기틀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기혈수비법으로 잘 알려진 남산스님 관세음보살님과 감응

남산스님의 영험한 맹귀부목 符

영험한 신통력을 가진 '맹귀부목'은 남산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감응을 받아 만들어진 기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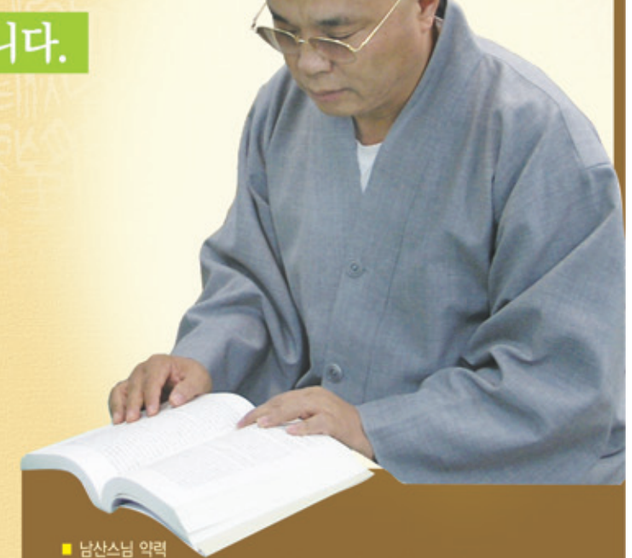
남산스님근황
파스 한장으로 고통 받고 있는 병약자들에게 어느 곳이든 인연이 닿는 곳이라면 달려가 무료로 치료해 준지도 어언 20년이 지났습니다. 스님이 겪고 있는 2급시각장애의 고통을 오로지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삶의 일대사 인연으로 생각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스님께서는 참선기도 중 관세음보살님과 감응하게 되면서 다문화 처녀총각들에게 인연을 맺어주고, 어렵고 힘든 불자님들의 길흉화복을 알려주어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알려주시는 등 종전의 대체의학 보시와는 달리 영적세계와 불자님들을 이어주는 영험보시를 하고 계십니다.

맹귀부목(盲龜浮木)이란?
행운목인 대추나무에 맹귀부목과 광명진언을 새기고 윗면에 황금거북을 아로새겨 놓아 맹귀부목 인장의 영험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맹귀부목은 하는 일이 좀체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뜻밖의 행운을 만나 사업에 성공하고, 취업이나 진학의 뜻을 이루며, 건강을 회복한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맹귀부목도장을 소장하신 분들에게는 81영동수비법으로 스님께서 직접 이름을 무보시로 감명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맹귀부목을 받으신 분에게는 남산스님께서 직접 무보시로 감명을 해드립니다.
*삼원 오행상 상생이 되지 않는 이름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자신의 일간과 조화가 이루어진 이름은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무보시 감명하실 분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생시 :

이런분들은 남산스님의 맹귀부목을 소장하십시오.
부동산 자영업 취업 승진 시험 혼사 건강 등을 꼭 풀어야 하실 분들



■ 남산스님 약력
• 녹색대학교 석좌교수 • 중국 요녕성 중의약대학교 비만학과 교수
• 몽골 칭기스칸대학교 교수 • 부산 부광명인불자회 지도법사

■ 남산스님 저서
〈남산스님의 기혈수 비법〉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남산스님의 기적의 파스요법〉 〈남산스님의 테이핑요법〉 〈잔주름 확펴고 군살 쭉 빼고〉외 다수

■ 언론사 방영
•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 MBC 휴먼TV 공감
• MBC 모닝와이드, TV 아름다운 가게 • BTN 불교방송 우리절 우리스님
• 마산 MBC 매거진 세상 • SBS 호기심 천국 외 다수

남산스님 자비사 080-714-3030

김제동 열린아카데미 사랑학 강연

“짠한 마음 있어야 친구 사귄다”



방송인 김제동 씨가 11월 2일 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특유의 입담과 솔직한 이야기로 웃음과 감동을 전했다.

우리시대 최고의 달변가 김제동 씨. 한때 승승장구하며 방송 생활을 하던 그를 요즘은 강연장에서 더 자주 보게 된다.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추모 공연 사회를 맡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쌍용차 사태 등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그의 언동에 딴지를 거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김제동 씨가 트위터에 올린 몇 줄의 문장과 사진은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 쏠쏠한 기사거리가 되고 있고, 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부르고 있다.

특유의 입담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김제동 씨가 11월 2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청년 열린아카데미를 찾았다. ‘우리 세대의 엣지나는 사랑학’ 이라는 주제 안에서 그는 사회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 등에 대해 풀어나갔다.

이날도 역시 그는 웃음으로 이야기를 풀고, 감동으로 이야기를 마감했다. 이날 진행된 강의는 영화배우 김여진 씨와 김제동 씨가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제동 씨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 가족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좌중을 폭소케 했다.

88만원 세대? 88만원 세대라는 것도 관습 같은 것이다. 스스로 깨어가라. 그 말도 기성세대가 지은 것이다. 그들에게 욕을 퍼부어라. 요즘 “애들은 안 돼” 라는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단군 할아버지뿐이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중심임을 잊지 말라. 관습을 깨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친구란? 친구란 두 개의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나의 고통을 자기 등에 짊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처럼 짜증나는 것이기도 하다. 친구는 오래보지 않아도 끌리는 사람이다. 친구와는 갈등 해결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만날 사람들은 또 만나게 돼 있다. 불경에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했다. 사랑이나 미움의 감정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함몰되지 말라는 뜻이다. 편한 친구는 나중에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 많은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라.

어떤 친구를 찾아 사귀기보다 그런 친구가 되도록 본인이 노력해 보라. 굳이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나 한번 사귀어 봐, 나 되게 좋은 놈이다’ 하면서 .

친구를 사귀는 법은? 연민이다.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가져보라. 이승엽 선수가 돈으로 따지면 뭐가 불쌍하겠는가. 그런데 어묵 먹는 것 보면 불쌍해서 사주고 싶다. 수백억이 있어도, 어떤 지위에 있어도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이 연민이다. 아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연민이다.

꿈이란?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은 아이가 벽을 타고, 거미줄을 쏴보고, 거미한테 물려도 보고, 이게 잘못인가? 그 아이가 스파이더맨을 꿈꾼다고 어긋나지 않는다. 우주선을 꿈꾼 누군가가 우주선을 만들 듯이.

자신의 꿈은? 내 꿈은 사회자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회를 볼 때면 이런 상태가 된다. 이 상태를 오래도록 즐기고 싶다. 무덤 앞에는 비석 대신 마이크를 놓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라고 새길 것이다.

가족이란? 가족은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다. 때론 가족이 싫다. 하지만 내가 방송을 그만 두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옛날에는 일주일에 세 번씩 방송에 나왔는데 이제는 여기를 틀어도 안 나오고 저기를 틀어도 안 나온다”고 하면 짜증난다. 하지만 그게 가족인 것 같다. 가족은 내 삶의 근원이다. 또 우리 엄마 땜에 방송해야 한다.

글=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채소 과일 365! 가족 건강 365!’

파라미타, 사찰음식으로 식생활 개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날로 뚱뚱해지고 있다. ‘2009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전체 비만율은 13.2%, 고도비만율은 1.1%로 2008년보다 각각 2%, 0.3% 증가했다. 표준체중의 50%를 초과하는 고도비만율은 2006~2008년 0.8%에서 2009년 1.1%를 넘었다. 5년 전에 비해 중고생들이 키는 거의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몸무게는 2kg이나 늘어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학생 비만은 지방세포만 커지는 성인 비만과 달리 지방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성인기 고도비만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또 성장과정에서 정신적인 위축감, 소외감 등도 문제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노동 생산성 악화나 의료비 증가로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청소년 비만의 원인은 서구화된 식단과 학생 대부분 주 1회 이상 햄버거, 패스푸드, 라면 등을 먹고, 운동부족과 스트레스로 보고 있다.



사찰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나물과 채소만을 이용해 요리 실습을 하고 있다.(대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자료사진)

이에 우리나라도 학생 비만 줄이기 대책 마련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도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반 쪽 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가정이나 학교 식단에도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서구화된 식단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청소년 단체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가 청소년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구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11월 13~14일 청소년 식생활 습관 개선과 가족 건강을 위한 채소 · 과일 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SPT(Student 학생, parents 학부모, Teacher 교사)사찰음식 경연’을 실시한다. SPT 사찰음식 경연은 대구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족건강365운동본부와 함께 진행한다. ‘채소 과일 365! 가족 건강 365!’ 운동은 하루 3번, 6가지 이상의 채소 · 과일을 5가지 색으로 맞춰 먹으면 1년 365일 가족 3대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6대암에서 한국인의 5대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장병, 아토피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이번 행사는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와 경산 대경대학(총장 강삼재)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식생활 개선 및 비만 방지를 위해 채소 과일을 섭취의 중요성과 빈 그릇 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 놀이를 통한 칼라푸드(채소-과일)의 영양 기능 알아맞히기 등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한 퍼포먼스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요리 강습은 채소의 5대 영양학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지초등학교 채한나 영양교사가 한다. 요리 실습 프로그램은 대경대학 호텔조리과 김인숙 겸임교수의 지도로 채소로 만들어진 식사, 취나물 잡채 만들기를 실시한다.

또 동화사에서는 사찰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놀이를 통해 채소 · 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교육할 계획이다.

손선용 능인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은 급식에서 고기요리에 들어간 채소조차도 먹지 않고 가려내고 있다”며 “육식을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 학생들이 고기와 야채, 과일 등을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특별히 가족이 함께 참가할 경우 부모님의 참가비는 무료다.

전남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지부장 김재기)는 11월 13~14일까지 전남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건강캠프’ 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는 200여 청소년과 가족들이 무공해 야채와 산나물을 직접 채취하는 과정부터 요리, 발우공양, 자연명상, 다도 등을 체험한다. 061-724-6277

이상언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TV, 3스크린 영상포교시대

불교TV(회장 성우)가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방송 및 VOD서비스, 교계소식을 볼 수 있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오픈했다. 불교TV는 스카이라이프, IPTV에 이어 스마트폰, 웹TV를 통해서도 실시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3스크린 영상포교시대를 열게 됐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최신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영상 포교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덕주 전략기획실장은 “10월 모바일 웹페이지 개설에 이어 웹TV까지 진출함에 따라 불자들에게 불교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촉매제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N스크린 시대를 맞아 테블릿PC(아이패드, 갤럭시탭 등)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실시해 4스크린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KCRP 종교별 죽음관 고찰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은영)는 11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종교별로 본 웰다잉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는 김기호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운동본부 교육위원, 조헌정 목사 NCCK양성평등위원, 이경식 가톨릭의대 종양내과 및 호스피스센터 명예교수, 원익선 교무, 김성자 천도교여성회 본부 교화부장, 이혜자 여성유도회 명예회장이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자살예방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성언 기자

불교 가족상담교육 지도과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전국비구니회는 11월 9~10일 전국비구니회관 대강당에서 조계종 비구니 스님 50명을 대상으로 불교가족 상담 교육 지도과정을 진행했다. 강의는 9일 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으로 황수경 동국대 강사가 ‘신도 가족 상담의 심층이해’ 를,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불교의 생명관’ 을, 이영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현대의 다양한 가족과 가족 상담 지원’ 을 강의했다. 10일에는 가족상담의 이론과 비법, 불교적 가족 치료와 상담의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성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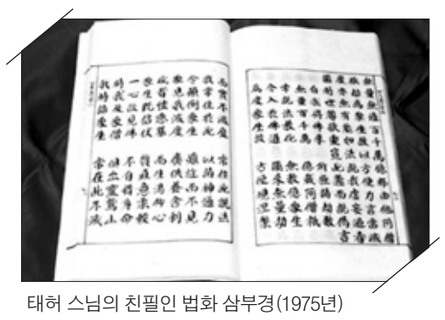
천광수련원 043)905-8275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38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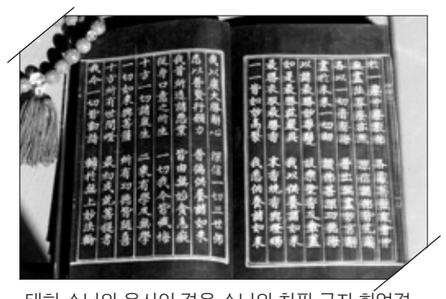
법화행자 태허당 홍선 스님

독립운동가…방송포교로 시대를 앞섰던 선각

관음종 학술대회 개산조 삶과 사상 조명'


고희(古稀)의 태허 스님(1975년)


태허 스님의 친필인 법화 삼부경(1975년)


태허 스님의 은사인 경운 스님의 친필 금자 화엄경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11월 1일 태허 스님 탄신 105주년을 기념해 〈태허조사 일대사인록(一大事因緣)을 말하다〉를 펴냈다. 또 이날 총본산인 서울 숭인동 묘각사에서 '관음종 개산조 태허당 홍선 스님 조명 학술대회'를 열었다.

홍파 스님,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박성배 뉴욕주립대 교수,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신규탁 · 강찬국 연세대 교수, 김선근 · 김용표 · 고영섭 · 오형근 · 김광식 동국대 교수, 최봉수 서울불교문화대학 교수,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 교수, 최기표 금강대 교수, 양승규 중앙승가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태허 스님의 독립운동 행적과 불교개혁가, 포교사로서의 스님의 발자취를 살폈다.

생애와 독립운동가로서의 삶

태허 스님은 1904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지금의 조계사인 각황사 뒤에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주체의식이 강했던 태허 스님은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다 경성예비고등전문학교에서 수학하며 신학문을 접했다. 스님은 이때부터 반일의식을 키웠다.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아 일본군의 앞잡이 역할을 한 인물들을 제압하는 등 독립투사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태허 스님은 각황사에 초빙된 선암사 경운 스님(1852~1936)의 설법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당시 조선불교 선교양종 교정으로 있던 경운 스님을 은사로 26살 때인 1930년에 출가했다. 이듬해에 일본 게이오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일요일에는 도쿄 남동쪽에 자리한 일본 8대 종단 중 하나인 일련종 대본산 혼몬지(本門寺)를 찾아 법화사상에 대한 설법과 강의를 경청했다.

태허 스님은 유학시절 피압박민족으로서의 자각과 독립 의식을 강하게 싹틔웠다. 도쿄 시내에 권투클럽과 김치통조림 공장을 세워 나라를 떠나온 동포들에게 '조국'의 관념을 심어줬다. 그러다 일본 경찰의 감시에 걸려 중국으로 향했다.

상하이로 건너간 태허 스님은 임시정부에서 활약하며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스님은 상해와 서울을 오가며 임시정부의 자금을 운반했다. 상하이 시내에 권투클럽을 개관해 독립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온 태허 스님은 명동에 최초의 신식 다방인 '멕시코'를 열고 지식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은밀한 집회장소를 제공하며 독립군 훈련비 자금을 지원했다.

불입종 설립해 불교 대중화에 헌신

태허 스님은 세수 36세 때인 1940년 서울 낙산에 묘각사를 창건했으며, 1950년부터 6년간 경상북도 상주 백화암에서 6년간 수행했다. 당시 한국불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사찰령 등으로 종단이라는 위상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스님은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법통이 사라진 채 지도자 없이 개인적 신앙으로 전락 △새 시대의 감각과 현재 민중들의 요청을 수용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스님은 1957년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일승불교현정회'를 설립해 스님들의 수행과 대중생활을 지도했다. 스님은 혼돈스러운 사회상황에서 종교의 정신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1958년부터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설법을 나섰다. 또한 동양방송 전신인 라디오서울에 신앙강좌를 열어 대중포교에 진력했다.

이후 1965년 태허 스님은 '대한불교 불입종'을 문교부에 등록하고 종정에 취임했다. 승려 중심의 종단이 아니라 '승속 혼연일체가 되는 종도대중의 종단'을 역설했다. 1970년에는 불교잡지인 월간 〈범성〉을 창간해 글을 쓰고 강론하며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헌신했다. 태허 스님 입적 후 불입종은 종명을 대한불교 관음종으로 바꾸고 새로운 불교종단으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태허 스님의 법화사상

태허 스님은 〈법화경〉을 종단의 소의경전으로 정하고 수행의 기본으로 삼았다. 스님이 처음 발심할 때 깊이 체득했던 〈천수경〉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불입종 창종 후에는 〈법화경〉의 '대비신주'로 대체해 염불 주력 삼매에 들었다.

태허 스님은 〈법화경〉 교리에 입각해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었고 실천적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스님은 '묘법연화경에 귀의하나이다'라는 대비주를 통해 법화 해석의 충실한 계승자가 되고자 했다. 그는 제법실상을 설하는 이 경전이 제법의 법문이고 불법의 대강임을 확신시켜 주려 했다. 태허 스님은 법화행자의 삶 속에서 법화삼매 대비주를 독송해 왔을 뿐 아니라 종도들에게 독송을 권장해 왔다.

관음종, 종조 연구 본격화

태허 스님의 업적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통해 희망의 등불이 됐다는 데 있다. 또한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켜내면서 치열한 구도 수행자로 산 스님은 시대를 앞서가는 전법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홍파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태허 스님이 종단 건립을 위해 기록한 〈해동천태법화법맥소고〉의 친필유고를 소개했다. 홍파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당시의 불교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수많은 생각을 전하고 있다"며 "주요 종단에 견주어 대한불교관음종의 종조와 종지 및 종풍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관음종 역시 주요종단으로서 종조와 종지, 종풍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봉행된 법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등 교계 주요 인사들과 박진 국회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일본불교 통해 한국불교를 본다

불교학연구회 '일본불교의 기원 · 토착화 · 영향'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11월 13일 오전 9시 한국외대 대학원 1층 브릭스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일본불교의 기원 · 토착화 · 영향'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불교의 이해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의 특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회에서는 일본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을 고대 · 중세 · 근대 · 현대로 나누어 전문 학자들이 전체적 접근을 시도한다.

일본학계의 대표 학자인 기무라 기요타카(쓰루미 대학 총장)가 '일본불교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주제발표는 △이광준 교수(일본 류코꾸 대학)의 '고대의 한일불교관계' △미노와 겐료 교수(동경대)의 '일본천태종과 가마쿠라 신불교' △원영상 연구교수(동국대)의 '메이지 유신과 불교계의 동향' △이민용 선임연구원(한국종교문화연구원)의 '서구에 끼친 일본불교의 영향' 등으로 진행된다.

일본학계의 대표학자인 기무라 기요타카 총장은 강연에서 일본불교가 갖고 있는 대승불교로서의 보편성을 소개한다. 또한 6세기 삼국으로부터 불교를 전래받아 12세기 토착화되면서 생겨난 정토종, 일련종 등 다양한 종파들이 장례 문화 등 일본의 민속요소와 결합하면서 나타난 일본 불교의 특수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광준 교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가 일본불교에 준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원영상 연구교수(동국대)는 메이지유신 시기에 일본불교가 스스로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불교혁신을 도모한 과정을 살핀다.

이민용 선임연구원은 일본불교가 2차세계대전말까지 일본제국주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샤쿠쇼엔과 스즈키의 선사상이 서구사상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조명한다.

본각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일본불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종교교사 양성과정' 학술대회

한국종교교육학회, 12일 수원대서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12일 수원대 종합강의동에서 '종교교사 양성과정과 종교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틴 피터마이어(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사)의 '현대교육에서의 종교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범석 경희대 교수의 '종교학교 종교교재의 구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이재일 선문대 교수의 '종교교과 수업모형에 따른 수업사례연구' △윤재근 대진대 교수의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김귀성 원광대 교수의 '종교와 교수-학습 원리와 교수법 사례'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의 '종교교재의 영성지향 평가 모형'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김용표 회장은 "최근 종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 교육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각 종단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논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종교교재 연구 및 지도방법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2011학년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야간)

■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불교	차문화컨텐츠	불교사회복지	생사의례	명상상담
전 공	불교학, 선학	다도 · 제다	사회복지	생사의례	명상상담
모집인원	00명				

■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0. 11. 8(월) ~ 26(금)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또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형일 및 장소	2010. 12. 4(토) 10:00 ~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지원자격

석사과정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자 또는 2011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국내 · 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지도자과정	•각 불교 종단의 스님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특 전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4학기수료) 수료자는 총장명의의 상제례사 인증 응시자격 부여 및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본 대학교 출신자 진학 시 입학금 면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TEL 02-2260-3096, 3097 •FAX 02-2260-8627 •http://gsbs.dongguk.edu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촛불 밝히고 자리이타 서원

〈自利利他〉

희망법당 탐방

진선여고 수능서원불사

"모두어느 스님이 경청 스님에게 물었다. "학인이 알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톡 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살아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경청 스님은 말했다. "역시 형편없는 놈이로구나."

〈벽암록〉에 나오는 '줄탁동시(啐啄同時)'다. '줄'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 쪼는 것을 가리킨다. 어미닭은 밖에서 알을 쪼아 병아리가 알을 깨는 행위를 도와주는데, 이것이 '탁'이다. 동시에 알을 쪼기는 하지만 어미닭은 다만 알을 깨고 나오는 데 작은 도움만 줄 뿐, 결국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병아리 자신이다.

이처럼 인생의 방향을 바꿀 갈림의 순간, 또는 인생의 고비마다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 치열한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인 서원이 그때마다 필요한 이유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을 보름쯤 앞둔 10월 30일 토요일, 서울 강남의 진선여고에서는 수능서원불사가 열렸다. 이날 대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여 수능시험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며 선후배가 함께 마음을 모아 꿈과 목표를 향해 정진하자고 서원했다.

1부 서원법회에서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수년간 갈고 닦아온 노력과 부모님들의 정성스러운 뒷바라지가 헛되지 않도록, 또 인생의 큰 갈림길에선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용기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법회에서 이 학교 정교실장 원암 정사는 "학생들이 이번 서원불사를 계기로 단순히 나만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뜻을 새겨 이웃에게도 이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2부에서는 1, 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됐다. 3부에서는 진각종 중창단인 JND소울이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인순이의 '거위의 꿈'과 같은 노래로 희망과 꿈을 되새겼다. 학생들은 박수를 치면서 목청 높여 함께 노래했다.

> 그동안 노력 헛되지 않게
> 수험생에 지혜 용기 '팍팍'
>
> 나만 성공하겠단 맘 버리고
> 이웃도 이롭게 살라

JND소울의 리더 구장현 씨(진각종 문화사회부 과장)는 이날 학생들에게 "노래하는 것이 나의 전공이 아니었는데 대학에 가서 노래 부르는 길을 택해 열심히 달려오게 됐다. 대학진학은 보다 큰 공부의 시작의다.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12년 동안의 공부를 평가받는 결정적 순간을 앞두고 열린 서원불사에서 수험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압박감이 크다. 촛불을 밝히고 모두 함께 잘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져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혜진 학생은 "이번 불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미대 진학 후에는 불상 조성 및 불교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학생회 부회장인 혜진이는 이를 위해 대학에 가서도 학내 불교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이다. 혜진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독실한 불자로 어머니는 수능을 앞두고 매일 봉은사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혜진이는 "추운 날씬데도 절에 가시는 부모님을 보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 요즘에는 실기시험 준비로 함께 하느라 잠잘 틈조차 없다"고 웃었다.

서원불사를 마친 학생들은 등교 때보다 힘찬 발걸음으로 교문을 나섰다.

노덕현 기자



수능서원불사가 열린 10월 30일, 진선여고 3학년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수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계 중 살생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죽어있는 고기를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마트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칼도 잡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부처님의 말씀도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게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수도하는 수행자가 아닌 일반 불자입니다.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면서 오계를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업을 놓고 오계를 지키라고 강요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이며, 수행의 종교입니다. 재가불자는 다른 중생보다 좀 더 아량 있고, 남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 담자께서도 열심히 일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보시행을 실천해 보시

> 살생하지 말랬는데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 감정상태를 '0'로 만드는 것이 해탈인가요

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내담자께서 고민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며, 지금 직장에서도 불자로서 당당히 일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Q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쁨과 고통을 없애서 감정상태를 '0'으로 만드는 건가요? 전 괴로움이 있어야 행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A 불교란 2600여 년 전 인도의 석가족 왕자로 태어나 진리를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개조로 부처님의 설하심을 믿고 배우며 따르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진리를 알고 이를 행하는 삶은 자유롭고 편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진리를 깨우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자기완성만이 아닌 나와 남이 함께 깨달아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조계종 소속 사찰 중 집과 가까운 곳을 택해 불교 기본교육을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나 불교 예절, 불교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불교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본인의 과거 업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미 과거로부터 정해진 업이 인연에 의해 현재 일어난다면,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 노력해도 업이 바뀌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다만 지금의 노력이 미래나 후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현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면 과연 윤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A 과거세의 원인이 현세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다음 세계에 보다 좋게 다가가는 것보다 현재에 닥친 고통에서 헤어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불이법(不二法)과 제행무상(諸行無常)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통을 과거세의 인연으로만 보고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한다고 한탄하며 살기보다는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고심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과거의 업(業)을 운운하며 낙심하고, 윤회법을 따진다면 현명한 생각일까요? 인생의 주인이 돼 내 삶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심해야 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행한다면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선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을 바꾼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참회와 기도정진을 열심히 하시면, 선업이 쌓이고 전생의 얇은 업은 소멸되고 두터운 업은 얇아지게 됩니다.

윤회에는 육도윤회가 있습니다. 성불하기 전에는 누구나 이 육도를 윤회합니다. 선업과 악업에 따라 육도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윤회라 하는 것입니다. 선행만으로는 윤회를 면할 수 없고 성불해야 윤회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전생과 내생을 알고 있습니다. 전생의 과보에 따라 현생이 있고 현재 행하는 바에 따라 내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공 : 불교상담개발원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단청분야의 대혁신 !!!

옻칠단청

천년보장 옻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옻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풀,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 · 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옻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응, 일섭, 우일스님 문중의 수석맏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탱화,개금 3절장인
만성 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채소과일 365!
가족건강 365!

『가족과 함께하는 오감(五感) 만족』 건강캠프

일 시 : 2010년 11월 13일(토) ~ 14일(일) 1박 2일
장 소 : 전남 나주 심향사
참가대상 : 학생 학부모 (파라미타 회원 우대)
참 가 비 : 전액 무료 (공모지원사업)
문의전화 : 사)전남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061)724-6277
나주 심향사 종무소 061)334-2880

주 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가족건강365운동본부
주 관 : 사단법인 전남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오로지 자신의 등뼈에 의지하십시오”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오른쪽)과 재가 수행자들이 길상사 경내에서 아침 포행을 마무리하고 있다. 북악산 포행을 하고 돌아온 경내에 아침 햇살이 고요히 내려 앉아 있다.

수행도량 길상사의 생활참선

“길상사의 공간을 살려서 수행도량의 면모를 갖추어갈 예정입니다.”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은 수행을 통해서만 불교의 참맛을 알 수 있기에 수행에 관심을 갖도록 여건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길상사는 하안거부터 시작해 아침 · 저녁 참선 수행을 진행했다. 해제가 다가오자 재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아침에는 덕현 스님이 직접 참선 지도를 하고, 저녁에는 유나 스님이 지도를 하고 있다. 평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말에 기회를 주고 있다.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 “집중수행 프로그램 준비 중”

스님은 절에서 소원을 빌고, 봉사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마음챙김을 통해 불법을 일상 속에서도 실천하는 것이 참수행이라고 했다. 그래서 덕현 스님은 길상사를 ‘수행도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출재가자가 아침 · 저녁 언제든지 좌선을 할 수 있도록 길상사와 연결된 선원 수련원을 새로 만들거나 연계시킬 계획이다. 주말, 일정기간 휴가를 내서 참여할 수 있는 집중 수행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스님은 “법정 스님은 ‘도량이 있기 전에 수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핵심은 수행에 있다. 수행은 스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사의 괴로움과 복잡한 생활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첫날 저녁

시나브로 해도 짧아지고 추위도 몰려왔다. 생활의 속도를 늦추고 싶은 계절이 왔다. 어둠을 몰고 오는 가을인데도 세상을 밝히는 전깃불 덕에 ‘어둠’도 모르고 지나온 듯하다. 거리엔 화려한 조명과 소음에 쌓인 채 추위를 피하는 걸음들만이 분주했다.

반짝 추위로 움츠렸던 11월 1일 저녁, 도심 사찰 길상사에 가을 어둠이 가득했다. 도량은 침묵 자체다.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문득 떠올랐다.

두터운 옷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살포시 일주문을 넘었다. 설법전으로 들어가 몇몇 사람들과 간단한 눈인사를 하는 것 외에는 말이 없다. 곳곳에 ‘묵언’ 표지판이 있었다. 묵언, 두 글자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다. 좌복에 자리를 잡아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탁-, 죽비소리가 더 깊은 침묵으로 이끌었다. 죽비 1타에 이은 2타까지의 호흡이 길었다. 오랜 소음에서 침묵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길처럼.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50분의 좌선을 마치고 또 다시 죽비 소리. 탁-, 탁, 탁.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이는 남는다. 어느 새에 새로운 이도 왔다. 50분 정진, 10분 행선, 50분 정진은 칼같이 지켜졌다.

다음 날 아침

다음날인 2일 아침 7시. 길상사 소강당에서는 어제 저녁과 똑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사람들은 침묵으로 일관한 채 참선을 하고 돌아간다.

몸과 마음이 웅크려지면서 안부리던 게으름도 피우게 되는 초겨울, 그것도 평일 아침과 저녁에 이들이 이 도량을 찾게 되는 강한 힘은 무엇일까?

길상사(주지 덕현)는 하안거 기간인 지난 9월부터 아침 · 저녁으로 참선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2시간씩. 아침에만 진행하던 수행 시간을 저녁에도 하도록 했다. 아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출재가를 막론하고 정해진 수행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방부를 들이는 것은 모두 자유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다. 이들을 보고 있자니 법정 스님의 말씀이 되새겨졌다.

“인간은 누구나 어디에도 기대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자신의 등뼈에 의지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 자신의 등뼈 외에는 어느 것에도 기대지 않는 안정된 마음이야말로 본래의 자기이다.”

셋째 날 아침

3일 아침은 포행으로 아침 수행을 대신했다. 참선과 일상의 연결고리를 찾아주기 위해서였다. 포행은 길상사 뒤 북악산 서울 성곽에서 진행됐다. 덕현 스님은 포행 도중 점검과 소참법문을 진행했다. “공부가 잘 되시나요. 참선은 원래 정해진 자세가 없어요. 좌선을 한다고 해서 무한정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하는 수행도 똑같습니다. 경계 속에서 마음 챙기기를 통해 경계에 착(着)을 두지 말고 몸과 마음에 균형을 잡으세요”라며 차분히 설명했다.

10여 명의 불자들은 아침 햇살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경계에서 벗어나 마음을 챙겼다. 단풍 우거진 가을 산에서 새로운 싹이 솟아오르듯 재가 수행자들은 얼굴이 밝아졌다.

“참 좋지요.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라는 정묘안 보살은 환희심이 가득했다. 먼 길 마다 않고 새벽길, 저녁길을 오르는 이들에게 명상은 무엇이고 바쁜 아침 · 저녁 좌선은 무엇일까?

아운 보살은 “항상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직접 실천하게 됐다. 이제는 하루라도 빠지면 몸과 마음이 찌뿌듯하다”고 말한다. 향지 보살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삶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때를 알아 떠나는 낙엽을 보며, 처량한 신세타령은 가을바람과 참 잘 어울린다. 하지만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삶의 향기는 사시사철 맑고 향기롭게 번지고 있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죽비 1타에 이은 2타까지의 호흡이 꽤 길었다. 오랜 소음에서 침묵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길처럼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중심사 제석근로사업장 개소

중증장애인 일자리 UP 희망 UP

장애인 고용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지역사찰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나서 화제다.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는 11월 3일 광주 남구 송하동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장 제석근로사업장(원장 지원) 개소식을 열었다. 사업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자승)이 광주 남구로부터 위탁 받아 증심사가 운영하게 됐다.

장애인 241만명 가운데 중증장애인 실업률은 16.6%로 비장애인에 비해 약 5배나 높다. 일반장애인 취업의 벽보다도 높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제석근로사업장 개소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의 일원으로써 자긍심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석근로사업장은 단체급식소에서 바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채소, 과일 등에 있는 흙, 먼지를 세척하고, 손질 및 가공하는 신선편의식품 및 김치 생산 사업 등을 실시한다.

제석근로사업장은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126㎡ 대지 위에 사무 · 공장동을 설치하고, 30명의 완도 지역 중증장애인을 채용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바자회, 나들이, 기초학습지도, 여가활동, 체육활동, 지역사회시설이용 등 재활프로그램도 제공받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치사를 대독한 증심사 주지 지장 스님은 "모든 이가 행복해야 나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이념을 실천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향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광주지역 장애인 30~60명을 추가 고용하고, 2012년 120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장 스님, 지원 스님, 보건복지부 최영현 장애인정책국장, 최영호 남구청장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062-675-188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장 스님(왼쪽 끝)과 행사 참가자들이 제석근로사업장 담당자로부터 내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다.

G20 성공 기원 잇따라

'걷기 명상' '산사음악회' 등 형태 다양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진행한 걷기 명상은 종교를 초월해 부산지역 불교신도와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됐다.

부산 불교단체들이 G20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동북아 제2 허브공항 부산 가덕도 유치를 염원하는 기원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는 10월 30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부산 시민과 함께 제2회 걷기 대회 '명상 따라 걷는 부산 불교'를 열고, G20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부산시 최대 현안사업인 '동북아 제2허브공항 부산 가덕도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걷기대회는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과 수석 부회장 화산 스님(삼광사 주지),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미룡사 회주), 설동근 신도회장 등이 참여했다. 걷기대회는 명상과 걷기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종교를 초월해 부산지역 불교신도와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화합과 어울림의 장이 됐다.

부산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3.4㎞구간을 걸으면서 3000여 사부대중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제공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윤기혁 사무국장은 "종교를 초월해 전체 부산시민이 함께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기원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됐다"고 밝혔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류화산)는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남부권 국제 허브공항 가덕도 유치를 기념하는 가을 산사음악회를 10월 31일 삼광사에서 성료했다. '만남'을 주제로 진행된 산사음악회에는 경내 곳곳까지 채운 신도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종교인 한마음으로 화합 다짐

아름다운 순례길 선포 1주년

개신교의 조직적인 불교 비방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4대 종교인들이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다짐했다.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4대 종교인들은 10월 30일 전북 완주 송광사에 모였다. 아름다운 순례길 선포 1주년을 자축해 마련된 행사는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리였다.

이날 종교인들은 '아름다운 순례길 선포 1주년'을 맞아 전주 한옥마을을 출발해 완주 송광사까지 28㎞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이어 저녁에는 송광사 뜰에서 산사음악회를 즐겼다.

행사에 참석한 도영 스님과 개신교 박진구 목사, 가톨릭 이병호 전주교구장, 원불교 고원선 전북교구장 등 4대 종단 대표와 신도 등 2000여 명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종교인이 되자고 마음을 모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4대 종교인들이 10월 30일 전북 완주 송광사 산사음악회에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신행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화엄사 네팔 만다라전

네팔 만다라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11월 25일까지 전남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보제루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극락정토로 가는 영혼의 수레바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만다라 작품 및 불상을 통해 네팔 불교의 특색 있는 종교관을 엿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네팔 최고작가로 꼽히는 노루브 라마 등이 그린 칼라차크라 만다라 35점과 네팔 장인들이 손으로 제작한 불상 30여점이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성보박물관 개관을 준비 중인 화엄사가 대중과 소통하고자 마련된 문화행사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문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익산 청소년 '우리문화알기 도전 골든벨'

청소년은 우리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전북파라미타협회 익산지회(총재 원행, 금산사 주지)는 10월 30일 익산 영등초등학교에서 '제6회 우리문화 알기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전북지역 청소년 230여 명이 도전한 우리문화알기 도전 골든벨은 우리말, 역사, 민속문화, 불교문화와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전북지역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미리 배포된 300여 문항의 예상문제 중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예심을 거쳐 중등부 58명 고등부 60명이 풀며 자웅을 겨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학생부 김유린양(남성여중 2)과 김태정(원광여고 3)이 끝까지 남아 골든벨을 울리고 전북교육감상을 수상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익산지회장 김영묵 선생은 "민족문화와 전통을 이어 받아 바른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고 미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픔 나누고 희망 키워요"

희망세상 생명나눔 걷기대회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는 10월 30일 생명나눔 걷기대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우들에게 휠체어를 지원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사에 참가하도록 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0월 30일 '제2회 희망세상 만들기 위한 생명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동래 지하철역에서 온천천을 경유하여 온천천 시민공원까지 약 4km에 이르는 걷기대회에는 1500여 명 환우와 가족, 장기기증 회원, 후원회원, 자원 봉사단과 기업 봉사단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를 전개하여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참나'는 무엇인가?

부산 해운정사, 주야참선정진 대법회

경인년 한 해 마무리를 2달 여 앞두고 '참 나'를 찾아 1000여 사부대중이 참된 자아를 찾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용맹정진 법회는 승속 · 종교 · 남녀 · 노소를 초월해 참선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매년 많은 이들이 해운정사를 찾고 있다.

10월 22~25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진행된 법회는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의 지도아래 진행됐다. 정진법회는 3박 4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하루 20시간 이상 참선정진 하게 된다. 이번 법회에서 진제 스님은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화두를 내리고 법문을 하는 것 외에도, 장군 죽비를 들고 조는 사람을 경책하며 법회를 이끌었다.

진제 스님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진기간 동안 바른 참선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법문에서 "번뇌의 근본은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데 있다. 참나를 바로 보는 수행을 통해 '나'라는 허세가 없어지면 늘 자비심이 발동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 참선(禪)을 통해 바른 눈과 지혜를 갖추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제1회 여산문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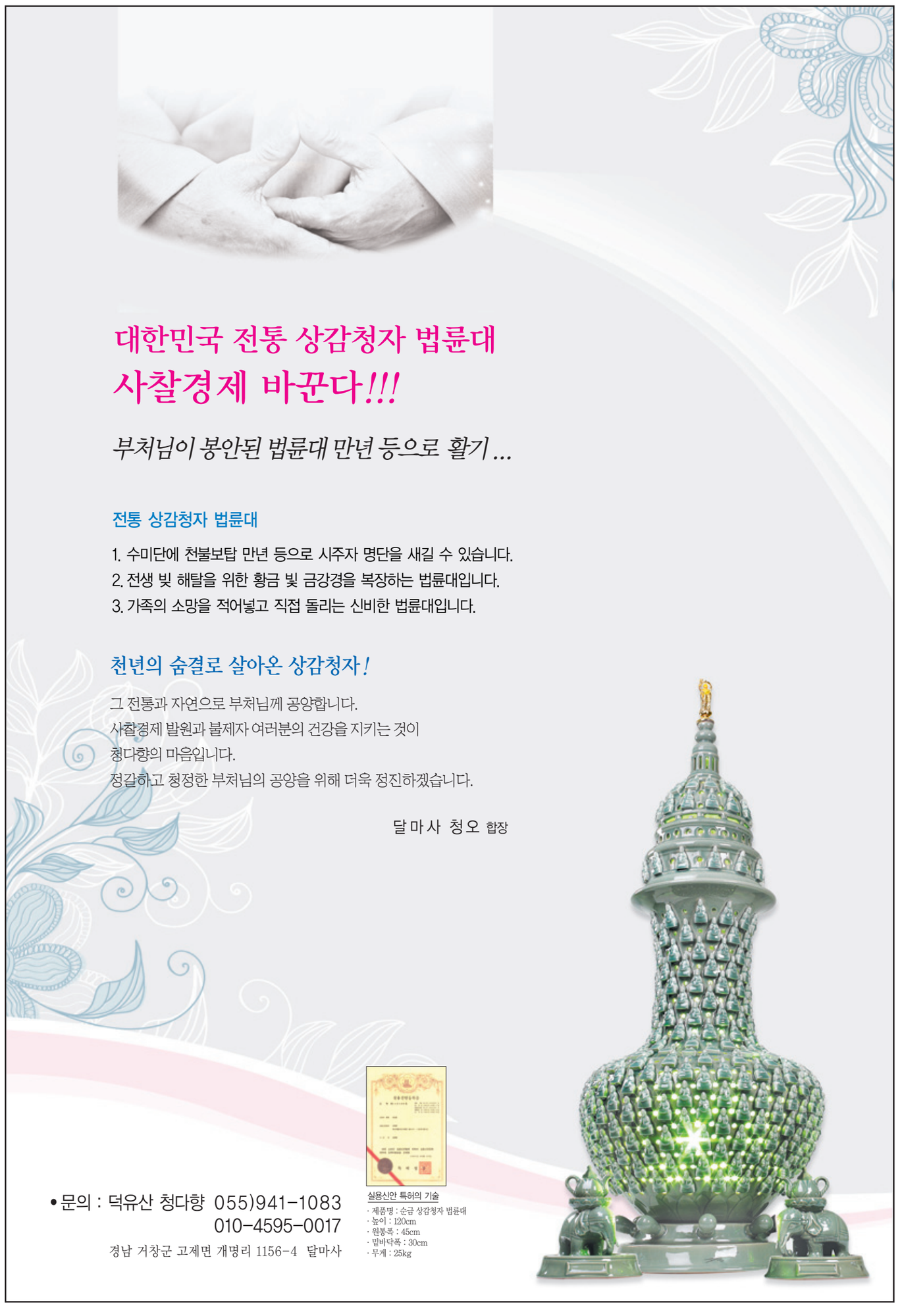
〈사람의 향기, 삶의 깃발〉

제1회 여산문학상 수상에 양은순 시인이 선정됐다.

양은순 시인은 1979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이후 30여 년 동안 줄곧 차(茶), 바다, 선(禪)이라는 시적 모티프를 일관성 있게 추구해왔다.

수상 시집인 〈사람의 향기, 삶의 깃발〉에서는 100편의 연작시로 선(禪)의 세계, 바다의 이미지로 원초적 생명의 원천, 인간의 삶의 본체를 규명하기 위해 선적인 통찰력의 명상시를 담았다.

운영위원장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여산문학상은 부산 · 경남에서 불교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⑪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 (6)-중료·열반당·장경각·조사당·종루·고루

조사당에 달마·백장·개산조 모셔

마음 너그러워 자비스런 스님에게 간병소임

종·북 울려 큰일 알리고 일상사는 목어·운판

도서관 두어 경전 · 조사어록 대출



불립문자를 주장하는 선종사원에 장경각(루)이 있다는 것은 교(敎)를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禪)만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사진은 해인사 장경각. 아래는 장경각 내부 모습.

중료(衆寮)

중료는 선원의 승당(선당)에 부속된 요사(寮舍)로서 간경(看經) · 휴식 · 일상 잡무 등을 보는 공간이다. 또 차를 마시는 곳으로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선원의 지대방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선방 옆에 딸린 한 칸 정도의 작은 방이 아니라 거리상 뚝 떨어진 별채로서 규모도 상당히 크다. 좌선 · 공양 · 취침은 승당(선당)에서, 기타는 모두 중료에서 했는데, 송대에 와서는 공양도 중료에서 했다.

장로종색 선사가 1103년에 편찬한 〈선원청규〉 요주(寮主) · 요수좌(寮首座) 장에는 중료(衆寮)를 관리하는 요주의 임무에 대하여 서술한 곳이 있는데, "요주는 중료에서 기숙한다. 중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과 대중들의 의발(衣鉢)을 간수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로 본다면 이미 송초 무렵에는 승당 외에 별도로 중료가 신설되어 일상적인 잡무는 모두 중료에서 봤는데, 승당에서 했던 공양도 중료에서 한 것이다. 명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재당(齋堂, 식당)이 생기면서 공양은 재당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조동종의 대표적인 선원 영평사는 지금도 여전히 중료에서 공양을 하는데, 이것은 송대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료에 대하여 영평사 도겐(道元, 1200-1253)은 자신의 저서 〈변(판)도법(辦道法)〉에서 "대중들이 운당(雲堂, 승당, 선당)에서 점심 공양을 마친 후 포단(蒲團, 방석)을 들고 중료로 가서 쉬는데, 간독상(看讀床, 앉은뱅이 책상)을 펴고 경을 보다가 포시(哺時, 오후 4시)가 되면 운당으로 돌아와 좌선한다"라고 쓰고 있다.

영평사 도겐이 참선 수행했던 곳은 남송 5산 가운데 세 번째인 천동사이다. 이곳은 묵조선의 거장인 굉지정각(1091-1157)이 30년 동안 주지(방장)로 있던 곳이다. 도겐은 여기서 24~28세까지 3년 반 동안 굉지의 4대 법손인 천동여정(天童如淨, 1163-1228)으로부터 각별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귀국하여 후쿠이(福井) 오지에 영평사를 개창했는데, "간독상을 펴고 경을 보다가 포시(哺時)가 되면 운당으로 돌아와 좌선한다"는 대목을 본다면, 묵조계통에서는 오후에는 좌선을 하지 않고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람 배치에서 중료의 위치는 승당(선당) 부근이 아닌 고원(庫院, 창고 및 주방) 옆에 있다. 중료가 고원 옆에 있는 것은 공양을 하고 차를 마시는 등 기능상 고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료의 내부 구조는 승당과 거의 같다. 주로 가운데는 통로이고 사방에는 장련상(長連床, 앉을 수 있는 자리)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문수상이 아닌 관음상을 모시며, 안쪽(벽쪽)에 간독상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상적으로는 불립문자를 표방했지만 선당이 아닌 다른 당우에서는 책(경전과 어록)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불을 넣는 사물함 같은 것은 없는데, 그 이유는 중료는 생활 공간이지 취침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규모는 작지만 중료 바로 옆에는 파침처가 있다(영은사). '파침처(把針處, 바늘을 쥐다)'란 대중들이 옷 바느질을 하는 곳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해진 옷을 수선하는 곳이다. 여러 종류의 바늘이나 실 등을 개인적으로 마련하기보다는 공동 수선처(修繕處)를 두었던 것이다. 공용 파침처가 있을 정도이니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생활했는지 알만하다. 파침처는 여기 말고도 승당(선당) 밑이나 위에도 있는데, 바느질할 일이 많았던 것 같다. 하루 일과표를 본다면 바느질은 아마 오후 시간에 했을 것이다. 모두 모여서 바느질하고 있는 광경을 떠올리면 슬며시 웃음이 나온다.

중료를 관리하는 소임(직책)을 요주(寮主) · 요수좌(寮首座) · 요원(寮元) · 좌원(座元) · 지료(知寮)라고 한다. 〈선림상기전〉 요원(요주) 장에는 "요원은 중료에 비치되어 있는 경문(經文)과 일용 물건, 그리고 차(茶) · 숯(炭) 등을 관리하며 청소 등을 담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중료 안의 모든 물건이 분실되지 않도록 요주는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했다.

열반당(涅槃堂)

열반당은 노승이나 병에 걸린 스님들을 수용 · 치료하는 곳, 또는 요양하는 곳이다. 이름 그대로 입적이 가까운 수행승들이 묵는 곳이다. 사실 이곳은 수행자 개인에게는 서글픈 곳일 수도 있다. 모든 수행승들은 두 눈 밝혀 참선을 하고 있는데, 열반당에 누워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열반당의 이칭은 매우 많다. 연수당(延壽堂) · 무상원(無常院) · 성행당(省行堂) · 장식료(將息寮) · 중병각(重病閣) · 안락당(安樂堂) 등.

연수당(延壽堂)은 수명을 연장하는 곳이라는 뜻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곳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곳이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목숨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명을 더 누린다는 것[延壽]은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중병으로 오래 연명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천상이나 극락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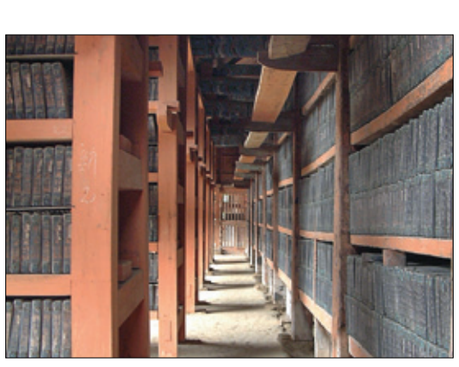
무상원(無常院)이라는 말은 제행무상에서 따온 말이다. 유형적인 모든 것은 무상한 것임을 실감하라는 뜻일 것이다. 〈석씨요람〉 하(下)에는 "무상원은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로서 열반당의 이칭이다. 무상원은 인도 기원정사에 있는 49개의 외원(外院, 별원) 가운데 하나로서 정사의 서북쪽에 있다. 대중 가운데 중환자를 이 원에 보내어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집착을 끊고 안락국(극락)에 왕생케 하는 곳이다"라고 쓰고 있다.

성행당(省行堂)은 행실을 살피라는 뜻이다. 열반에 즈음하여 평소 행실을 살펴보라는 것인데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자신의 행실, 수행을 살펴서 부끄럽지 않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만, 게으름 피우면서 공부한 것이 없다면 여기에 이르러 깊은 회한이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파거불행(破車不行), 부서진 수레가 굴러갈 수는 없는 일이다.

장식료(將息寮)는 장차 휴식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중병각(重病閣)은 말 그대로 중환자실이다. 열반당에서 치료해도 차도가 없을 때는 중병각으로 옮겼는데, 이곳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시 나오는 이는 드물었다고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임종에 이르러 열반당이나 연수당, 중병각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곳을 거쳐서 가게 된다.

열반당에서 노승이나 병든 수행승들을 돌보는 소임을 연수당주(延壽堂主) · 열반두(涅槃頭)라고 한다.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간병(看病)이라고 하는데, 의사 겸 간호사인 셈이다. 정성들여 탕약을 쓰고 좋은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도 차도가 없을 때는 육류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무착도충(無着道忠, 1653-1744)이 저술한 〈선림상기전〉에는 "연수당주는 마음이 너그럽고 인내할 줄 알며, 도심(道心)으로 돌보고 인과를 잘 알아서 병승(病僧)을 편안하게 간병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그 밖에도 무려 2쪽에 걸쳐서 연수당주의 마음자세와 절차, 치료법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간병 소임을 맡은 이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스럽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열반당이나 연수당이라고 하는 당우는 없고 한 칸 정도의 조그만 간병실이 있을 뿐이다. 농담 삼아 나이 많이 드신 스님이나 곧 입적할 스님을 '열반당 스님'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고, 때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스님도 '열반당에 갈 스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묵언 수행을 해야 하는 수행자가 실없이 말이 많다면 육체는 온전해도 정신은 이미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경각

장경각(藏經閣)은 경전을 보관하는 곳이다. 장경각은 흔히 장경각(해인사 장경각 등), 판전(版殿, 봉은사 판전)이라고 한다. 근래 중국에는 대부분 장경루(藏經樓)라고 하는데, 이곳은 대장경과 조사어록 등 전적(典籍)을 관리 보관하는 곳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서관인 셈이다. 불립문자를 주장하는 선종사원에 장경각(루)이 있다는 것은 교(敎)를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禪)만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장전(藏殿)의 책임자를 지장(知藏) · 장주(藏主)라고 한다. 도서관장으로서 선원의 6두수 가운데 제3위일 정도로 높았다. 지장 · 장주는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말인데, 그 임무는 주로 경전의 대출과 열람, 관리 등을 담당한다. 수행승들은 좌선 시간 외에 개별적으로 경전과 어록을 대출하여 장경각 옆 또는 승당(선당) 옆에 있는 간경당(看經堂)에서 읽었다. 중료에서도 읽었는데, 대출을 관리하는 장부도 있어서 매우 체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당(祖師堂)

선종의 조사를 받들어 모시는 당우를 조사당(祖師堂) · 조사전(殿) 또는 조당(祖堂) · 조전(祖殿)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총림의 최고 어른을 '방장'이라고 하고, 선원의 최고 어른을 '조실(祖室)'이라고 하는데, 조실은 조사당 · 조당에서 나온 말이다. 1900년대 초에는 조당과 조실을 혼용했다. 또 조실을 주실(籌室)이라고도 했다.

조사당에는 세 분의 조사를 모신다. 중앙에는 처음 선을 전래한 보리달마의 상을, 그 오른편에는 당중기 총림제도를 확립한 백장회해 선사의 상을, 왼편에는 해당 선원을 창건한 개산(開山)조사의 상을 받들어 모신다. 또는 2조혜가나 육조혜능, 마조도일의 상을 모시기도 하는데 〈칙수백장청규〉에는 달마와 백장회해, 그리고 개산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백장선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종루(鐘樓)와 고루(鼓樓)

종루(鐘樓)는 범종(대종)을, 고루(鼓樓)는 큰 북을 달아 두는 누각이다. 종루는 산문 우측에 있고 고루는 좌측에 있다. '루(樓)'라고 한 것으로 봐서 건축양식은 단층이 아닌 2층임을 알 수 있다. 종과 북은 모두 위층에 매달아 두는데, 그 이유는 높아야만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종사원은 무언(無言)이다. 대신 종과 북, 목어와 판(板)으로 공식적인 일들을 고지(告知)한다. 주지의 상당설법 · 소참 · 보설(普說) · 공양 · 예불 · 울력 · 취침 등 대중들이 모두 모여야 하는 일을 알릴 때는 주로 대종과 북을 쳐서 알리고, 작은 일이나 부분적인 일은 판(板)이나 목어를 쳐서 알린다. 종과 북 등은 어떻게 몇 번을 치느냐에 따라 고지내용이 다르고 그 소리에 따라 대중들은 행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석예불과 사시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는 종과 북, 목어를 치고, 기타는 모두 목탁을 쳐서 알린다. 목탁을 쳐서 알리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송대 천동사와 영은사 가람 배치도를 보면 7당이나 중료 · 종루 · 고루 외에도 수륙당 · 단과료 · 토지당 · 윤장(輪藏) · 몽당(蒙堂) · 후가(後架) · 유나료 · 직세료 · 지객료 · 수좌료 · 전자료(前資寮) · 세면처(洗面處) · 조심료(照心寮) · 시자료(侍子寮) · 행자료(行者寮) · 묘엄당 · 회랑(回廊) 등 많은 당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지면이 허락되면 쓰고자 한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물은 흘러 바다 가고 달은 져도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44 조계산의 그윽한 역사 선암사

조계산 선암사(仙巖寺). 한국불교 태고종의 정신을 상징하는 태고총림이 설치된 이 도량은 조계종의 승보종찰 송광사와 함께 조계산을 대표하는 오랜 절입니다. 다른 절에 비해 개발의 손을 덜 탄 곳이라 하여, 고색창연한 맛이 살아 있는 고찰로 많이 소개되곤 했습니다. 절집의 건축물과 돌담, 연못 등이 옛 정취를 물씬 풍기는데다가 야생차와 선암매(천연기념물 제488호)의 그윽한 향기까지 더해 선암사를 절집기행의 1번지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암사라고 하여 흐르는 세월에 무심할 수는 없나 봅니다. 몇몇의 당우들을 새로 고쳐짓고 대웅전도 새롭게 중창하려는지 모연을 받고 있습니다. 진입로에는 이런저런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주차장에는 대형 버스가 ‘가자~ 선암사로! 영원한 중생의 도량’이라는 안내 문구를 옆구리에 끼고 서 있습니다. 새로운 문물의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어 중생들을 맞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옛것을 좋아하고 옛 정취를 즐기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절집의 시계바늘을 붙잡아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암사에는 여전히 고적한 옛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매표소에서부터 조붓하게 이어지는 흙길은 승선교(昇仙嶠, 보물 제400호)와 강선루(降仙樓)를 지나 도선국사가 조성했다는 연못 삼인당(三印堂)에 이르는 동안 바쁘게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선암사의 부도들을 찾아가는 길에서는 옛 스승들의 소리 없는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암사에는 3곳의 부도밭이 있고 홀로 선 부도 3기가 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 200m쯤 오른 곳에 공터가 있고 그 우측에 근래 새로 조성된 부도밭이 있습니다. 태고종의 종정을 지낸 백암 스님, 덕암 스님 등의 부도와 탑비가 서 있습니다. 아직 빈 터가 넓은데 그곳은 앞으로 입적할 고승들의 영골이 모셔지게 될 겁니다.

다시 절로 오르는 길을 걷다보면 동부도전이 나옵니다. 뒤로 울울한 숲이 병풍처럼 에워싼 동부도전에는 11기의 부도가 서 있고 그 앞에 9기의 탑비가 엇비슷한 크기로 서 있습니다. 부도는 대부분 오륜형으로 기단석 위에 고임돌을 받쳐 둥그런 몸돌을 올렸고 그 위에 보륜과 보주를 하나의 돌로 조각한 옥개석을 올렸습니다. 이는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이 조성된 양식입니다.

이 동부도전은 조선 중기 이후 선암사를 번창시킨 고승들의 자취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관봉당, 무암당, 성파당, 낙허당, 서악당, 상월당, 침굉당, 해붕당, 눌암당, 연암당 등의 글자들이 부도의 몸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세월을 잃어버리고 낡은 이름표를 달고 서 있는 부도들이 왠지 모를 친근감으로 다가옵니다. 동부도전에서 옛 스승들의 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선암사 동부도전 전경

침굉당(枕肱堂, 1616~1684) 현변(懸辯) 스님의 부도는 140Cm 정도로 키가 작은데 그나마 받침돌이 기울어 옹졸한 모양을 하고 맨 뒷줄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침굉당은 소요태능의 선법을 계승한 선승으로 서산대사의 손자뻘입니다. 서산의 선교회통 정신을 오롯이 이어받은 침굉당은 유교와 도교 서예에도 달통한 능력을 보였으며 당대의 최고학자인 고산 윤선도가 환속시켜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고 전합니다. 스님은 고산 앞에서 울면서 환속을 거부했다니 그 불심을 가늠케 하는 대목입니다. 선암사 주지를 지내며 중창불사를 활발하게 주도하기도 했던 침굉당의 글들이 1695년 목판본 〈침굉집〉 2권 1책으로 선암사에서 간행됐습니다.

부도와 비문이 함께 남아 있는 상월새봉(霜月璽封, 1687~1767) 스님은 선교양종도총섭국일대사에 임명되리만큼 당대를 대표하는 스님이었습니다. 영조 10년과 30년 선암사에서 대대적인 화엄경 강회(講會)를 열었는데 이 법석에 종사 158명, 학인 519명, 어산 69명, 동자 74명 등 1287명의 대중이 모였다는 기록이 〈해주록〉에 전합니다. 상월당은 임종을 맞아 “물은 흘러서 바다로 돌아가고 달은 져도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태연하게 적멸의 세계로 떠났다고 합니다.

눌암식활(訥庵識活, 1752~1830) 스님은 가난한 양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열일곱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양반집에서 매를 맞고 왔는데 그 복수를 하고 싶은 욕망에 양반집을 찾아가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대장부로 태어나서 비굴하게 사느니 나비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즐겁지 않겠느냐’며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출가한 곳이 선암사였고 전국의 여러 산을 다니며 두루 선지식을 참방하였습니다. 묘향산에서 홀로 정진할 때는 두 마리의 호랑이가 3년을 보필했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합니다.

이때 평안감사 윤사국이 스승으로 받들었는데 이를 계기로 정조의 후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스님의 기도 끝에 후일 순조가 된 세자가 태어나자 정조는 국일도대선사대각등계홍제존자의 첩지와 자수가사 등 귀한 물품을 하사했습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순조는 ‘대복전’ ‘천’ ‘인’ 등을 쓴 어필을 하사해 원통전에 현판으로 걸었고 그 현판은 지금도 선암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명태선(涵溟太先, 1824~1902)에서 경붕익운(景鵬益運, 1836~1915)을 거쳐 경운원기(擎雲元奇 1852~1936)로 이어진 교학의 맥(강맥)은 금봉기림(錦峯基林, 1869~1916)에 전해졌습니다. 금봉당은 호남 근대불교의 강맥을 이은 학승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1913년 선암사 주지를 맡아 총림의 일들을 주관하고 포교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세수 48세로 입적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으니 세연(世緣)의 빠르고 더딘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님을 절감합니다.

동부도전 왼쪽 앞줄에 독특한 모양의 부도가 있습니다. 기단석 위에 네 마리의 사자가 앞뒤로 두 마리씩 앉아 있고 머리 위에 화려한 받침돌을 얹었습니다, 그 위에 3층 석탑을 올렸는데 균형미라든가 조형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화산대사 사리탑’이라고 써져 있는데 8세기 중엽에 조성된 구례 화엄사 4사자3층 석탑(국보 제38호)과 월악산의 사자빈신사지석탑(보물 제94호)을 본 떠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동부도전을 지나 경내를 참배하고 나면 보물로 지정된 부도 3기를 차례로 찾아가 볼 차례입니다.

먼저 동부도(보물 제1185호)를 찾아갑니다. 한 때 ‘무우전부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조선고적도보〉에 그렇게 소개됐지만 무우전과 거리가 가깝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동부도는 매화길이 화사한 무우전을 지나 야생 차밭이 끝나는 곳에서 개울을 건너 산비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에 버려진 듯 피접이라도 나온 듯 홀로 서 있는 동부도는 팔각원당형의 신라 부도 전형입니다. 옥개석의 귀꽃이 좀 떨어져 나갔지만 매우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높이는 3.3m로 탑신에 비해 다소 크게 느껴지는 옥개석이 부도의 장엄을 역설하는 듯합니다. 아도화상의 부도라고 하지만 그가 활약했던 6세기는 우리나라에 선종이 들어오기 전이라 부도가 조성되지 않을 때였으니 신빙성이 없습니다.

동부도를 만나기 위해 건넜던 개울을 다시 건너 계곡을 따라 200m쯤 올라가면 북부도(보물 제1184호)가 세월과는 무관하다는 듯 홀로 서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부도라는 말이 있지만 이 역시 믿기에는 근거가 미약한 말일 뿐입니다. 팔각원당형의 전형으로 높이 2.51m인 북부도는 매우 당찬 느낌입니다. 높이에 비해 하대석에서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석재들의 품이 넓고 문양도 화려하면서 고졸하여 보는 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묵직합니다.

선암사의 3부도 중 나머지 하나는 대각암 뒤뜰의 석단 위에 있습니다. 선암사에서 서쪽능선으로 600m 가량 올라간 곳에 대각암이 있습니다. 역시 주인을 알지 못해 대각암부도(보물 제1117호)라고 부르는데 암자의 이름에서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 스님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 천태종의 개창자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선암사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고려 불교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대각국사는 문종의 넷째 아들로서 11세에 출가하여 경율론을 두루 섭렵했고 유교의 전적과 역사서까지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중국을 다녀와 흥왕사 주지로 있을 때 중국에서 가져 온 3000여 권의 불서를 간행하기 위해 교장도감(校藏都監)을 설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그런 대각국사의 행장에서 스님이 선암사에 머무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스님들이 두루 배출되고 조선조까지 불교전적들이 꾸준히 간행되는 등 선암사 역사에 대각국사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선암사는 대각국사 다례재를 성대히 올리며 그 가르침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각암부도가 대각국사의 것이라고 단언할 자료는 없습니다. 대각국사가 대각암에서 지관(止觀)을 닦으며 절의 중창을 도왔을 것이란 개연성 속에 이 부도의 주인 역시 대각국사가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선암사 서부도전은 송광사로 넘어가는 굴목재 가는 길옆에 있습니다. 모두 12기의 부도가 지나가는 등산객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부분 석종의 몸돌에 새겨진 이름을 읽을 수 있지만 자세한 전기는 알 수 없습니다.

수행자의 한 생애가 뒷사람들에게 망각되는 것도 도(道)의 한 부분일까? 하는 생각으로 경내를 벗어납니다. 경내 곳곳에 부도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암사는 큰 산의 큰절임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글 사진=임연태 (시인 본지논설위원)

보물로 지정된 ‘선암사 3부도’ 조형성 탁월한 ‘명품’
동부도전에 조선중기 이후 선암사 주역들 체취 가득


동부도의 상륜부

당신의 운을 열고 발복(發福) 시키는 천도 도자기 출현?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조상이 저승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승에서 자손들도 정리정돈이 안되며 발복이 안되는 것이니라”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성공 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 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세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 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 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 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쳐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몽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도자기를 처소에 두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히여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 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치우천왕 검색

◆ **무료사은품 :** “기도의 비밀” 책자 + 치우천왕 CD + 치우천왕 적령부 카드 2장
내마음의 절에서는 현대과학이 개발한 기(氣), 측정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을 측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우천왕 氣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가격 : 250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 내마음의 절) ■ 전화 : 1661-2575



베스트 셀러 진입
상하 각권 120,000원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집안동토탈 알아내는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법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귀신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비법

百超律歷學堂
입금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2) 3667-4446
010-3813-4443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0>

깨달은 즉시 부처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이 보림(保任)할 물건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미래가 다하도록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야."

問 如何是 學人保任底物
師云 盡未來際揀不出

보림은 보호임지(保護任持)를 말한다. '보호하고 맡긴다'는 뜻이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보(保)이고, 자성(自性)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턱 맡기는 것이 림(任)이다. 원래 깨달음 후에 부처의 행을 익히는 시간을 보림이라고 한다.

질문자는 보림할 물건에 대해서 물었다. 자성(本自性)의 정체를 물은 것이다. 자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지금 즉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길 바란다. 마음을 들여다보라. 거기에 무엇이 보이는가? 보이는 사람은 망상을 본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정상이다. 마음은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마음을 본 사람은 없다. 조주 스님도, 임제스님도, 육조 스님도, 부처님도 보지 못했다. 모두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으나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뿐이다. 이 깨달음이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고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자성(自性)
오로지 모름으로 일관해야
언어나 의미에 끌려가면 진실 보지 못해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대수행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찰의 유나 화상이 그런 사람이야."

問 如何是大修行底人
師云 寺裡綱維是

'유나'는 절에서 질서와 계율을 잘 지키도록 당부하는 소임 명(名)이다. 일종의 규율 부장과 같다. 남에게 질서와 계율을 잘 지키도록 당부하려면 타의 모범이 돼야 하므로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이 많은 율사 스님들이 유나 직책을 맡는다.

학승이 무엇이 대수행자인가 물은 것에 대해 조주 스님은 주저 없이 사원의 유나라고 말했다. 왜 유나라고 말했을까? 방장도 있고, 국사도 있고, 선원장도 있고, 입승, 찰중도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나를 지목한 것인가. 조주 스님은 수행한다는 그 자체만 볼 때는 유나만한 사람도 없다고 본 것이다.

조주 스님은 물론이고 나머지는 다 부처의 행을 하는 자들이다. 이미 되어져 있는데 또 무엇이 되려고 닦는단 말인가? 깨달은 자들은 닦을 것이 없다. 이것이 돈오(頓悟)이고 정통 선불교의 사상이다. 깨달은 즉시 부처이다. 부처는 부처의 길을 간다. 닦는 자들이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저는 신참자로서 선문(禪門)의 일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조주 스님이 물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학승이 대답했다.
"혜남(惠南)이라고 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훌륭한 모름이구나."

問 學人纔到 總不知門戶頭事如何
師云 上座名什麼
學云 惠南
師云 大好不知

선문(禪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모르는 것이다. 세상사 모든 언어나 의미는 진실이 아니다. 언어나 뜻을 소통하기 위한 '약속'에 불과하다. 언어나 의미에 끌려가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이 문안에 들어와서는 문자를 잊어야 한다. 입차문내 불립문자(入此門內 不立文字)이다. 오로지 모름으로 일관해야 한다. 다만 이름만 알면 된다. 그러면 훌륭한 모름이다. 때가 되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손바닥 안의 일처럼 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곧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

학승이 물었다.
"제가 배우려고 하면 화상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비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물었다.
"자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학승이 말했다.
"도교(道皎)라고 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조용한 곳으로 가는 자는 쌀 창고가 된다."

問 學人欲學 又謗於和尚 如何得不謗去
師云 你名什麼
學云 道皎
師云 靜處去者米囤子

선문에 와서 무엇을 배우려는 자는 선사를 비방하는 자들이다. 선문에서 배울 것은 없다. 선문에서는 스스로 일어서서 부처의 길을 가려고 해야 선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이 그대들은 이미 운명적으로 부처이다. 그대들은 출가한 순간부터 일국의 위대한 스승이 된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배운다거나 따라하는 따위의 일은 벌이지 말아야 한다.

혹은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일신의 안위를 얻으려 하거나, 혹은 독살이에 들어가서 홀로 혹독하게 잠자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따위의 일도 다 부질없이 시은만 짊어지고 사는 것에 불과하다.

선문에 들어온 자는 들어온 순간 바로 크게 한번 포효하고 오로지 대장부, 천상천하의 주인, 인류의 위대한 스승의 길, 부처의 길을 즉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조주 선사는 물론이고 역대 선사들의 빛나는 유훈을 따르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화상의 큰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어."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 결국 화상의 큰 뜻이 아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만일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만겁이 지나도 같아지지 않아."

問 如何是和尚大意
師云 無大無小
學云 莫便是和尚大意麼
師云 若有纖毫萬劫不如

크다, 작다, 부하다, 가난하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마음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진실과 같아지지 않는다. 부처와 같아지지 않는다. 선사는 대의도 없고 소의도 없는 것이 정상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㉑
굉지어록(宏智語錄)

묵조선 수행방식 체계화

〈굉지어록〉 9권은 중국 조동종 제10세 굉지정각(宏智正覺: 1091~1157)의 어록으로 대정신수대장경 및 속장경에 전한다. 그 기본적인 판본으로 첫째는 송판(宋版) 〈굉지록(宏智錄)〉 6책(1157)으로 굉지정각이 서술한 것이다. 둘째는 원판(元版) 〈명주천동경덕선사굉지각화상어록(明州天童景德禪寺宏智覺和尚語錄)〉 4책(1346)으로 굉지정각이 서술하고 묘협(妙叶) 및 정계(淨啓)가 중편(重編)한 것이다. 셋째는 일본 강호판(江戶版) 〈천동굉지선사광록(天童宏智禪師廣錄)〉 9권9책(1708)으로 굉지정각이 서술하고 일본의 천계전존(天桂傳尊)이 편집해 개판한 것이다. 기타 이들로부터 개판된 것까지 포함해 8종이 있었고, 이 가운데 7종이 현존한다.


굉지정각어록(宏智正覺語錄)

대정신수대장경본의 경우 제1권은 굉지의 서 및 상당어록, 제2권은 송고(頌古) 100칙, 제3권은 염고(拈古) 99칙, 제4권은 상당어록, 제5권은 소참법문, 제6권은 법어, 제7권은 진찬(眞贊) 및 하화(下火), 제8권은 게송 및 잠명(箴銘) 기타, 제9권은 자서(自序)와 진찬과 행업기와 간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원대 초기에 제2권 및 제3권의 송고와 염고는 만송행수의 수시(垂示)·착어(著語)·평창(評唱)이 가해져 각각 〈종용록(從容錄)〉과 〈청익록(請益錄)〉으로 출현됐다.

굉지정각은 묵조선이라는 수행방식을 체계화시킨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북송에서 남송시대로 이어지는 무렵에 당시 선종계는 당대의 생생한 선기를 점차 상실하고 종파화된 입장에서 이전시대의 답습으로 타성화 돼가고 있었다. 이러한 선종계에 굉지는 새롭게 선수행방식을 제창해 당시의 간화선과 더불어 선풍을 크게 진작시켜 나아갔다.

이 가운데 묵조선의 사상적 기반은 우선 달마의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에서 말하는 심신(深信), 우두종에서의 좌선관 곧 절관(絶觀)에 기초한 본래자연 내지 본래본연, 그리고 무심(無心)에 기초한 무물(無物)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소위 능가종의 수행에서 수일심(守一心) 내지는 수본진심(守本眞心)도 본심의 구비라는 입장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굉지는 천동산을 중심으로 그 자신의 독특한 교화를 펼쳤는데 그것이 묵조의 수행이라는 가풍으로 전개돼 나아갔다. 묵조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의 선풍을 고취시킨 것은 바로 굉지정각이었다. 굉지가 묵조라는 말에서 드러내려고 한 것은 묵(默)에 있어서의 무분별과 조(照)에 있어서의 지(知)의 자각이었다.

이와 같은 묵조선의 속성과 공능과 비유에 대해 '묵조명'이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묵조명'에 나타나 있는 묵조는 묵과 조로 나뉜다. 여기에서 묵조가 일여하게 될 때가 바로 묵조선의 현성이다. 이것은 본증의 현성 내지는 자각의 의미이다. 때문에 묵조선의 구조는 본증자각(本證自覺)을 설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중점이 바로 깨침의 세계 곧 불의 세계에 맞추어진다. 본증의 자각이기 때문에 그 깨침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방법과 수행이 구분돼 있지 않다. 묵묵하게 좌선을 할 때에 그대로 깨침의 세계가 현현한다. 그 세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부터 도달해 있는 세계이다. 이와 같이 묵조는 묵으로서의 좌선의 수(修)와 조(照)로서 현성된 증(證)을 달리 보지 않고 증이 본래부터 구족돼 있음을 설하고 있다.

특히 묵조라는 용어는 단순히 묵묵히 비추어본다는 수식 내지 한정의 관계가 아니라 묵과 조의 병렬적인 의미이다. 곧 묵조는 다양한 어구로 나타나면서도 본래의 묵조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묵조는 묵묵한 좌선으로서의 수행을 가리키는 묵과 광겁에 두루 비추지 않음이 없는 깨침에서의 공능인 조를 상징한다. 그리하여 묵조가 각각 묵은 조가 상정된 묵으로서의 작위의 현성이라면 조는 묵을 수반하는 조(照)로서의 무작위의 현성이다. 또한 묵과 조는 다름 아닌 신(身)과 심(心)이다. 묵이 몸에서 올올하게 좌선일여한 상태로 지속되는 동중정이라면 조는 마음에서 무한한 묘용을 뿜어내는 정중동이다. 이것은 몸이 묵(?)한 상태로의 좌선과 함께 마음이 조(照)한 상태로서의 좌선이다.

굉지정각은 송고 100칙과 염고 99칙을 남길 만큼 문필에도 뛰어났다. 그의 제자 문암사종이 붙인 서문에 의하면 "굉지정각 스님께서는 고덕의 기연 200칙을 주워 모아 그 뜻을 송(頌)하여 펴고 그 강요를 염(拈)해 떨쳤다. 이리하여 회수(淮水)의 양 언덕에 빛을 놓아 설두명각의 뒤를 이었다" 라고 말하는 만큼 설두중현의 뒤를 이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만송행수의 말에 의하면 "우리 종문의 설두와 천동은 공자 문하의 자유와 자하에 비견할 만하고, 두 선사의 송고는 시단의 이백과 두보에 비길 만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만송이 굉지의 〈송고백칙〉에 평창을 붙여 〈만송노인평창천동각화상종용암록〉 6권 100칙을 만들고, 또한 굉지의 〈염고〉에 대해서 평창을 붙여 〈청익록〉 2권 99칙을 만들었던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두 〈송고〉와 〈염고〉는 서로 형식과 내용에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그 차이는 〈청익록〉의 경우 본칙에 대한 '송'과 '시중'이 없다는 점이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6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11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11월 11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않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 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성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현오스님"이나 "성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성 봉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장익 주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스님과 주교님의 만남이 길었기에 스님의 입적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었을까. 스님의 입적에 대한 주교님의 말씀에는 스님을 보내는 당신의 감정이 묻어있었다. 법정스님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 먼 길을 나선 사진장이에게 이 말씀은 스님을 이해하는 데 두고두고 새겨야 할 말씀으로 남았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나 죽으면 거창한 다비식이나 화장 의식을 치르지 마라. 입던 승복 그대로 입혀서 즐겨 눕던 대나무 침상에 뉘여 그대로 화장하라. 사리 따위를 수습하려 들지 마라. 부처님 진신 사리는 어디 있는가? 진짜 법신 사리는 부처님 가르침 바로 그것이다."

스님은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단출하게 '비구 법정比丘 法頂' 위패 하나 앞세우고 불에 드셨다.

"다비할 때는 못 가고 불교티비로 다비식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혼자서. (그때 심정을) 뭐라고 말로 하라고 하면 말 못 하겠네요. 뭐라고, 어떻다고, '그냥 슬프다.'는 얘기도 아니구요. '그냥 섭섭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뭐라고 말로 못 하겠네요. 그걸 '슬펐다' 무슨 뭐 '섭섭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참 뭐라고 해야 할 지. 참 그랬어요. 여러 날."

단풍이 곱게 물든 시월 중순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운 오후. 전 천주교 춘천교구장 장익 주교(78)는 법정 스님 입적을 바라본 느낌을 묻는 나그네들에게 말씀했다.

처음부터 벽이 없었으니

"그냥 제 개인 소견인지 모릅니다만, 천주교 측에서 볼 때 불교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교리나 관념 얘기가 아니고, 양쪽이 다 수행이라는 걸 한단 말입니다. 재가자든지 출가자든. 또 예불뿐 아니라 기도를 하고, 양쪽이 다. 또 경經, 경전이 있고, 세속 인연을 끊고 버리고 떠나서 사는 공동생활이 있거든요. 그냥 삶 자체가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차이를 먼저 떠올리는데, 이 어른 남다르다. 단지 다를 뿐인데도 '틀렸다!' 고 하는 현실에서, 다름이 닮음과 한 뿌리라고 풀어놓는다.

"법정 스님이 신념을 가지고 가끔 말씀하셨어요. '문화 · 사회 · 역사를 봤을 때 종교목적이 종단구성일 수는 없다' 고. 그건 득도를 하기 위한 방편이지 목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법정 스님은 '견성을 하면 그 순간 불자이길 그친다.' 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불자다. 이런 걸 뛰어넘어 모든 종교가 참 삶을 찾아보자는, 궁극에 이르는 수단으로 애를 쓰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지 않느냐?' 며 아주 확신하셨어요. 저도 상당히 공감입니다."

법정 스님이나 장익 주교, '이 어른들한테는 처음부터 벽이 없었다. 그저 자연스러운 행동이셨을 뿐인데 모자라는 중생들이 '종교 벽을 넘어서 어쩌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어댔구나.' 하는 생각에 낯이 달아올랐다.

죽음은 삶의 완결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일로 여기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다 내어주면 그게 곧 죽음' 이죠. 삶의 완결, 완성이라고 할까요. 살다가 죽는 건 내 삶을 '다 하는 것' 이죠. '적극 나서서 맞아야 할 게 죽음' 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나 하나만 살려고 든다면 제대로 된 삶일 수 없고, 따라서 제대로 된 죽음이 될 수 없죠."

삶을 다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확' 와 닿았다. 다 한다는 말은 온 힘을 다 쏟는다는 말씀 아닌가. 말씀 그대로 있는 힘을 다 쏟아 부어 이룬 열매가 곧 죽음. 그러니 죽음은 완결이다. 그 완성을 절집에서는 열반이라 이른다.

"이월 하순인가? 병원에 가서 뵈었어요. 실내가 덥고 건조하니까, 법정 스님이 '이 집에 아이스크림 같은 건 없나?' 그러셔. 허허. 스님은 뭐 벌써 다 놓고. 담담하시더라고요. 별로 깊은 얘기 나누지 않고, 하시는 말씀 몇 마디 듣기만 하다가 나오는데 손을 꽉 잡으세요. 뼈밖에 없는 양반이 어떻게 아귀심이 센지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 오랫동안 장작 패던 실력이 남아서 기운이 센가?' 그랬어요. 손을 꽉 쥐더니 안 놓으세요. '당신은 이제 작별이다. 아시는 거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법정 스님은 손을 꼭 쥐시고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까? 평소에 하시던 말씀 그대로 당신은 '살 때 삶에 철저해 털끝만치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만큼, 죽음에 앞서 삶에 조금도 미련두지 않는다. 사는 것도 내 자신 일이고 죽음 또한 내 자신 일. 철저히 살았으니, 철저히 죽는다.' 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정성이 담긴 위대한 맹물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 동트기 직전에 일어나서 가장 처음 뜬 우물물, 용란龍卵이라고 부르는 정화수를 장독대에 올리고 빌 때, 그 바탕에 담긴 게 '정성' 이었다며 시월 초 군인들과 나눴던 얘기를 꺼내면서, 종교 바탕에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극함이 자꾸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다. "장병들에게, '우리가 나 잘났다고 설쳐대지만 이제까지 이렇게 온 것은 우리 어머니들 정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정성을 잃어버렸다. 올해가 초조대장경을 파기 시작한 지 꼭 천 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 선조들이 대장경을 팔 때 한자 파고 향 사르고 세 번 절하고, 또 한자 파고 향 사르고 세 번 절하고 또 팠던 것처럼 정성스러운 삶을 살아보자. 불공이란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느냐.' 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화수 말씀을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맹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값지고 희귀한 걸 신령 앞에 바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맹물이거든요. 평범하기 짝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하고 순수한. 그거 한 사발 떠놓고 빌고, 그거 한 사발 떠다 놓고 혼례를 올리고, 인생을 서로 약속하는 위대한 거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초조대장경 말씀도 하시는데 인류사에 정말 위대한 예술작품, 작품뿐이 아니고, 노래고 글이고 춤이고 종교성을 띠지 않은 게 없어요. 원시시대서부터. 나보다 더 큰 거를, 내 나름으로 정성을 다해서 겸허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나는 사라져도 좋아. 내가 감히 해도 되나?'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 위대한 작품들은 이름이 없어요. 드뭅니다.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한다는 게 중요했지. 아까 말씀한 정성이라는 속에도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안 돌아간 적 없어요

평소에 신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고 여쭸더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뭐."하고 간단한 말씀이 돌아온다. 그래도 그 가운데 특히 강조하시는 말씀 한 마디만 해달라고 떼를 썼더니.

"글쎄요. 특별히 한 거라고 없고요. 전 언제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안 돌아간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삶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안 돌아가고 삶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질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낸다는 것도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 스님도 가끔 그런 글 쓰셨지만, 내가 밥술 떠도 벌써 거기에 생각도 못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땀과 정성이 서려있고, 우리 혼자서 그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진실 되게 살아낸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체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다 읽어 봐도 예수님이 당신 좋자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위해서, 남이 아니라 남으로 여기질 않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주신 거지. 나한테 뭐 돌아오라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네 잘못까지도 내 잘못으로 여길게. 아픔이나 죄과까지 내가 다 뒤집어쓸게.' 하셨단 말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 안 돌아간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 삶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 살아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
> 저희는 만나서 거창한 얘기한 게 없고요
> 그냥 차나 마시면서 서로 편안한
> 얘기를 나눴어요. 아주 편했어요.
> 서로 그렇게 편했어요.

뵈러 가기 전 장익 주교 스승인 카를 라너Karl Rahner(1904~1984)가 지은 〈일상〉과 주교님이 직접 엮은 〈폭력〉을 읽었다. 〈일상〉은 50쪽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이지만 일하고, 걷고, 앉고, 보고, 웃고, 먹고, 자는 그야말로 일상에 담긴 뜻을 성찰한 책이다. 한 꼭지 살펴보면 "…우리 일상 경험 영역에서 식사보다 신비로운 일은 아마 없으리라. 그것은 죽은 것이 산 것으로 화함이요. 어떤 존재물을 그 본성을 지킨 채, 더 차원 높고 더 넓은 다른 현실 안으로 포섭함이다." 〈일상〉 못지않게 얄따란 책 〈폭력〉을 읽기 전 '대체 왜 폭력을 다루셨을까?' 의아스러웠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폭력이 지닌 실체를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셨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아, 폭력도 보셨어요? 전통(전두환 정권) 말기였어요. 힘으로만 뭘 하는 게 아닌데 싶어 도대체 폭력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동안 여기저기서 봤던 것들을 모아 엮어냈습니다. '폭력이라는 게 꼭 거짓하고 같이 다녀요.' 열려있고 진실하다면 폭력을 휘두를 일이 없습니다. 그때 참 긴장된 시대 아닙니까? '집권자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일단 강해야 한다.' (여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고, 민족이

빛 살림
정골요법
正骨療法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이재복 지음(270면)
빛 살림
정골요법
正骨療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고, 개인이고 강해야 뭐가 된다는 게 상당히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꼭 길인가? 큰 의문입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말씀에서 허허로움이 느껴진다. 얇은 책 두 권이 아주 큰 울림이었다고 말씀드리니.

"남들 훌륭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긁적긁적 옮긴 거지. 제 생각도 아닌데."라고 말씀하면서 책을 한보따리 건네주신다. 그 가운데 나그네는 주교께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 러끌레르끄님이 쓴 책 〈게으름의 찬양〉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다. 한 꼭지 살짝 엿보면. "우리 삶이 제대로 사람다우려면 -마냥 한가롭기만 해야 할 것은 없지만- 거기에는 느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기야 일을 찬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이나 힘씀은 역시 쉼에서 비롯되고 쉼에서 그쳐야 하는 법이고, 위대한 업적이나 크나큰 기쁨은 뛰면서는 이루어질 수도 음미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주에 경주를 거듭한다는 것은 산에 산을 포개쌓는 게 아니라 바람에 바람을 포개는 꼴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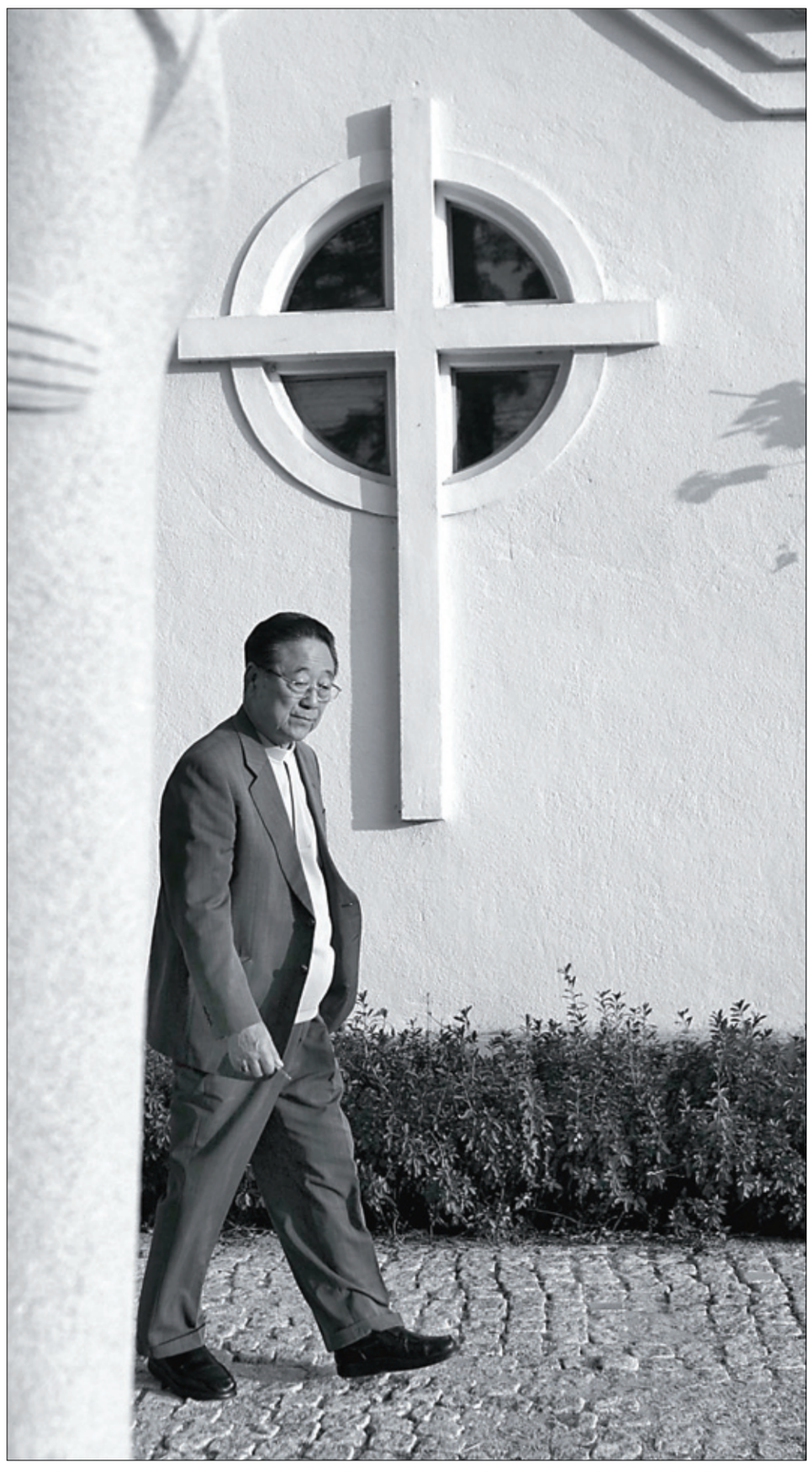
네 세상 어디쯤 있느냐

당신이 펴낸 책 가운데 법정 스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다는 〈하씨딤 가르침에 따른 인간의 길〉은 19세기 중엽 동유럽에서 일어난 신비주의 색채가 짙은 종교운동 공동체인 '하씨딤' 가르침을 정리한 책이다. 책 첫머리 '마음 살핌'에 나오는 '하씨딤' 소속이었던 북부 백러시아 랍비 '슈뇌르 살만' 옹이 반대파인 '밋낙딤' 사람들 무고로 옥살이를 할 때 이야기가 실려 있다. 감옥 안에서 묵상에 잠겨있는 살만옹에게 간수장이 묻는다. "성서를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고 물으셨는데,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겠습니까?"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 찾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다. 이에 대해 랍비는 "하느님은 사람 하나하나에게 네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고 답한다. 모골이 송연해질 만큼 준엄한 말씀이다. "네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 법정 스님이 법석에서 곧잘 인용하셨던 말씀이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내 세상 어디쯤 서 있을까?

친구는 내 부름에 대한 응답

법정 스님과 장익 주교, 언제 어떻게 만났을까? 70년 대 초 역경원에서 경을 번역 일을 하던 법정 스님은 봉은사 다래헌에 머물렀다. 그즈음 처음 만났는데 딱히 첫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법정 스님이 다래헌에 오셨다는 기별이 있으면 가 뵙기도 하고, 안 계셔서 헛걸음도 치고, 기다렸다 뵙기도 했다며 40년 전 일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저희는 뭐 만나서 거창한 얘기 한 게 없고요. 그냥 차나 마시면서 서로 편안한 얘기를 나눴어요. 아주 편했어요. 처음부터. 제 편에서만 그랬는가? 몰라도 처음부터 오래 사귀었던 분처럼 아주 편했어요. 서로 그렇게 편했어요."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 종교는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는 도구였을 것이다. 세상을 보는 깊은 성찰력과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두 분을 쉽게 '지기'로 맺어줬을 것 같다. 성당 벽면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있는듯 없는듯 보이니 두 분도 각각의 종교를 이렇게 서로에게 보여줬을 것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 저 유명한 카알라일과 에머슨도 처음 만나 삼십분 가량을 아무 말 않고 앉았다가 헤어지고는 재밌게 놀았다고 했다는데. 그저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법정 스님과 장익 주교. 이 두 어른, 4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넌지시 서로 바라보던 순정純正한 사이다.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는 법정 스님 말씀처럼.

'겸양지덕謙讓之德', 태산 같은 포부를 갖고 누운 풀처럼 낮추라고 했던가. 법정 스님이 어디에도 걸림 없는 바람 같다면, 장익 주교 이 어른, 달을 품어도 흔적 없는 호수처럼 넉넉하게 대상을 받아들이는 조선백자 '달항아리' 같다.

글_ 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
사진_ 마음을 담는 사진쟁이 이종승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9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엔닌(圓仁)

"정오 무렵 서북풍이 불었다.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오후 2~4시 경 적산의 동쪽에 이르러 배를 정박시켰다. 서북풍이 세차게 불었다. 그 적산은 실로 암석이며 높이 솟아 있는 곳으로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이다. 산에는 절이 있어 그 이름은 적산법화원(赤山法花院)이다. 본래 장보고가 처음 세운 것이다. 오랫동안 장전(莊田)을 갖고 있어 식량에 충당하고 있다. (하략)" 김문경 역주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일본 천태종 개조 사이쵸(最澄)의 제자로서 교단을 부동의 반열에 올려놓은 엔닌(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 839년 6월 7일의 기록이다. 5세기 법현의 〈불국기〉를 비롯, 7세기 현장의 〈대당서역기〉, 8세기 신라승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실크로드와 인도 순례의 행적을 남긴 위대한 기록이라면, 9세기 엔닌은 중국순례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의 현장과 시대상을 근접 촬영한 것 같은 귀중한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 나오는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사원으로 신라와 당나라의 외교·교역의 중심지인 산동 반도의 신라방(新羅坊)에 속해 있었다. 엔닌은 여기에서 신라인의 도움으로 겨울을 보내고 1300여 km의 오대산 순례에 나선다.

45세에 입당구법 천태종 3대 좌주

동아시아 교류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를 제공한 이 기록을 일본학 전문가인 라이샤워(E. Reischauer)는 앞의 현장의 것과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합쳐 세계 3대 여행기로 봤다. 더구나 그는 엔닌의 기록을 통해 신라방을 당시 신라에 의한 대당 식민지로 인식했다. 당시 장보고의 해상세력이 얼마나 강대한 것이었던가를 입증하는 자료인 셈이다. 이 순례행기는 엔닌이 두 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 견당선을 타고 838년 6월 중순 현재의 후쿠오카를 출발해 847년 12월 중순까지 약 9년 반 동안의 구법순례를 마치고 마침내 청해진을 거쳐 다시 같은 곳으로 귀국하는 동안 남긴 일기형식의 기록이다. 신라인들에 의한 해상무역 활동상을 시작으로 오대산의 찬란한 불교의 모습, 국제도시 장안의 쇠락하는 실상을 목격하고, 마지막으로 무종에 의한 회창의 폐불사건을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순례의 막을 내린다.

엔닌은 15세에 사이쵸 문하에 출가해 누구보다도 스승의 뜻을 잘 받들었다. 23세에 구족계를 받고 30세부터 12년간 산문을 한 번도 나가지 않는 농산(籠山)의 청규생활을 지키며 수행에 전념했다. 당시는 기존 세력이던 나라(奈良) 대사찰 승려들의 압력과 쿠카이(空海)에 의해 개창된 고야산 진언밀교의 발전이 천태종의 입지를 어렵게 한 시기였다. 이후 그는 법화일승의 가르침을 전국에 전파하고자 하는 스승을 모시고 다녔으며, 사이쵸 입적 15년 후 그의 나이 45세에 입당구법을 실천하게 된다.

순례 동안 천태는 물론 선, 밀교, 염불삼매, 범어학 등 불교의 다양한 세계를 배우고 체험하며, 만다라를 비롯 589부 802권의 불전을 일본에 가져왔다. 사리회, 부단염불회, 법화참법 등의 불사를 정착시켰고, 진언밀교의 동밀(東密)에 대해 천태의 태밀(台密)의 이론과 수행법을 발전시켰다. 여기에 법화삼매와 상행삼매의 제도를 더하여 수행체계를 확립했다. 상행삼매에는 당의 법조(法照)가 염불의 음조를 다섯 종류로 분류한 음악적인 염불인 5회(五會)염불을 도입해 성명범패(聲明梵唄)는 물론 천태정토의 기초를 놓았다. 이는 칭명염불을 주장하는 중세의 순수정토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그는 천태종 최고 지위인 좌주(座主)의 3대 자리를 이어 받았다. 사후엔 자각대사(慈覺大師)의 시호를 받았다. 엔닌은 순례를 통해 불법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더욱 고양시키고, 스승의 유업을 계승, 천태종을 대성시킨 것이다.

840년 엔닌은 만난 적이 없는 장보고에게 편지를 올렸다. 후쿠오카 지역 태수로부터 받은 서신을 배가 침몰되는 바람에 잃어버려 전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아마도 구법승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순례 중인 842년 일본은 신라인의 입국을 금지할 정도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됐지만 적산법화원을 통해 무사히 순례행을 마칠 수 있었다. 대륙의 전진기지였던 이곳은 엔닌을 비롯해 동아시아 승려들의 구법과 수학의 통로이자 안식처였던 것이다. 이는 장보고의 해상루트가 해상무역 세력의 위업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대사회의 불법의 유통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엔닌은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 참여한 자신과 주변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 후대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현대에 새롭게 정비된 적산법화원 전경.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원통 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원통스님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성철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보성 스님을 전계사로 전계하였고,
1997년 정토원을 건립.



예불대참회문

대자비로 중생들을 어여비보셔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지심귀명례 금강상사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 원통스님 예불대참회문
1 S E T : DVD 26개 52장
구입문의 : 불영TV 김봉환 010-8519-9279
02)2236-7209
http://www.bytv.kr

달마는 서쪽에서 오지 않았다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큰스님이 추천하고, 명예원로의원 성수 큰스님이 증명한 책! 성품이 본래마음이자 도(道)요 선(禪)임을 밝힌 참선 및 염불 수행자의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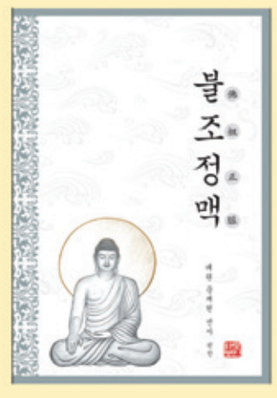
달마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었죠 — 연합뉴스
간화선 어렵다면 염불선이 대안될 수도 — 한국일보
달마어록 대중도 쉽게 이해 — 경향신문
달마어록 번역서가 아닌 해설서는 처음 — 문화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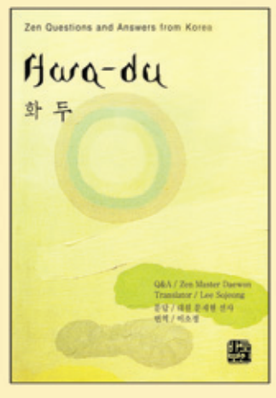
군법당, 교도소 등에 법보시 할 경우 특별할인 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2-10 남양BD 2층 222호
전화. 02-2632-8739 팩스. 02-2068-0178 e-mail buddhapia5@daum.net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게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신간! 화두/Hwa-du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되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나누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제2강 초기불교의 가르침 – 각묵스님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를 주제로 광주 KT정보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진행 중인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가 11월 3일 개최됐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아함경〉을 중심으로 초기불교를 강의하며 행복을 강조했다. 다음은 각묵 스님의 법문을 정리한 것이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아함'과 '니까야'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함경〉이라는 제목보다는 넓은 주제를 잡아서 '초기불교의 가르침'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초기불교 혹은 니까야(Nikāya)라는 것은 넓게 보면 본 강의에서 기본 주제로 잡고 있는 〈아함경〉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불교란 무엇인가?

불교 경전은 소위 말하는 결집을 통해서 전승돼 왔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제1차 결집에 이어 제2차 결집이 이어지고, 상좌부불교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2600년 동안 6차례의 결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불교는 제1차 결집에서 결집된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부처님 열반 후 21일간의 장례를 치루고 난 후 깟사빠(가섭) 존자께서 40일간 해결할 일을 모두 해결한 뒤 함께 모여서 합송을 하자고 한 것이 첫 번째 결집입니다. 이 첫 번째 결집에서 합송은 율장과 경장에 대한 합송인데 이 내용을 초기불교라고 합니다.

초기불교는 아함(阿含)과 니까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아함(四阿含)이라고 합니다. 장아함(長阿含), 중아함(中阿含), 잡아함(雜阿含), 증일아함(增一阿含)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방에서는 4니까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4아함과 4니까야는 놀라울 정로도 체계가 똑같습니다. 아함은 북방으로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으로 해서 일본으로 전승됐습니다. 남방과는 전혀 관계없이 순수하게 북방으로만 전승돼온 가르침입니다. 니까야는 인도에서 보면 남쪽으로 전승된 가르침입니다. BC.250년 경 스리랑카를 지나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남쪽으로 전승된 초기불교 가르침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비교해보니 니까야와 아함은 똑같은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경로로 아무 교류 없이 각각 남·북방으로 전승됐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비교해보니 똑같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 초기불교가 고스란히 남·북방에 전승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행복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은 불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입니다. 초기불교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을 옛 중국 조사스님들은 '이고득락(離苦得樂)', 즉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추구입니다.

아함과 니까야의 가장 핵심 되는 내용은 바로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학문 체계는 크게 이론적·실천적인 측면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야 진정한 종교요, 철학이며, 사상입니다. 불교는 이론적인 측면이 교학(敎學), 실천적인 측면이 수행(修行)입니다. 교학은 6가지, 수행은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6가지 교학의 주제는 온(蘊), 처(處), 계(界), 근(根), 제(諦), 연(緣)입니다. 온은 오온(五蘊)입니다. 오온은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인데 초기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의 기본 교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온,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 22근, 4성제(四聖諦), 12연기(十二緣起) 이렇게 6가지가 초기불교의 주요 내용이며 기본 교학체계입니다. 또한 온, 처, 계, 제, 연 다섯 가지가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초기불교의 핵심이 전부 다 묶여 나오고 있습니다.



각묵 스님은 초기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해체해서 보기'라고 강조했다. "해체해서 보면 무상, 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1월 3일 광주 KT정보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10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각묵 스님.

해체해서 보면 관념에 속지 않고 집착 소멸
남·북방 전승된 니까야·아함 같은 가르침

초기불교의 수행의 주제는 실천 혹은 37보리분법(菩提分法)으로 정리됩니다. 북방에서는 37조도품(助道品)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37보리분법은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을 뜻합니다.

37보리분법은 정리하면 7개의 주제가 됩니다. 첫째가 4념처(四念處)입니다. 4념처는 신(身), 수(受), 심(心), 법(法)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째는 4정근(四正勤), 네 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불교는 정정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4여의족(四如意足)이라고 합니다. 삼매를 여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네 번째가 5근(五根), 다섯 번째는 5력(五力), 여섯 번째는 7각지(七覺支), 일곱 번째는 팔정도(八正道)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곱 가지가 37보리분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불교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교학·수행으로 구성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학은 6가지 주제를 근본으로 하며, 수행은 37보리분법 이것이 초기불교의 근본 주요 내용입니다.

초기불교 핵심은 '해체해서 보기'

초기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냐? 스님·학자들마다 모두 다르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나는 초기불교의 핵심을 '해체해서 보기'라고 말합니다. 해체, 뭉쳐져 있는 것을 다 풀어헤치는 것을 말합니다. 해체야말로 초기불교의 핵심입니다. 초기불교를 고스란히 간직한 남방불교, 상좌불교를 위빳자와딘(vibhajjavādi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빳자는 한글로 해체를 의미합니다.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좌부불교에서는 스스로를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개념은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는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계로 해체해서 보고, 생사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온 처 계 연 등으로 해체해서 설해지는 모든 존재의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해체해서 말씀하셨는가?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 관념에 속아버립니다. 하지만 해체해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불교에서 강조하는 무상, 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라는 것을 오온으로 보면 '나'라는 것은 무상하지요. 무상을 보면 고를 절감하게 되고,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에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초기불교에서 핵심은 첫째로,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두 번째 단계인 무상, 고, 무아가 보입니다. 왜 무상, 고, 무아를 봐야 하느냐? 세 번째 일어나는 것이 염오(厭惡)입니다. 염오가 무엇입니까? 넌더리입니다. 구토입니다. 우리가 존재를 첫 번째로 해체해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무상, 고, 무아가 보이고, 이를 보면 세 번째 염오가 일어납니다. 이 염오의 단계를 모든 주석서에서는 '강한 위파사나(vipassana)'라고 합니다. 염오를 해야 네 번째 이욕(離欲)이 됩니다. 이것을 나는 '감각적 욕망의 빛바램'이라고 옮깁니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이 단계를 초기불교에서는 도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해탈(解脫)을 비로소 실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탈을 '과를 증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해탈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구경해탈지(究竟解脫智)가 일어납니다. 해탈했다는 궁극적 지혜가 일어납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구경해탈지가 일어납니다.

초기불교가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

초기불교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고득락이라 했고, 성철 스님도 〈백일법문〉 첫 권에서 불교의 목적을 이고득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주석서에서는 행복을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금생의 행복을 실현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전 어디를 봐도 봉사·도덕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보시(布施)는 봉사를, 지계(持戒)는 도덕을 뜻합니다. 셋째,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부처님은 내생의 행복을 위해 보시[봉사]를 강조했습니다. 내생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선처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야 선처에 태어납니다. 결국 보시, 지계, 즉 봉사와 도덕적인 삶은 금생에도 행복해지고, 내생에도 행복해지게 합니다. 궁극적 행복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세 가지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궁극적 행복인 해탈열반을 실현하려면 중요한 가르침이 위에서 말한 교학과 실천법인 수행입니다.

특히 초기불교 수행의 출발점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물을 볼 때 해체해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해체해서 보고 또 해체해서 보면 그 대상에 가졌던 집착이 소멸되고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해체해서 보기'를 잘 하시면 초기불교, 〈아함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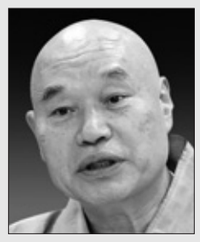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경전의 숲에서 단비를 만나다'



3강 11. 10(수) 오후 7시
통광 스님, 유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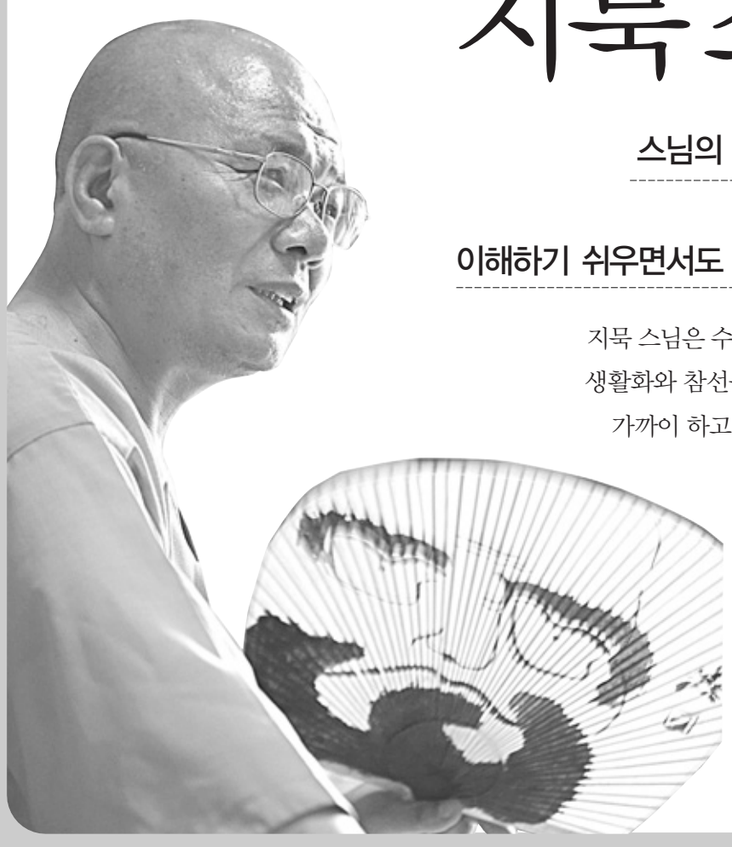
4강 11. 17(수) 오후 7시
도법 스님, 유마경



5강 11. 24(수) 오후 7시
무비 스님, 법화경

광주불교사암연합회(063-376-3223)

지묵스님의 글모음 보림의 숲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스님의 글을 보면 역시 깊이 있는 내용과 함께 독특한 개성과 진솔함, 해박한 지식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하는 듯 거침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흡인력 있는 문체로 인해 지묵 스님은 언제나 불교계의 신문 잡지에서 그 글을 볼 수 있는 인기 있는 필자 입니다.

지묵 스님은 수행정진 틈틈이 글쓰기를 하고 수련회와 방송을 통해 불법의 생활화와 참선을 강조해 온 까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발원 때문일 것입니다.

- 죽비 깎는 아침
- 인도순례기 나마스테
- 봉주르, 길상입니다
- 달마와 혜능
- 초발심자경문 강설
- 보충좌선의
- 육조단경 강설
- 산승일기
- 날마다 좋은 날
- 노스님의 젊음
- 비온 뒤에 무성한 조롱박



장흥불교대학 · 보림사 주지 지묵 스님

우리출판사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 전화 02-313-5047 | 팩스 02-393-9696

요절복통 여래네 집

#33. 유년일기① 〈엄마와 가정방문편〉



아침마다 신경질적으로 여래를 깨우는 여래 엄마도 실은 어렸을 때 잠꾸러기였답니다,



오늘은 그랬던 엄마의 개구장이 시절 가정방문 얘기예요,

아빠 엄마 어렸을 때는 가정방문이라는 제도가 있었대요,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때 이모는 5학년이었는데 가정방문이 우연히 같은 날 잡혔었다지 뭐예요,



그 시절 부모님들께는 선생님이 집에 오신다는게 큰일 중 하나였지요,

대접에 커피가,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땐 그랬답니다,

심한 집은 이런 집도 있었는걸요 뭐,



물론 위에 든 예는 심한 경우지만 어쨌든 시골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특별한 손님임에는 틀림이 없었지요,

그때 엄마는 언니와 둘이서 한방을 같이 쓰고 있었지요,



말을 끝마친 언니가 엄마를 도우러 밖으로 나가자 방에 혼자남은 초롱이 (유년의 엄마) 꾀가 났어요,



1시간만 지나면 선생님이 다녀가신 후가 될테니까 안심하여 자신의 꾀에 노래를 부르며 나오던 엄마가 부엌을 지나다 한과를 발견했어요,



급하게 먹었더니 목이 메이네. 물을 마시자.

그런데, 그릇 안에 이 시커먼 게 뭐지? 코코아인가? 코코아면 나야 좋지 뭐.

아우 써, 이거 커피 아냐!

후루룩

퉤퉤!!

아직도 선생님이 오시려면 30분이나 남았네. 그동안 뭘하고 놀지?

초롱아,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에? 벌써요?

휙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다른 데도 가볼 집이 많아서 그런다면서 들어오시지 않고 문밖에서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 방에 가서 말겨놨던 물건을 찾아와 다시 자기 방에 늘어놨어요,



언니의 담임선생님이 함께 방으로 들어왔지 뭐예요,

엄마는 이불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대요, 그 이후 이야기는 독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이주일의 화두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다
- 법구경 -

관절염, 이제 바르기만하면 OK! -세미닥터

SsemiDr 쎄미닥터 (에뮤오일 15%함유)

15분후면 고통끝! 사용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획기적인 신비의 관절크림!

겨울만 되면 시큰시큰 지긋지긋한 관절통!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관절염 환자들은 바깥나들이의 고통이 더욱 심해집니다. 관절염환자들은 추운 날씨와 비가오면 더 심한 관절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것은 급변하게 바뀌는 날씨(비, 눈 등) 기압차에 의해 관절의 영향이 더욱더 악화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궂은 날씨에는 외부기압은 낮아지는데 반해 인체내부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높아지고 관절 내 압력은 증가하며, 관절 속 혈액 막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 통증이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추운 날씨에는 관절 주의의 근육과 인대가 수축되어 신경을 자극 할 뿐 아니라 관절안의 윤활액이 적어지고 기혈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시리고 저린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통증은 약물복용으로 조절이 가능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약물복용으로 위와 장,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지속적인 복용으로 인해 만성이 되고, 특히 졸음과 불편한 속사정으로 하루 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관절크림 K505는 바르기만 해도 놀라운 침투력으로 피부의 진피층까지 빠르게 스며들어 통증이 완화되어 영양공급과 새로운 연골세포 재생을 도와 관절통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줍니다.

항균특허(제10-0910747호)를 획득한 고기능제품임.
타사제품과 제품용량을 꼭 비교후 구매하세요.

제품구성

A세트	₩196,000
핫크림 100ml 1병	
쿨크림 60ml 1병+(등산용1병)	₩98,000
B세트	₩356,000
핫크림 100ml 2병	
쿨크림 60ml 2병+(등산용2병)	₩178,000



검증된 에뮤오일

인간의 피지층과 가장 유사하다고 알려진 오메가 지방산과 올레산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탁월한 효과를 자랑한다. 에뮤크림은 17년간 미국 시장에서 이미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통하여 이미 검증이 확인된 관절제품입니다. 에뮤크림은 35년 동안 기능성 연구만 해오고 있는 미국의 쉐어사와 기술제휴를 했습니다. 에뮤크림은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께는 필수 제품입니다. 에뮤크림은 신이 내린 황금액체로 사람의 피부 지방 층과 유사하여 무릎관절에 바름과 동시에 놀라운 침투성을 느낄 수가 있으며 뛰어난 세포 재생력은 콜라겐보다도 우수합니다. 에뮤크림은 관절에 좋은 글루코사민 황산염, 염증억제 및 관절통증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천연성분의 MSM유황과 함께 사용할 때 효능은 배가 됩니다.
에뮤크림은 관절의 염증억제, 손상연골의 재생, 건강한 관절유지에 도움을 드립니다.



에뮤란?

신장 180센티미터, 몸 무게 36kg~54kg. 에뮤는 호주 전 지역에 서식하는 조류로 보기에는 타조의 사촌쯤으로 보인다. 에뮤오일(EmuOil)은 에뮤의 가슴 부위에서 오일을 추출해 3번 이상 정제해 만든 오일인데 각종 오메가 지방산과 올렛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100% 순수 천연오일이다. 오래전부터 호주 원주민들에 의해 근육통, 관절염의 치료제로 사용되어 온 에뮤오일은 유럽인들이 호주에 정착하면서 근육통, 관절염뿐만 아니라 손, 발, 입술이 튼 곳, 상처가 난 곳, 화상을 입은 곳, 등 다양하게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상비약"으로 활용 그 뛰어난 피부 침투력과 다양한 효능으로 인해 "신비의 황금액체"라고 불렸다.

찬바람 부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뼈속까지 시려오는 무릎관절로 잠못 이루는 밤을 위해 머리맡에 쎄미닥터 관절크림 하나쯤은 준비해 두세요.

"전 에뮤 오일을 발라요. 그건 마치 기적적인 물질로써 사기처럼 느껴지죠"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의 대명사라함은 아마도 오프라윈프리쇼를 우선으로 떠오를것이다. 오프라윈프리쇼에서 그녀의 한마디는 전세계가 귀를 쫑긋세울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런 그녀가 에뮤오일을 직접 체험하고 그녀는 "전 에뮤오일을 발라요. 그건 마치 기적적인 물질로서 사기처럼 느껴지죠"라고 그녀의 쇼에서 표현했다. 그런후 전세계에서는 에뮤오일에 대해 집중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에뮤오일에 대한 효과를 체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미 에뮤오일을 일부 체험하고 있었으나 과학적 근거부재로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여겨졌는데 근래 에뮤오일의 효능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 효과를 입증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전세계적인 대표 관절오일로 각광받고 있다.



찬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 습한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 있다. 뼈속까지 시리고 쑤셔오는 관절염이다. 전체 인구 5명당 1명꼴로 많은 관절 환자에게 신비의 황금액체로 불리며 바람을 일으키는 쎄미닥터 K-505 관절크림을 권해본다.

▸ 의학박사 변형진 원장



무색소, 무향료의 100% 천연 에뮤오일 성분을 다량 함유해 뛰어난 피부 침투력과 다양한 효능을 가진 쎄미닥터 K-505 관절크림은 관절은 물론 등산 전후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도 효과가 있다. 쎄미닥터 K-505로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기를 기대해본다.

▸ 에스테틱샵 조미경 원장

무릎통증! 이제는 먹지말고 바르세요!

놀라운 침투력으로 피부의 진피층까지 빠르게 침투하여 15분이면 통증이 사라지며 영양공급과 새로운 연골세포 재생을 도와 관절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간편하게 바르기만 하세요.

문의 및 주문 080-223-7000

입금계좌 농 협 351-0201-2415-73 예금주 : 김지영



"7일이면 깨우치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번민하는 구도자들을 향한 해안 스님의 일침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들이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7일이면 도를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나 역시 그것을 긍정하고 확언합니다. 만일 7일 안에 깨치지 못했다면, 공부하는 사람의 정신자세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기간이 짧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7일 만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일반적으로 정진을 오래 해야만 깨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안 스님(海眼, 1901~1974 · 위 사진)의 견해는 다르다. 돈오(頓悟, 단박에 깨우치는 것)를 통해 증득하게 된 견성(見性)은 단시일을 두고 결정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해안 스님은 근현대 호남의 대표 선사로 불린 분이다. '동(東) 경봉, 서(西) 해안'으로 불릴 만큼 선풍을 떨쳤던 분이다. 해안 스님은 항상 수행자들에게 "화두일념에 들면 누구나 7일 만에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항상 화두를 타파할 때까지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으로 알고, 죽기 살기로 대들어 화두삼매에 들어야 한다"며 "엉성하게 공부해 가지고는 공연히 비싼 양식만 축내 빚만 무거워질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1970년 11월 전등회 제8회 정진법회 때 스님이 대중들 앞에서 설법한 내용이다. 호남의 선지식이었던 스님의 생생한 설법이 모아져 책으로 출간됐다. 〈7일 안에 깨쳐라〉는 기존의 고승 법어집과 달리 화두 참선을 공부한 해안 스님의 생생한 구도기와 견성체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설법들이 기록돼 있다.

해안 스님은 17세에 백양사 지방학림에 입학한 스님은 그 이듬해, 성도절을 앞두고 선원에서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7일간 용맹정진을 하게 됐다. 해안 스님은 학명 조실스님에게서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뚫으라'는 화두를 받고 생사의 간두(竿頭: 장대 꼭대기)까지 화두 일념에 빠졌다.

정진 7일째 되던 날 저녁, 공양시간을 알리는 목탁소리에 이어 종소리가 울리고 선실의 방선 죽비가 탁! 탁! 탁! 들리는 순간, 스님은 전에 없던 환희의 세계를 맛보았다.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던 당시의 순간을 "목탁소리 종소리 죽비소리에(鐸鳴鐘落又竹)/ 봉새가 은산철벽 밖으로 날았네(鳳飛銀山鐵壁外)/ 누군가 나에게 기쁜 소식 묻는다면(若人問我喜消息)/ 회승당 안에 만발 공양이라 하리라(會僧堂裡滿鉢供)"라는 게송으로 표현했다.

스님은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한 번 죽어야 합니다.

눈도 죽고 귀도 죽고 입도 죽어야 합니다. 죽을 각오로 대들어야 영원히 살 길이 열리지 어설피 살려고 버둥대면 오히려 죽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결심으로만 한다면 7일 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생사일대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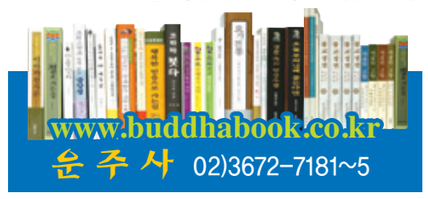
30~40년을 선방에서 공부해도 아무런 진보가 없어 간화선에 반신반의 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나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책이다.

동명 엮음 | 김대열 그림 | 비움과소통 펴냄 | 1만5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기도	법륜	정토
3	붓다 브레인	릭 헨슨	불광출판사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6	굿바이 티베트	M. 블루맨크론	하얀연꽃
7	솔잎 사이 바람소리	무비 외	불교신문사
8	윤회와 행복한 죽음	일묵	이솔
9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10	핼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났도다	월호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신간 도서

왕오천축국전



8세기 혜초는 천축 다섯 나라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랍까지 4년 여 동안 순례길에 올랐다. 〈왕오천축국전〉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방향, 왕의 이름, 언어와 기후, 풍습, 왕이 소유하고 있는 코끼리의 수, 종교적 성향, 불교가 전파된 곳일 경우에는 대승인지 소승인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 등에 대한 지극히 단편적인 기록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초가 그곳에서 보고 들은 현장의 사정은 어떤 글보다 생생하게 느껴진다. 〈왕오천축국전〉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가장 오래된 여행기라는 문헌적 가치 이전에 한 구법자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다라니이다.

혜초 지음 · 지안 역주|불광출판사 펴냄|1만3800원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화만 내는 인생은 어둡고 괴로울 따름이다. 화를 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심장이나 폐 같은 내장이다. 내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그 세포가 화로 인해 빨리 노화돼버려,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병들어 가는 것이다. 화를 잘 내는 불만투성이의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고 타인보다 먼저 늙어버린다. 빨리 피곤해지고, 잠들지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지음|경성라인 펴냄|1만2000원

윤남진 리뷰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지음 | 류시화 옮김 | 현문미디어 | 2003



인간지성은 진정 무엇을 위해 써야 하나?

중학교 3학년 아이에게 독서습관도 기르고 글쓰기 실력도 키워 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서툰 독서논술 지도, 그 두 번째 도서가 〈갈매기의 꿈〉이 됐다. 이 책이 교재로 선택된 것은 순전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논술지도강좌에서 훌륭한 예제로 소개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에게 책을 넘겨주기 전에 먼저 한 번 읽고, 이 독서록을 쓰기 위해 한 번 더 읽고 나니 생각해 볼 것이 너무나 많은 책이었다. 실토하건데 나는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이 〈갈매기의 꿈〉이란 이야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정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많이 읽힌 이 좋은 책을 내가 왜 몰랐든가' 하는 탄식이 나오는 책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훌륭한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낀다. 물론 학교 선생님 외에 부모님이나 손윗사람 또는 친구, 선후배도 모두 배울만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이다.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와서 널리 퍼뜨려진 시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는 것은 이 이야기가 나온 당시를 이해함과 동시에 오늘의 의미로 다시 읽어 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가 책으로 정식 출간된 것은 1970년(뉴욕)이지만, 그 전에 18개 출판사로부터 출간을 거부당했을 당시부터 몇 해에 걸쳐 서부 해안의 젊은이들에게 필사본으로 퍼져나갔다. 이 책이 출간되자 보수적인 성직자들은 이 책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오만과 죄로 가득한 작품'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1960년대 말은 동아시아에서는 베트남전쟁, 미국에서는 히피와 뉴에이지운동, 유럽에서는 68운동이 일어났던 세계적으로 변혁의 시기였다. 반전평화운동, 민권운동,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관심, 자연으로의 귀의 등 오늘날 우리 삶과 사회문화의 귀중한 양식이 되는 가치들을 생산해 낸 시기였다. 이 시기 불교가 미국에 널리 전파돼 기독교의 억압성을 대체하는 영성운동으로서 이른바 젠스타일(Zen style)을 유행시켰다. 이러한 서구의 신문화운동은 오늘에 이르러 인간의 내면적 가치와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살이(웰빙, well-being) 문화로 현재진행형인 운동으로 재생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차원에서 읽고 생각해야 할 이야기이다.

갈매기 조나단의 괴상한 비행연습은, 그들이 갖는 소중한 '날개'를 단지 해안으로 날아가 고기잡이배에서 던져진 고기를 먹기 위한 용도로만 쓰여지는 것에 회의에서 비롯됐다. 조나단은 그가 가진 날개로 '공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고민했다. 이런 조나단의 괴상한 행동에 그는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돼 멀리 떨어진 절벽에서 살아야 하는 '고독'이라는 벌을 받았다. 고독을 이기며 비행연습을 계속하던 조나단은 스승 셜리반과 치앙을 만난다. 이들 스승들과 함께 지내며 순간이동과 같은 최고의 비행술을 배우던 곳은 천국으로 묘사된다. 물론 천국은 하나의 장소나 시간이 아니며 '완전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조나단은 치앙에게서 완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날아서 이동하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한정된 육체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일을 통해 순간이동을 터득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조나단은 '가장 어렵고, 가장 강력하고, 무엇보다 가장 기쁜 것'이라고 치앙이 말한, 사랑과 자비의 의미에 대해 깨닫고 결국은 천국을 떠나 새로운 갈매기들을 돕기 위해 지상으로 돌아간다.

갈매기 조나단에게 소중한 '날개'는 우리 인간에게 '지성'에 해당할 것이다. 결국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 지성은 무엇을 위해 쓰여 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또한 그 여정은 자아를 찾아 떠났다가 다시 저자거리로 돌아오는 심우도와 같이 천국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배움의 과정, 배움의 회향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인간의 지성은 자유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 인간의 지성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것과 일하고 소비하는 것에 온통 바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

또, 이 이야기는 자유를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독이라는 사회적 형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독려한다. 고독에서 벗어나려 할 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정신적 질병에 빠지고 결국 자유를 위한 도전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붓다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한 것과 같이 말이다. 우리에게 "눈이 보여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눈에 의지해서도 안 되며, 우리의 이해를 통해 바라보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갈매기 조나단의 자유를 향한 비행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널리 알려진 붓다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난 자유로 충만된 지성을 위하여, 평이하다고 하여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다음의 문구를 가슴 속 깊이 새겨두도록 하자.

"거듭 들어서 얻어진 지식이라 해서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여 따르지는 말라. 또 전통이 그러하다고 해서, 소문이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씌여 있다고 해서, 곰곰이 궁리해 낸 견해이기에 그것에 대해 갖게 되는 편견(편향)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지닌 그럴듯한(특별한) 능력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주장이나 이론을 받아들여 따르지는 말라. 오직 스스로 생각하여 '이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면 해롭고 괴롭게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버리도록 하라. 또, '이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면 이롭고 행복하게 된다'고 판단된다면, 받아들여 행하도록 하라."〈칼라마경〉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현지사 소개 그 일곱번째 주제 - 관음태교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를 원하시나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원하시나요? 인류의 사표가 될 성현을 원하시나요?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만현 큰스님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로 꿈을 현실로!
영혼체 중심의 관음태교법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영혼체가 깨끗이 씻어지게 되면 꼬마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일단 근이 구족합니다. 건강하다 그 말이어요. 내장에 허물이 없어요. 업장을 깨끗이 해주면 무슨 병을 얻어오고, 무슨 나쁜 병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것이 씻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근이 구족하고, 그 다음에 총명하고, 또 복덕이 있고, 그러한 아들 딸을 낳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타력의 태교를 해야 됩니다. 관음태교를 꼭 해야 됩니다.'
- 〈자재만현 큰스님 법문중에서〉 -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비롯하여 아인슈타인, 에디슨, 칼 막스, 프로이드 등과 같은 세계적 석학들, 이들을 포함한 지금 이스라엘의 선진 문화는 유대 어머니들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들에게는 태교에 대한 철저한 신념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세계 정치 · 경제 · 문화계의 리더들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 태교의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은 아이에게 행복한 한 생을 마련해 주었고 가정에는 화목함을 국가에게는 건설적 미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실로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부족 국가로서는 유대식 인재양성만이 살길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현지사 관음태교원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위신력으로 태아의 영혼체를 정화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영혼체 태교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현지사의 관음태교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지사 자재만현 큰스님의 깊은 삼매 중에 나타나시어 '아직 늦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널리 보급하도록 특별히 당부하신 세계 유일의 타력 태교법입니다.

사람이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선악의 행위는 모두 영혼체에 반영이 됩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영혼체의 청정도와 오염도에 따라 결정 됩니다. 악업(惡業)을 많이 지어 영혼체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면 가난과 고통의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선업(善業)을 많이 지어 영혼체가 깨끗하면 할수록 지혜와 복덕이 함께 하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태아의 영혼체는 인연 따라 부모를 찾아와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 들어가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아의 영혼체를 정화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태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태교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기존태교법은 태아의 재능 개발이나 바른 품성의 함양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태아의 영혼체에 있는 업장(業障)에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체 중심의 관음태교는 선진국의 어떤 훌륭한 태교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태교법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유아시절부터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고 대학에 입학시킬 때까지 부모와 아이가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됩니까? 관음태교는 이러한 자녀의 미래교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전 젊은 여성들이 관음태교를 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훌륭한 영혼체와 직접 인연을 맺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하면 태아의 영혼체에 심어진 나쁜 업을 소멸시켜 육체로 옮겨가는 것을 막아주므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성현의 인품을 갖춘 아이, 총명하고 건강하고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아이, 단정한 용모를 가진 아이를 낳기 원하신다면 관음태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이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합니다

예비 · 영유아 부모를 위한 "관음태교"
제1기 수강생 모집요강

1. 모집인원 : 00명
2. 수강자격 : 관음태교를 배우고 싶은 모든 남녀(특히 미혼 · 기혼의 젊은 여성 및 신혼부부)
3. 교육기간 : 2010년 12월 5일(일) ~ 2011년 1월 9일(일) 6주간
4. 교육시간 : 일요일 3시간 강의
5.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내 영산불교대학(2층)
6. 원서접수 : 11월 1일부터 현지사 춘천본사 033) 243-1787 팩스 033) 243-4371
현지사 대전분원 042) 525-5325 팩스 042) 522-5326
현지사 부산분원 051) 554-5150 팩스 051) 556-5150
7. 강의 주제 및 강사 :

- 정 규 수 업 -

◆관세음보살 보문품 공부, 및 관음태교 실습 〈관음태교법 교재 제공〉
-도현스님, 남전스님
◆신불교 사상 (관세음보살님의 실존하심과 위대한 위신력을 포함)
-일도스님 (영산불교대학 교학처장)
◆관음태교 이론 (불교학과 태교과학의 조화)
-혜운법사 (영산불교대학 교수)

- 특 강 -

◆관음태교사례(관음태교로 아기를낳은 어머니들의 체험담)
◆교정원장 혜명스님 특강
◆덕산스님 특강(영산불교대학 학장, 전직 외교관,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으로부터 MBE훈장 받음)
◆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윤윤수(의학박사)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김병기(부산 동의대학교 생물학과교수)
◆한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원종식(대구 도솔천한의원 원장)
◆산모건강체조 -이영미(창원병원 재활치료 팀장)

◆ 문 의 : 현지사 대전분원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부설 관음태교원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그대는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인가

> 귀 속의 귀로 들어야만
> 머리통에 번갯불이 일어나는,
> 눈이 멀어 그대로 주저앉게 하는
> 은산철벽의 활구라는 것을
> 깨닫는다.

선종 7조 남악탑

미니버스는 회양선사가 마조를 깨우치기 위해 기왓장으로 거울을 만들겠다고 갈았던 마경대(磨鏡臺) 광장에서 멈춘다. 버스에서 내리자 비구름이 먼저 순례자들을 맞이한다. 미세한 물방울들이 긴 띠를 이루어 하늘의 옷자락처럼 너울거린다.

순례자 일행은 수불스님, 각정스님, 법일스님을 따라 비구름 속으로 스며든다. 남악 회양선사 묘탑은 뜻밖에 마경대광장 입구인 척발봉 산자락에 있다. 묘탑의 정식 명칭은 '선종 7조 회양 대혜선사탑(禪宗七祖懷讓大慧禪師塔)' 이고, 줄여서 부를 때는 '남악탑' 이라고 한다. 그러나 묘탑 정면 기단에는 당나라 재상이자 황벽선사의 법제자였던 배휴(裵休)거사의 글씨로 '최승륜탑(最勝輪塔)' 이라고 음각해 놓았다. 최승륜탑이란 '가장 수승한 진리의 탑' 이란 뜻이리라. 회양선사의 법향(法香)이 묘탑 주위에 가득하여 순례자들을 감동시키는 느낌이다.

수불스님과 신도회장 무량심 보살님이 감개무량한 표정을 짓는다. 20여 년 전에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탑이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며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묘탑은 이곳 형산에서 회양선사가 입적했다는 증거도 된다. 그러니 2층 묘탑 안에 남악 회양선사의 일생이 침묵의 언어로 담겨 있는 셈이다. 순례자는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객과 다르다. 회양선사가 남긴 침묵의 소리를 듣는다.

〈전등록〉 제 3권은 남악 회양선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조의 법을 이었고 남악에서 살았다. 속성은 두(杜)씨이며 금주(金州; 섬서성 안강) 사람이었다. 처음 태어날 때, 여섯 가닥의 서기가 하늘로 뻗치더니 의봉 2년(677) 4월 초파일에 태어났다.'

부처님과 탄생일이 같음은 불연이 깊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선종 7조 조사가 됐으니 부처님의 후예다.

'15세까지 오직 불경만을 좋아하였는데 때마침 지나던 삼장법사 현정(玄靜)이 소년 양(讓)의 부모에게 일렀다.

"이 아이는 출가하여 최상승의 법을 얻어 지극히 미묘한 경지에 이를 것이며, 불법의 이치를 터득할 것이오."

양은 15세에 부모의 허락을 받고 형주(荊州; 호북성 당양) 옥천사로 가서 홍경(弘經) 율사를 은사로 삼아 출가했다. 은사 시봉하기를 8년이 지나니 회양(懷讓)이란 법명을 주었다.'


남악탑을 참배하는 스님들 사이로 보이는 배휴 거사의 친필 '최승륜탑'

그러나 은사 밑에서 계율을 공부하던 회양은 스스로 탄식하게 된다.

"계를 받고 다섯 해가 지나는 동안 위의(威儀)를 널리 배워 겉모양은 젊잖게 되었으나 진리는 배우려 해도 깨달을 길이 없구나. 출가한 이는 무위(無爲)의 법을 얻어야 하늘과 인간세상에서 이길 이가 없으리라."

옆에서 듣고 있던 탄연(坦然)도 회양의 탄식에 동조했다. 두 사람은 여러 선지식을 찾아뵙고자 만행을 떠났다. 이윽고 숭산 안(安) 화상에게 갔다. 탄연이 먼저 안 화상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 을 묻는 자리에서 '자기 뜻은 묻지 않고 왜 조사가 온 뜻만 묻는가.' 라는 꾸짖음에 바로 깨달은 뒤 안 화상을 섬기었다.

그러나 회양은 숭산에 머물지 않고 남쪽 천리 밖의 조계(曹溪; 광동성 소관)로 내려가 육조 혜능선사에게 의지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인가."

"숭산에서 화상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설령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회양은 육조 혜능선사 곁에서 시봉하기를 12년이 지난 뒤에야 하직하려 했다. 그때 육조가 물었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지. 그렇다면 그것을 닦아 증득할 수 있는가."

"닦아 증득하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성정이 온화하여 시비하기를 싫어하는 회양이 스승에게 '더럽힐 수 없다' 고 단언한 것은 일찍이 얻고자 했던 조작이 없는 '무위의 법' 을 체득했음을 뜻하지 않을까. 이 무위의 법은 훗날 제자 마조가 '평상심이 도다(平常心是道)로 일상의 삶과 좀 더 친밀하게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더럽힐 수 없는 것이 부처님들께서 염려하여 보호하시는 바이니, 그대도 그렇고 나도 그러하니라."

회양이 조계를 떠난 것은 당 현종 선천 2년(713)의 일이었다. 조계를 떠난 회양은 남악 형산 반야사(현 복엄사)로 와 31년 동안 주지와 방장스님으로서 주석하면서 자상한 방편과 겸양의 덕으로 마조 도일(馬祖道一)이라는 불세출의 제자를 길러냈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회양선사의 여러 제자 중에는 신라승 본여(本如)와 현성(玄晟)도 있었다. 신라에서 건너온 그들도 마조와 함께 수행한 동문이었다. 아쉬운 대목은 그들의 구도 행적이 더 이상 밝혀지고 있지 않은 점이다. 남악에서 입적했다는 기록도 없고 신라 땅에서 교화를 펼쳤다는 기록도 전무하다. 가을바람에 뒹굴다 사라져버린 가랑잎처럼 철저하게 종적을 감추고 산, 후학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바라지 않던 무생(無生)의 선승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순례 일행 맨 끝에서 탑돌이하고 계단을 내려서는데, 홀연히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가 들린다. 육조 혜능선사의 목소리다.

'그대는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가.'

본래 면목을 묻는 사자후다. '귀 속의 귀' 로 들어야만 머리통에 번갯불이 일어나는, 눈이 멀어 그대로 주저앉게 하는 은산철벽의 활구(活句)라는 것을 깨닫는다. 안 화상 곁을 떠난 회양이 오랫동안 육조를 시봉한 까닭이 바로 그 물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회양의 발길을 붙잡아놓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한 육조 혜능선사의 위력이 새삼 실감난다. 조사선(祖師禪)이란 선지식과 동고동락하는 동안 시절인연이 찾아와 꽃 한 송이 피어나듯 영혼을 활짝 개화시키는 경이가 아닐까 싶다.

나는 끝내 천년 전 이곳을 거닐었던 신라승 본여선사와 현성선사를 향해 합장을 한 번 더 하고 나서야 남악탑 계단을 내려밟는다. 비구름은 여전히 형산의 모든 유무정물들을 촉촉하게 감싸고 있다. 문득 신라에서 온 두 분 선사의 영혼이 따뜻하게 감지된다.

정 찬 주

소설가. 전남 보성에서 53년에 태어남. 법명은 무염. 동국대 국문과 졸업. 장편소설로 〈산은 산 물은 물〉, 〈인연〉, 〈가야산 정진불〉, 〈소설 무소유〉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암자로 가는 길〉, 〈돈황 가는 길〉, 〈정찬주의 茶人기행〉, 〈자기를 속이지 말라〉 등이 있다. 행원문학상과 동국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남도산중 이불재(耳佛齋)에 머물고 있다.

☞ 1면에서 계속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하느님을 초월하고, 교리나 신학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의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감각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 불교가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는 대답이다. 만일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가 될 것이다.'

지구별은 물론이고 광대무변한 삼천대천세계를 말하는 불교야말로 당연히 우주적인 종교인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인간의 사고가 만든 신과 교리와 신학을 초월하는, 즉 말씀의 피동적인 세계가 아닌 깨달음의 능동적인 세계를 모색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지 않은가. 자연과 정신의 세계를 연기(緣起)로 이해하면서 질량불변의 법칙 같은 인과(因果)를 얘기하는 종교 역시 불교밖에 없지 않은가.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불법의 뛰어난 가치를 고도의 엄정한 사유를 통해 발견해냈던 것이다.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은 불교와 과학의 관계부터 준비해온 원고 없이 자연스럽게 얘기했다.

"엑스포 현장에서 보듯 과학은 굉장한 발견을 해왔고, 우리는 그 힘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처지에 놓였고,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지요. 종교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학문이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인데 욕심들이 꽉 차 전쟁이 나고 인간의 삶이 불행해지고 그래요. 그러나 불교는 미래에도 행복한 가치관을 찾아주고 인류를 안정시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줄 겁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희망과 불행을 함께 주고 있지만 일찍이 불법은 인류의 희망과 자유와 행복의 근거를 제시했으니까요. 부처님이 대안을 발견한 거지요. 홀로 빼어난 가치를 깨닫고 세상에 알린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성인이고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천만 년 지나도 눈뜨게 해줄 방법을 드러냈는데도 말입니다."

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은 행복한 삶의 대안과 가치를 가장 빨리 사무치게 체험하는 방편이 선(禪)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 현실과 맹점을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부처님이 깨달음의 문을 열어놓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나아가 또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문을 열게 해준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자유를 맛보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거지요. 자기만 눈뜨는 게 아니라 더불어 눈뜨게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좁은 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소승적 공부지요. 이제는 우리 수행자들도 자기가 눈뜬 수행방법을 남한테도 정확하게 제시하여 눈뜨게 해야 합니다."

간화선 체험은 일상에서 이루는 행복

스님은 깨달은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비극이라고 말했다. 삶의 질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속도의 과학시대에 간화선을 지향하는 한국불교가 '눈뜨는 방법론' 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혹은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자기도피이거나 허망한 은둔에 빠질 거라고 걱정했다. 우리가 선방 수행자들에게 흔히 들었던 '평생 화두를 든다' 는 비장한 얘기와는 사뭇 달랐다. 안국선원의 간화선 체험은 누구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질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일 뿐이었다.


상하이엑스포 전시장 내 벤치에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과 소설가 정찬주.

안국선원 순례자들이 당송시대 선사들이 정진했던 선종사찰을 지금 찾아가는 그 이유는 '한국불교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온몸으로 느끼고자 함인 것 같았다. 당송시대에는 출가자나 재가자 구분 없이 깨달음의 경계에서 선지식과 인연 지어가는 '눈뜨는 방법론' 의 제시와 실천이 가장 활발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선, 간화선, 묵조선이 풍미했던 그 시기를 선의 황금시대라고 부를 터였다.





은해사 대웅전. 편액은 추사의 글씨이다.

거조암 골짜기에 정혜쌍수 선풍이 가득

팔공산(八公山)은 신라시대의 오악(五嶽) 중 중악(中嶽)에 해당하는 산으로서 부악(父嶽)이라고도 불렸다. 즉 팔공산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신라의 진산(鎭山)으로서 신격(神格)이 부여된 아버지 같은 든든한 명산이었던 것이다.

그런 연유로 팔공산에는 바위마다 불상들이 새겨져 있고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많은 불교문화재들이 널려 있어 신산스런 삶을 이어가는 백성들에게는 정신적인 안식처와 종교적인 귀의처가 충분히 되고도 남음이 있다.

팔공산의 주봉은 비로봉(毘盧峰)으로 진리의 본체 법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불을 의미하고, 산줄기의 동남쪽 끝인 관봉(冠峰)에는 동방의 이상향인 정유리세계(淨琉璃世界)를 관장하는 약사여래불이(藥師如來佛)이 모셔져 있다. 서쪽 산줄기가 끝나는 제2 석굴암이라고도 불리는 곳에는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서방정토(西方淨土)세계를 장엄하고 있다. 제2 석굴암이라고도 불리는 삼존석굴(三尊石窟)은 서산 마애불(磨崖佛)이 '백제의 미소'라면 '신라의 미소'로 비유되곤 한다.

흔히들 경주 남산을 신라인이 이룩한 부처님 세계라고 말한다. 이는 골짜기마다 불상과 탑과 절터가 지천으로 널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팔공산 또한 경주 남산에 버금가는 부처님 땅으로 팔공산 안에 현존하는 사찰만도 쉰다섯 곳이나 되고 중요한 불교문화재만 추려보아도 백점이 넘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게 많은 사찰 중에 동화사(桐華寺)가 팔공산의 중심에 우뚝 서 있고, 동쪽으로는 은해사(銀海寺), 서쪽으로는 파계사(把溪寺)가 자리잡고 있다.

신라와 고려시대를 통하여 대가람으로 성장한 동화사는 진표율사(眞表律師)가 법상종(法相宗)의 근본도량으로 삼은 금산사(金山寺), 그의 제자 영심이 머물던 법주사(法住寺)와 더불어 법상종의 3대 사찰로 꼽히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신라 영토 안의 후백제 지원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 같다. 그 이후 고려의 보조국사(普照國師), 조선의 사명대사(四溟大師)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에 의해 여덟 차례의 중창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암자만도 여덟 곳이나 거느린 은해사는 동화사와 버금가는 팔공산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다섯 점이나 편액으로 남아 있다.

은해사중건기(銀海寺重建記)에 보면 "대웅전, 보화루(寶華樓), 불광각 세 편액은 모두 추사 김상공(金相公)의 묵묘(墨妙)"라고 했다. 은해사연혁변(銀海寺沿革辯)에는 "문의 편액인 은해사(銀海寺), 법당의 대웅전, 종각의 보화루가 모두 추사 김시랑(金侍郎)의 글씨이며, 노전(爐殿)의 일로향각(一爐香閣)이란 글씨 또한 추사의 예서(隸書)이다"라고 했다.

추사는 1848년 12월 제주도 귀양길에서 풀려나 한양에 돌아오게 되는데 1851년 다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길에 오르게 된다. 전해지고 있는 은해사의 추사 글씨는 2년 정도 한양에 머물 때 쓴 것으로 추정된다.

'오백나한 절'이라고 알려진 거조암은 규모는 은해사보다 작은 산내암자이지만 불교문화재의 비중은 큰절인 은해사보다 크다. 거조암은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지눌이 1190년부터 7년간 머물면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시작한 곳이다.

정혜결사는 개경 중심의 보수화되고 타락한 불교계에 대한 비판운동이자 개혁하려는 실천운동이었다.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아 한마음으로 통일될 때 온전한 수행이 된다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정혜결사가 1200년 조계산 송광사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거조암이 그 중심도량이었다. 그리고 오백나한이 모셔져 있는 영산전(靈山殿)은 수덕사 대웅전의 뒤를 잇는 백제계 고려 건축물이다.

고려 건축물은 몇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거조암 영산전, 그리고 유교 문화재인 강릉 객사문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파계사는 왕실의 원당사찰로 숭유억불정책의 엄혹한 조선시대에 관부의 잡역에 파계사 승려를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양반과 관아의 침탈이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많은 당우전각을 왕실의 내탕금을 하사하여 짓게 하였다.

'동이'라는 사극에 나오는 숙종과 그의 아들 영조, 손자 정조에 이르는 3대에 걸쳐 인연을 맺어 왔는데, 숙종이 원당사찰로 삼고 영조가 자응전(慈應殿)이라는 편액을 써서 내려 보냈고, 정조는 천향각(天香閣)이라는 어필 편액을 하사하였다.

파계사는 풍수 지리적으로 비보책(裨補策)이 쓰여진 사찰이기도 하다. 아홉 갈래나 되는 절 좌우의 물줄기를 따라 지기(地氣)가 흘러나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계곡을 장악한다는 파계(把溪)라는 절 이름을 택했고, 법당 앞의 누각도 골짜기의 지기를 눌러준다는 진동루(鎭洞樓)로 이름지었다. 팔공산 일대의 사찰들이 산지중정형(山地中庭形)으로 누각 밑을 통해 법당에 이르는 동선인데 파계사는 지기의 흐름을 막기 위해 진동루 양 옆으로 돌아다니게 동선을 구축하였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까마귀의 아침

까욱- 깍- 까- 까- 까아-

까마귀가 왔다. 전봇대 꼭대기에 앉아 산 아래를 보고 짖는다. 꼬리날개까지 들썩이며 온 힘으로 짖는다.

까- 까- 깍- 까욱-

'여기는 내 세상'이니 그리 알라구?

해마다 가을이 깊어져 겨울이 가까이 보일 무렵, 까만 모습을 불쑥 드러내며 자신의 세상임을 알린다. 산중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전봇대와 이동통신 송수신 안테나에 올라앉아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고 외친다. 혹시 잊은 사람이라도 있을까, 기억을 되살려주겠다는 듯 온몸으로 우짖는다.

목소리가 걸쭉하고 투박하기 때문일까? 내가 듣기에도 좋은 소리는 아니다. 저 승사자의 옷차림을 닮아서일까? 온통 새까만 게 예쁘게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등성이 너머에 사는 기동이 어머니가 까마귀에게 침을 뱉는 행동이 썩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때 쓴 시가 있다.

내가 사는 마을은 산 중턱에 있어 산 아래 골짜기를 가득 메운 운무의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 많다 햇살이 동산에서 비치기 시작하면 운무는 꾸물럭꾸물럭 제 몸을 흐트러뜨리며 산 위로 오른다

오늘도 막 그때다 마을 가운데 있는 삼거리 전봇대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요란하게 짖어댔다 깍깍깍깍 마침 밭으로 나가던 기동이네 아주머니가 전봇대 아래서 발을 멈췄다(아주머니는 까마귀를 나쁜 새라고 생각한다 요즘 따라 웬 까마귀가 이리 많은지 아침마다 까마귀 소리로 시끄러웠다)

고개를 젖히고 까마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였던 것일까 아주머니가 침을 뱉듯 말을 뱉었다 퉤퉤퉤퉤

햇살은 노란빛의 맑은 모습으로 사람의 집과 밭과 숲을 비추고 있고 산 아래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운무의 갈기갈기 찢어진 몸은 산등성이를 타고 봉우리로 향하는데

깍깍깍깍 퉤퉤퉤퉤

깍깍깍깍 퉤퉤퉤퉤

까마귀는 땅을 보며 짖어대고 아주머니는 하늘을 향해 말을 뱉는다('아침' 전문)

의자 하나도 날짜를 택해 집안에 들여놓는 아주머니다.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말들을 지금도 철저하게 지킨다. 까마귀 소리를 아침에 들으면 되받아 돌려주라고 듣기라도 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주머니는 전봇대의 까마귀와 한바탕 싸움을 벌이곤 밭으로 올라간다.

그러저러하게 내려오는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내가 보기엔 재미있는 광경이다. 둘의 모습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아침이 또 다른 아침을 여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둠의 끝에서 빛이 퍼지는 모습이 아침이라면 까마귀의 깍깍깍깍 울음소리를 받고 퉤퉤퉤퉤 침을 뱉는 소리를 전해주는 모습 또한 아침이었다.

아침은 무엇인가의 움직임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반응하는 모습이다. 사랑의 눈빛 같은 것, 물안개는 하늘로 오르고 비는 내리는 것, 낙엽이 지고 새싹이 돋는다는 것, 아침은 고요한 가운데 일렁인다.

스스로 마을의 가장 높은 어른이라고 외치는 까마귀들이 다시 왔다. 까악- 끄아악- 꺼어억-. 아니라고 너희들은 어른이 아니라고,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고, 까불지 말라고, 재수 없으니 꺼져버리라고 퉤퉤퉤퉤 침을 뱉는 소리를 던지며 아주머니는 까마귀를 맞이한다.

침을 뱉으며 욕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웃음이 나온다. 까마귀도 그리 기분 나쁘거나 놀라는 기색이 아니다. 사람이 어찌하거나 말거나 깍- 까- 까- 깍- 자신의 소리로 아침의 세상을 채우며 떠오르는 해를 맞이한다. 호탕한 자세로 아침을 맞을 줄 아는 새, 정녕 검다고 말할 수 있는 새.

■ 유승도 (시인)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 40~65세이하, 보시금 최상
거제 사찰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7169-9878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 점안식
011-243-3587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범 음 범 패

실제위주 교육도량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 나비무, 명리풍수
각종 불공 행사전문
1학년 무료강의, 학인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예술원)

사무직원 구함

사무, 경리직 보살을 모십니다
숙식 및 출퇴근 가능 (40~50대)
보시금 월 100만원
▷진주시 명석면 소원사
011-595-3973

소승과 같이 불사 이루며 약간의 시주금으로 평생 주지하실 스님 모십니다

▷강원도 평창
010-4028-3622

스님 초빙

부산, 대구에서
열심히 할동하실 분
가정과 회사방문
기도 및 상담
대불정능엄신주 기도함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형편이 어려워 부처님을 못 모시는
스님, 불자님께 은행나무 목불,
지장보살님 좌대 포함, 넉자세치
좌측 도명존자, 우측무득 귀왕 세분,
고급 후불탱화 40평.
어려운 불자님께
조금만 받고 드리겠습니다.
010-3650-84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성 조계종 사찰
010-8954-80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거제 성불사
010-8559-48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1-9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상주
054)534-1363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일광
011-553-099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남해
011-9790-5515

佛敎儀式 (범음, 범패) 學 人 모 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 타 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051)524-9406 / 010-6569-1010 (법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법성사
064)732-9903
010-3443-990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진해 성흥사
055)552-5111
010-2865-8468

스님 시봉하면서 평생 같이 사실 분.

▷65~70세, 건강하신 분
(전북 김제)
063)543-555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783-697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4180-3822

전통범패 배우면서 함께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마산
016-428-6665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하십시요.
☎ 032)664-0048 / 011-741-0867

東和임영재선생의 氣.수맥.풍수지리이야기

◆ 수맥. 풍수지리 상담 ◆
음택.양택.재혈.원격감정.
TV 다수출연.이론입증
◆ 공 개 강 좌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5~7시 참가비:10,000원
장소: 사당역12번 출구.1분거리
상담전화 1644~8457

암자, 포교당 구함

포교원으로 쓸 수 있는
작은 도량을 찾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한국불교금강선종
포교원장 진오 합장
011-669-9258

일본사찰 무료보시

▷위치 : 후쿠시마
▷대지 450평, 건평 50평
010-2003-3944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학력 : 아무 상관없음(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행자(예비스님)모집 안내

▷ 성 별 : 남자 ▷ 학 력 : 고졸이상
▷ 나 이 : 50대 초반까지 가능
▷ 조 건 : 불심이 깊고 성실하신 분
출가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강하신 분.
자옥산 대흥사 (경주시 안강읍)
054)762-7800 / 011-532-3200

불교대학 개교 기념 퇴마법(최면+기공+요가) 특강

강 사 : 퇴마사 종산스님

스님과 종무직 재가불자님들께는 퇴마법 강좌를 등록
하시면 나머지 강좌는 무료수강의 혜택을 드립니다.

◆ **3개월 수련** (주1회), 월 30만원 / 일시불 80만원 (수강일정은 변경 가능합니다)
◆ **개 강** : 수요반 11월 17일 3시 / 토요반 11월 20일 3시
◆ **장 소** : 을지로4가 국도호텔 맞은편 5층 관음사 덕성불교대학
을지로 4가역 1번출구 : 전철 2,5호선
을지로 3가역 7번출구 : 전철 2,3호선
* 수행공간 문제로 반별로 정원제한 예정입니다.
* 다른 강좌는 본 강좌에 맞추어 순차 개강 예정입니다
◆ **연락처** : 02)2285-3004. 070-8688-7762
011-271-7760
* 기업은행 : 018-117863-04-015 / 예금주 : 관음사 (선착순 접수합니다)

강의시간표

	오전반 (11~13시)	오후반 (15~17시)	저녁반 (19~21시)
월	주역점(서산스님)	의식초급(혜덕스님)	경전(혜덕스님)
화	육효(서산스님)	명리초급(신준철교수)	기문둔갑(신준철교수)
수	명반,일진법(서산스님)	퇴마(종산스님)	
목	명리초급(혜덕스님)	의식중급(혜덕스님)	사혈요법(혜덕스님)
금	타로(초빙교수)	성명학(교육원장)	전통침(자봉스님)
토	한문(무변스님)	퇴마(종산스님)	
일	타로(서산스님)	명리(서산스님)	육임(서산스님)

공 수맥 · 풍수

세계 최초 신개념 open course
새로운 개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간은 별로부터 생겨남…다시 우주와의 연결을 위해"
새로운 개념, 새로운 차원의 수맥과 풍수교실

■ 공풍수/공수맥 교실의 개설목적

◎ 풍수에서 바람은 삼라만상의 질서를 주도하고,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바람과 물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풍수지리 이론은 시공간에 대한 한계성으로 자연계의 숨겨진 힘과 운을 알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 사막 한가운데 좌청룡 우백호도 없이 하늘 기운을 연결하여 우유를 썩지 않게 하는 피라밋, 인류의 유산인 세계의 거석문화들, 영국의 스톤헨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암각화와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한반도의 고인돌들과 우주의 에너지는 어떻게 인간의 삶에 풍수적 조화를 이루는가?

◎ 사신사(四神砂) 개념의 풍수가 아닌 사신도(四神圖) 개념의 우리 조상 고유의 풍수법을 이해하면 고대인이 건설한 수많은 유적의 비밀과 하늘기운 운용법을 활용하여 지혜롭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교육내용과 일시

과정	교육기간	교육내용
기초반	10.11.20(토) 오후2시/12주	물질검사법과 지하수맥 체크
중급반	11.03.19(토) 오후2시/12주	지상수맥과 공풍수
상급반	11.06.18(토) 오후2시/12주	* 공풍수와 별기운 연결

* '공' 이란 물이나 자연계의 물질들이 에너지를 서로 동조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 교육참가 안내

오리엔테이션 "공수맥과 공풍수" (2시간)
일 시 : 2010년 11월 13일(토) 오후 2시
장 소 : 서울 강동구 길동 366-4 보광빌딩 3F <별별공공빛과마음터> (길동역 2번 출구 100m전방 수협빌딩)
교 육 비 : 기초반 3개월 과정 50만원
교육주관 : 환경부산하 (사)아시아태평양 지구생명환경개선협회
문 의 : 02)486-7008, 070-7504-3001 / www.happyearth.me

사주명리학 강의

사주 명리학에 처음 접하거나, 입문 후
열심히 하셨으나, 공부에 큰 진전이 없어
고민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공부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과 목 : · 명리학, 기문둔갑, 육효, 육임, 관상
· 타롯카드반은 수강신청에 따라 별도운영
■ 강 사 : · 전, 호서대 기문, 관상학 주임교수
· 전, 동아 · 불교 문화센타 명리학, 기문학 강사
· 전, 사단법인 동양사상연구회 부회장 직강!
■ 일 시 :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 소 : 서울 관악구 난곡입구 사거리
씨채널 안경점 옆 홍삼대리점 안골목
정운철학원
■ 전 화 : 010-7154-8835, 011-241-9681

정 운 철 학 원

사찰대출안내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도와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대출이자는 1억원 대출시 월62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2. 대출상환은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개인명의 뿐아니라 단체명의 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상무 이강욱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규격 가로 7cm 70,000 / 규격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중앙 돌출 500,000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 031)677-995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목)외 2동
- 요사 : 7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9억(조정가)

문화재보유사찰임

- 위치 : 전남
- 법당
- 요사 3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8억

문화재보유사찰임

- 위치 : 전남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부지 : 118(시)
- 가액 : 1억 3천

사내있는 유명산내에 고적지 터에 자리한 유명사찰임

※부동산 및 대리상담은 거절하며, 양수 희망자 직접상담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 시내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3천(조절가능)

011-595-1522

사 찰 안 내

- 위치: 영덕군 창수면
- 총대지 320평, 건물 2동
- 방4, 법당 약5평, 문수전, 산신각
- 외부 지장보살 입상 약 3M
- 즉시법회가능
- 가액: 9천만원

010-5418-123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천호시장 입구
- 6층중 4층 6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흙탱화
- 방3개, 주방, 세면장, 에어컨 2대, 전기보일러
- 시설비 3000만원(조절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50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함

010-9767-41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영주 제일고등학교 맞은편 산에 있는 금명사
- 방4개 주방.욕실.법당.산신각
- 전세가능 월세1년-백오십만원(1,500,000)

054)632-7513(저녁8시이후)
011-9370-7513

사 찰 및 토굴안내

해운대 송정 바다근처 토굴

- 대지 : 56평
- 법당 및 요사, 방3칸
- 해운대 10분거리, 송정바닷가 5분거리
- 정남향, 뒤편 산세 최고
-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1억

부산시내 바다전망 좋은 절

- 대지 : 150평
- 법당(전통양식) 30평, 요사채 50평 2동
- 산신각, 용왕당, 아름다운 연못
- 앞: 바다, 뒤: 공원, 전망 최고
- 가액: 6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3억

010-3875-630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시장부근
- 상가 4층중 3층
- 평수 54평, 관리비 無
- 법당1, 방3, 실내화장실1
- 전세 3000원, 월 30만원
- 올전세 6000만원 가능
- 시설비 3천만원 중 이사비만 300만원, 나머지 무료보시
- 도심속 최고 위치 A급

055)372-3315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
- 평수 : 323평
- 법당 16평, 요사채 46평, 산신각
- 탑, 전망 좋고 운치있는 곳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1억 6천

010-3500-0875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83-35호
- 평수:54평 (평당 300만원)
- 건물 25평(법당 1, 산신각1, 거실,주방,방2개)
- 시내 중심가에 위치. 깨끗함

011-436-92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산면
- 종교시설 건축 가능함
- 대지, 임야 면적 총 954평
- 합천댐이 보이는 경관 수려함
- 도려변에서 사찰터까지
- 200M 포장되어 차량
- 진입이 편리함
- 가액: 7천 5백만원

011-848-2452

사찰 또는 팬션 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자락
- 주변경관이 수려함
- 대지 : 372평
- ㅁ자 한옥 70평
- 사용할 수 있는 하천부지 350평(주차장부지로 적합)
- 가액: 12억

010-9226-6060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도심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대티전철역 3분거리
- 3층 방5개 • 4층 방 3개, 공양간
- 5층 법당, 각층 40평
- 보증금 :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최고요지, 최고시설

010-3198-8988

사 찰 안 내

- 위치: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 서울에서 1시간 소유
- 요사채 50평, 방 5, 산신각(목조단청) 15평 농장 2천평, 폭포수 용궁 100평
- 백년송 소나무밭 경치 좋음
- 와불산 산기슭에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 원합니다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5천만원

011-1703-277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 대지 340평
- 법당 목조 30평, 산신당 1동
- 요사 2층 건물 1동 각 30평
- 주차가능. 심야전기, 바다보임
- 보증금 2억. 월 67만원
- 전세가능 3억

010-6862-125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당진군
- 대지 1,0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신도숙소, 창고, 차고
- 가액: 2억 5천만원

016-417-474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 평수 2층 40평 • 방2, 공양간 별도
- 법당,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모셔져 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큰도로 접합, 지하철 5분거리 바로 앞 , 체육공원 및 버스정류장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236-5557/010-5534-723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 시멘트벽돌 스래브 40평
- 38평(2동) 외 2동(30평)
- 토지: 종교용지 (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등 적지)
- 가액: 10억 (조절가능)

010-3822-4565(일과 시간)

포 교 원 안 내

-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정문 앞
- 3층상가 건물에 2층 법당
- 평수 50평. 방2,주방1,화장실,욕실
- 최고시설, 도심속에 최고위치좋음
- 가액 :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군위
- 토지, 임야 638평
- 바로 등기됨
- 가액: 1800만원

011-9585-3908

사찰(급)안내

- 위치: 김해시 요지 4차선 도로 접
- 대지 315평, 건물 3층 180평
- 3층 60평 법당
- 1층 2층 120평요사
- 12억짜리 8억에 급양도
- 연등 1000개, 인등 500개
- 큰스님 직
- 은행대출가능 4억가능 4억에 몽땅 인수

011-869-8608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거창 토굴터, 1017평
- 가액 : 1억 4천만원 (대출 4,500만원)

011-9393-49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역6번 출구 옆
- 평수: 55평(7층)
- 시설:A급모든시설완비(법회중)
- 동삼존불, 원불 500불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0-3579-9352

시내사찰안내

- 위치: 인천 동구 박문사거리 근방 전철 제물포역 도보 10분거리
- 대지 약 45평
- 1층 단독건물, 법당, 삼존불, 요사채, 방2, 부엌
- 화장실, 도시가스, 거실, 상담실
- 투자가치성 있음 • 융자 6450만원
- 가액: 1억 9천만원

010-4517-37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율동리
- 대지 및 건물 : 8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책 약 50평
- 산신당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사찰 및 별장전원주택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논 9500평
- 가액 : 8500만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원주
- 대지 3,500평 • 건평 : 300평
- 법당, 요사채, 황토방
- 사회복지 요양원 가능
- 양도, 전세 가능
- 가액: 상담 후 절충

010-2003-3944

요사채 건물 이전해 가실분

- 목조 한옥건물(홍송)
- 60평
- 10년된 목조건물
- 가액은 답사후 절충결정

010-8731-275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유동인구 많음
- 위치 : A급 •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5백만원 합 39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 시멘트벽돌 스래브 40평
- 38평(2동) 외 2동(30평)
- 토지: 종교용지 (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등 적지)
- 가액: 10억 (조절가능)

010-3822-4565(일과 시간)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 다실별도1
- 2, 3층 베란다 사용가능
- 가액: 10억, 꼭 하실분만 절충가능

011-419-37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임법당
- 가액: 4천 3백만원
- 모든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473-6886
054)337-7878

사찰(급)안내

- 위치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내 사찰
- 대지 162평, 요사채 37평
- 방2, 주방, 거실, 컨테이너 방2 법당 15평
- 납골공원 대지 182평
- 가액: 2억 5천만원

063)543-5551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종교용지 300평, 건평 100평
- 법당, 산신각, 용신, 연못공사중
- 요사채 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 시설용도,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화명동 신도시A급
- 8층 중 6층 56평
- 법당 27평, 방2, 공양실1, 창고1, 세면실1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 이전 불사관계로 급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51)361-1868
010-9105-0788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 /010-3815-910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 다실별도1
- 2, 3층 베란다 사용가능
- 가액: 10억, 꼭 하실분만 절충가능

011-419-37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교원안내

- 위치 : 천안시 대흥동
- 평수: 약 38평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 방2, 화장실2, 목욕탕
- 보증금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 현재 법회중,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41)567-0391

사찰(급)안내

- 위치: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20평, 산신각5평, 요사채 10평,공양실15평
- 연못, 식물, 5층탑, 해태(2마리)
- 가액 : 9,500만원

011-9004-1492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
- 대지 105평(텃밭 포함)
- 건평 200평(3층)
- 2층 법당, 주방, 거실, 방2 화장실 3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시내
- 법당1(2층), 주방, 방1
- 옥상 사용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512-6368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 4층건물 중 3층 75평
- 1000/75 시3000 =합 4천만원 버스정류소앞 재래시장30M
- 대명5동 지하철역 30M
- 서울 포교원과도 맞교환원함

053)657-0151
010-2237-7631

사찰(급) 안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 진접읍, 장현리(시내인접)
- 대지 약 256평
- 건물 2동, 공양실 별도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3, 주방, 거실, 화장실 3
-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3-6676



김경현 원장의 **몸·마음 이야기** 체질 따라 살빼는 이야기

소화기능 좋은 태음인 방심하단 비만

체중을 줄이려면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중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 정신적 · 육체적인 소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야 한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절식이 이뤄져야 한다. 절식과 아울러 하루 20분 이상 꾸준한 운동도 지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량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우선 체질을 판단해야 한다. 자신의 몸이 가진 선천적인 기질을 알아봐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체질이란 사상의학의 사상체질(四象體質)을 말한다. 동무 이제마 선생이 창안한 사상의학은 임상에서 많은 효과를 나타냈다. 사람이 가진 선천적인 특질에 맞춰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의학적으로 말하면 폐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을 태양인(太陽人)이라고 한다. 에너지의 소모와 배설 기능이 강하나, 소화 · 흡수 · 축적의 기능이 약한 사람이다. 이러한 유형은 정상체형 내지 마르기 쉬운 경향을 갖고 있다. 신장의 기능이 강하고 소화기 기능이 약한 사람을 소음인(少陰人)이라고 한다. 에너지 소모와 배설의 기능은 강한 편이나 흡수 · 축적의 기능이 약하다. 이러한 사람도 역시 마른 체형이 되기 쉽다.

간 기능이 강하고 폐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 즉 태음인(太陰人)이나, 소화 기능이 강하고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인 소양인(少陽人)은 선천적으로 에너지 흡수 · 축적 기능은 강하나 소모 · 배설 기능은 약한 편이다. 이런 이유로 비만인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상의학적으로 태음인과 소양인에 속하는 사람이 많다. 소화 · 흡수의 장기인 간이나 비장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좋다 보니 에너지가 몸에 쌓이게 돼 비만이 되기 쉽다.

성격적으로 볼 때, 태음인은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여유가 많다. 정직하나 고집이 세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마음 변화가 적다. 음식에 욕심이 많은 단순 과식성 비만자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소양인은 성격이 급해 참을성이 모자라고 감정의 변화를 감추지 못하는 유형이다. 성질은 싹싹하고 깔끔하며 인정이 많은 편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를 해소하려 스트레스성 과식을 많이 하게 된다. 소화 · 흡수 · 축적이 잘 되므로 비만이 되기 쉽다. 이러한 체질적인 요인 이외에도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비만이 되기도 한다. 약물을 남용하거나 질병 · 환경 · 음식에 의해 누구나 비만이 될 수 있다. 체질이론은 같은 생활을 했을 때 비만이 되기 쉬운 사람들을 가려내는데 도움이 된다. 많이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태양인이나 소음인이라면, 적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사람들은 태음인이나 소양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다.

일단 체질 판단이 정확히 이뤄지면 그 체질에 따른 약을 쓰게 된다. 강한 기능은 누그러뜨리고 약한 기능을 더욱 조장하는 방법을 쓴다. 체중을 줄이는 약이라 하더라도 태음인과 소양인은 그 처방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또한 침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기도 한다. 비만 치료에서 침의 역할은 비, 위, 소장 등의 소화흡수 작용은 억제시키고 신장과 대장의 배설 기능을 도와준다. 아울러 내분비 계통의 이상을 조절해 식욕 감소와 에너지 소모를 촉진시킨다.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과 단순 비만에 따라 선택되는 침 자리가 다르다. 전신에 놓는 체침법(體鍼法)이나 귀에만 놓은 이침법(耳鍼法)을 보통 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장기 기능을 조절하기 위한 침법은 상당한 효과를 보았지만, 지방의 분해를 촉진한다는 침법들은 아직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

체중을 줄이려면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절식이 이뤄져야 한다. 절식과 아울러 하루 20분 이상 꾸준한 운동도 지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량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다.

이런 한의학적 방법과 아울러 본인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일률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약도 없지만 편히 체중을 줄이는 방법도 없다. 태음인에 속하는 여성들이 1주일 동안 3kg 정도를 줄인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과 의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찰이 뒤따라야만 한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정미화 원장의 **건강한 구강 관리법**

입냄새, 토마토주스 자주 드세요



첫인상만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향기이다. 인류가 향기에 집착한 것은 향수의 역사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향수 이전, 향료의 사용이 고대 이집트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향(香)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 상대방의 입 냄새로 인해 불쾌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는 자신의 입 냄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돼 본 적도 있을 것이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취는 여전히 잡히지 않는 숙제다.

구취의 원인은 전신적인 것과 국소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전신적인 이유로는 소화기관의 장애, 신장 · 간 · 호흡기 등의 문제, 당뇨병이 있을 경우 구취가 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월경 기간 중 구취가 심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내과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소적인 이유로는 부비동염에 의해 구취가 날 수 있다. 이는 이비인후과를 통해 치료해야 한다.

구취를 유발하는 구강 내 원인은 다양하다. 입안의 세균 덩어리인 치태와 치주질환, 충치, 치아 사이의 음식물과 혓바닥에 부착된 음식물이 미생물에 의해 부식된 경우이다. 불량 보철물이 있거나 의치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 마늘 · 파 · 고추 · 생선 등의 섭취, 음주와 흡연이 구취를 발생시킨다.

구취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치태와 치태로 인한 치주질환이 대표적이므로 치태를 없애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치태 치료 방법으로는 토마토주스 섭취, 아연염이 포함된 치약 사용, 올바른 칫솔질 등이 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들을 써도 치태를 줄여줄 뿐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하는 것, 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취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치태와 치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스케일링과 잇몸치료가 대표적인 치태 · 치주 관리법이다. 구취 제거뿐 아니라 튼튼한 잇몸과 건강한 치아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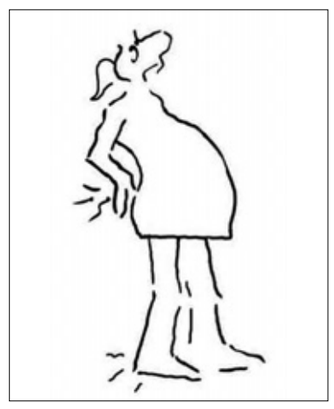
구취는 누구에게나 약간은 존재한다. 반면 구취가 없는데도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구취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음주와 흡연은 되도록 삼가고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치료를 통해 청결한 구강을 유지하는 것이 구취 예방의 최선이다.

연우치과 (02)733-1033



Dr. 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임산부의 체형

체중 불어나면서 골반 불균형



불어난 체중으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

임산부 10명 가운데 7명이 허리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오랜 시간 서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딱딱한 바닥에 정자세로 앉아 있는 등 한 자세를 오래 유지했을 때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에 부담을 느끼는 시기는 만삭인 8~10개월 때보다 중기인 4~7개월 때인데,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고 호르몬의 변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골반은 분만 때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형태와 크기는 출산의 난이도와 큰 관계가 있고 골반의 경사도는 자세와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골반은 부채 모양으로 펼쳐진 두 개의 장골이 붙고 그 중간에 꼬리뼈가 끼워져서 골반뼈를 형성합니다. 이 골반뼈가 전후좌우로 수평을 맞추고 있어야 그 위의 척추도 바르게 균형을 잡습니다.

골반 불균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리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쪽 다리의 길이가 다른 쪽 다리보다 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골반이 기울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쪽 다리가 짧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의 부적절한 수축과 이완으로 하체 비만, 특히 둔부와 허벅지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여성 가운데 많은 수가 골반이 뒤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이는 주로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 수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이 수축되고 골반이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 상대적으로 이완해 그 부피가 늘어나서 앞쪽 허벅지 비만을 야기합니다.

평소 움직임이 없는 골반이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궁과 태아를 보호하면서 과도한 체중을 지탱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임신 중반기가 지나면서 서서히 엄마의 몸은 출산을 준비하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때 골반이 천천히 벌어집니다.

이때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생리적으로 관절 사이의 가동성이 높아집니다. 즉, 튼튼하게 골반을 잡고 있던 인대가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벌어진 골반은 쉽게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산 후에는 자궁도 수축하고 몸의 기능이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약해졌던 인대들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만약 난산을 했다거나, 산후에 출혈이 많고 기운을 많이 소진한 경우, 산후에 조리를 못하거나 육아를 하며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인대의 불균형으로 골반이 벌어지고 비대칭 형태를 보입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가장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 산후 요통, 어깨통 등의 근육통입니다. 심한 경우 체형이 변해서 하복부, 하체 비만, 골반 주위의 약해진 인대로 인해서 요실금과 성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출산 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교정해야 합니다.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서 분만 후 1~2개월 즈음부터 6개월 전까지는 골반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므로 이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출산 후 체중은 어느 정도 감소했는데 임신 전 입었던 바지가 골반에 걸려서 잘 안 들어가거나, 양쪽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거나, 양발을 모아 11자로 서 있는데 골반 높이가 다른 경우, 어깨와 골반의 불균형, 또는 유난히 배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골반의 변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1544-9697

불자정보 809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신리면 마소리
- 평수 : 법당30평, 산신각 약15평, 대지 224평
- 법당 마당앞 연못 있고, 산밑에 위치
- 도로포장완료. 주차장有
- 가액 : 1억 7천만원

043)852-053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50만원(조절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포교원 안내
- 위치 : 뒷산에 폭포가 있는
- 서울시내 사거리
- 상가 건물 3층중 3층
- 포교원으로 15년 자리한 60평
- 월세 62만원
- 시설비, 보증금 총 7천만원

011-496-6417

절(사찰)요양시설
복지시설
적지중에 적지임
- 경남 상천
- 3만 5천평
- 가액:17억 5천만원

02)739-50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5)638-182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전하동
- 3층 건물 5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상시설

011-9534-200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주택 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 앞에 저수지, 뒤에는 산세수려
- 총면적 약 400평, 건평 약 80평
- 법당 2층 30평, 방4, 화장실 3개
- 고속도로 IC에서 5분거리
- 가액: 1억 7천만원 (3천만원 대출되어 있음)

054)373-0383
010-4528-9807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하도읍 마석
- 평수 120평
- 법당 35평, 산신각, 주지실
- 가액: 보증금 2천 1백만원
- 일체 시설 완비

011-289-2719

사찰안내
- 위치 : 충북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0-8993-3596

사찰안내
- 양산지하철역 5분거리
- 아파트밀집지역, 뒷산공원
- 대지 84평
- 법당, 요사채, 마당
- 가액: 2억 5천만원(가격절충)

010-4183-2798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당항리
- 방2, 주방, 식탁실, 목욕탕 등 시설
- 현대식 넓은 마당
- 대지(텃밭) 50평, 평수(마당포함) 49평
- 가액: 3천 6백만원
- 계약금 500만원, 잔금은 2011년 8월에 지불가능

010-8454-1800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양주시(양주시청부근)
- 양주역에서 5분거리
- 2층 법당(40평),1층 요사채(40평)
- 방4, 거실1, 화장실 2
- 보증금 4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 5백만원(가격절충)

031)821-1995
011-9059-6749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상급 법당 총 7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부처님 5불과 시설완벽
- 현재 살림도 하고 있음
- 도시가스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주지스님 건강상 급 양도

010-6272-7842
010-4368-4569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⑫ 이궐의 석굴

석가여래 뒤이어 미륵불이 오리라



용문석굴 빈양중동 불상. 북위시대 만들어진 불상 중에서 가장 미소가 아름다운 불상 중 하나다. 화화양식(華化樣式)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온화한 미소가 보는 이들을 웃게 만든다.

용문석굴이 위치한 곳은 이궐(伊闕)이라 불렸다. 중국 북위(北魏) 학자 역도원이 저술한 중국의 하천지인 〈수경주〉(水經注)는 이궐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용문석굴 앞을 흐르는 강(伊水)이 용문산과 향단산 사이를 흐르는데, 이 두 산이 강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궐(闕)과 같다는 것이다. 궁전과 같은 이곳은 선대 황제들을 기리기 위한 석굴의 조성지로 최적지였다.

이러한 용문석굴에 관한 기록은 〈석로지〉에 자세히 등장한다.

"경명(景明) 연간(500)에 대장추경(大長秋卿; 관직명)인 백조(白整)에게 조칙을 내려, 대동(大同) 영암사(靈巖寺) 석굴(운강석굴)에 준해 낙양의 남쪽 이궐산(伊闕山)에 효문제와 그 황후 문소황태후(文昭皇太后)를 위한 석굴 2곳을 조영케 했다. 처음에 지면에서 석굴 정상까지 310척(91m)이 되게 만들려 했다. 정시(正始) 2년(505)에 산을 파냈을 때 23장(54m)이 됐는데 대장추경(大長秋卿) 왕질(王質)이 너무 높아 공을 들여도 완성하기 힘들다고 생각해, 아래로 옮겨 평지에서 높이 100척(30m), 남북으로 140척(42m)의 석굴로 만들자고 아뢰었다. 화평연간(永平年間; 508~511)에 유등(劉騰)이 상소를 올려 선무제를 위한 석굴 1개를 조성해 3개의 석굴이 완성됐다. 경명원년(景明 元年; 500)에서 정광4년(正光四年; 525) 6월까지의 총 802,366 명의 인력이 쓰였다."

이 기록에서 조칙에 의해 조성된 석굴은 빈양동(賓陽洞)으로 용문석굴 중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성된 최초의 석굴이다.

흔히 자신들의 선조를 기리는 일을 '추선공양(追善供養)'이라고 하는데, 용문석굴에서는 운강석굴처럼 북위 황실의 추선공양과 황즉불(黃即佛; 황제가 곧 부처) 사상이 드러난다. 또 석가여래에 대한 신앙으로 시작해 미륵신앙과 조화를 이뤄내는 북위 특유의 신앙의 변천을 잘 나타낸다.

〈석로지〉에서는 "석가여래 앞에 있던 여섯 부처님의 뒤를 이어 석가여래께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장차 석가여래의 뒤를 이어 미륵불이 세상에 오리라"고 기술했다. 용문석굴 고양동의 좌우불감에는 상단에 석가여래를 중단에 미륵교각보살상을 위치해 석가여래의 계승자로 미륵불을 여기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미륵에 대한 열정은 사후 도솔왕생의 열망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미륵불의 현신을 바라는 강한 의지도 함께 투영됐다고 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57

개심사 연못



연못 위로 낙엽이 쌓이고 있었다. 상왕산 개심사. 가을을 보러 온 사람들이 연못을 지날 때마다 낙엽들 사이로 파란 하늘이 내려와 잠겼다.

떨어진 낙엽 위엔 앙상해진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멀리서 울던 산새는 가지를 옮겨 앉았다. 가을엔 자연도 자연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연못에 떨어진 낙엽은 떠나온 가지를 볼 수 있었고, 가지를 옮겨 앉은 산새의 눈엔 떠나온 숲이 보였다. 자연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다.

몇 해 전 가을. 개심사 연못은 시를 써낸 눈동자처럼 깊었고, 쌓이는 낙엽 사이로 하늘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연도 자신을 바라보는 가을. 한 번 쯤 우리도 우리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9도 상방제범상무량억불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상방세계의 한이 없는 부처님들이 증명하여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중생들이 믿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上方諸梵相無量億佛莊嚴]

이 도상도 제14도에서 시작하여 제18도까지 이어지는 도상들과 비슷한 도상이며, 상방의 10여래인 범음불, 수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등이 아미타불과 아미타경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삽화는 상방 10불이 구름에 싸여있다. 중앙에 상하 2불이 앉아 있고 그 좌우에 마름모꼴로 4불씩 배치되었는데 중앙의 여래는 정면관을 좌우의 4여래는 각기 중앙을 향해 약간 측면관으로 앉아 있어 좌우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도상은 11번째 목판 원판의 끝부분에서 12번째의 목판 원판 후반부 3/4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리불아, 상방세계에 있는 범음불, 수왕불, 향상불, 향광불, 대염견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등 이와 같으신 항하수의 제불이 각각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부처님의 32상중 하나로, 대설상이라고도 한다. 넓으면서 길고, 얇으면서도 부드러운 부처님의 혀 모양, 허망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상이며,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시는 표현이다.)을 내시고,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어 성실한 말씀을 이르셨느니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舍利弗 上方世界 有法音佛宿王佛香上佛香光佛大焰見佛 雜色寶華嚴身佛娑羅樹王佛寶華德佛見一切義佛如須彌山佛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舌相 偏復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所護念經)

내용의 핵심은 나무아미타불이 염불을 통해 우리 중생들이 극락왕생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중국 선종의 최대 전적인 종경록을 저술한 연수스님은 염불수행의 뛰어남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참선하고 염불을 하지 않으면, 죽은 뒤 그릇된 경계가 나타날 때 열 명 중 아홉은 그 경계를 따라간다. 그러나 참선을 하지 않았더라도 염불을 한 경우, 모든 사람이 다 아미타불을 친견할 수 있으니 어찌 깨닫지 못할까 두려워하랴."

이제는 염불이냐 참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참선도 염불도 하지 않아 천만번 윤회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말고 노는 입에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수행할 일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불설아미타경 제19도 상방제범상무량억불장엄,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 28.2×21.0㎝.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4년분할상환
고객만족 초절전형 기능 맞춤형
농작물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저온냉장 · 냉동고!!
▲1~20평 까지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주)한진산업 HP 011-673-262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친환경 삼베타올 선물 SET (샤워타올,세안타올,수세미)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법보시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T. 02)2004-8216 / F. 02)737-069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절대적으로 주인공에게 책임을 전장하세요

오계를 받는 의미

문) 이번에 있을 수계법회에서 계와 연비를 받기를 어머니께서 간곡히 부탁하기에 수계를 신청했는데 오계를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답) 여러분은 보이는 데서 오계를 받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여러분의 몸에 마크가 붙은 거와 같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꼭 표시가 있어야 들여보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당장 죽으면 그 마크를 보고서 모셔 가고 그 마크가 없으면 지옥으로 먼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웬만큼 다 서류를 꾸려서 다 해 가지고 검사로 올라가고 검사가 또 해 가지고 판사로 올라가는데, 그 위대한 마크가 있다면 그냥 무사통과거든요, 무사통과.

이게 그런 마크나 똑같아요. 스님네들은 십계를 받지만 신도들은 단 오계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오계를 받게끔 한 거죠. 오계라도 잘만 지키면 그거는 무사통과예요. 못 믿거든 요담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못 보겠지만 요담에 한번 내가 꼭 보겠다 하면 그대로 보여져요. 또 때에 따라서는 가르쳐도 줘요.

사람은 겉으로 못 보지만 공부를 한 사람은 다 보죠. 갈빗대가 몇인지도 보고 다 봐요. 가서 펼쳐 놓고 보는 것보다도 외려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못 보시니까 천상 꿈이라고 붙여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이 살면서 고통이 아무리 오더라도 '허허, 이거 또 물이 파도가 치는구나. 주인공, 바람이 불지 않게 네가 할 수 있다면 물은 잔잔할 텐데….' 이렇게 그냥 관한다면, 그게 시적(詩的)이죠.

아주 얼마나 좋아요. '바람만 안 불게 한다면 물은 잔잔할 텐데,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선 진짜로 믿는다면 웃음이 나고, 그런 말을 해 놓고도 믿지 못한다면 바둥바둥 뛰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온통 야단나죠. 그게 어디 진짜 사람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림 · 최주현

선(禪) 사상에 이익이 되려면…

문) 선(禪) 사상을 따르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아주 자기 취향에 맞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하는 그 선 사상을 어떻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데에 의문을 갖고 있답니다.

답) 옛날에 어느 승가에서 스승이 이렇게 말을 했죠. "너, 토시가 옳으냐, 부채가 옳으냐?"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토시도 옳고 부채도 옳습니다." 했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겨울이 옳으냐, 여름이 옳으냐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름도 옳고 겨울도 옳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둘 다 옳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큰스님이 열반을 하셔서 지금 다비식을 하는데 돌장승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니 그건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 그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그 대답을 하기 이전에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돌장승이라는 그 자체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 그 돌장승, 그 진리는 움죽거리지 않는다는 데에서 눈물을 흘린다 할 때는 봄이 온 소식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헤아릴 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지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할 때 선을 누가 봅니까? 선이란 것은 착할 선이 아니라 중심 선, 이것이 거기에 대두되겠죠. 너의 마음에 의해서 너를 채찍질하고 너를 이끌어 가는 너 자체가 부드럽게 다스리고 둥글게 다스리고 자비스럽게 다스리는 그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나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선이 옳으냐, 악이 옳으냐?" 하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저 물을 한 컵 마시든가 주먹으로 법좌를 딱 치든가 그렇게 묻는 사람의 따귀를 훔쳐 때리거나 이렇게 예전에 대답을 했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야, 때에 따라선 악도 범하고 선도 범하는데 네 마음을 네가 다스려서 그저 착하게 살고 네 마음대로 착하게 잘 다스려서 살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악이다 하면 선이 거기 붙고 선이다 하면 악이 붙으니 그거 두 가지 다 빼 버리고 네가 행동하는 데 달려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뭘, 거기에 왜 끄달려요? 선이다 악이다 이러는 데서 끄달릴 필요가 하나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데에 문제는 있는 거고 다스렸으면 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행하는 게 그대로 참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스리고 행하는 데 있다고요.

그런데 발현이 되지 않고는 대답이 안 나오죠. 빨리빨리 능통하게 대답도 안 나오거니와 실현을, 실천을 할 수가 없죠. 벌써 한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좀 해야겠다. 왜들 그렇게 하지?' 이러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 한 번이면 족해요. 스스로 그렇게 벌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네들이 그렇게 하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만법의 기준이며 이것이 찰나의 삶이며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바로 현재의 이 종교란 말입니다. 생명이 불이니까요. 말이 교니까요. 이게 불교죠. 이 불교의 진의가 이러한 겁니다.

병원 같은 데는 가지 않아야 하는지요

문) 마음공부를 해 나가면서도 어떤 치료법이라든가 인간이 만든 어떤 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 주인공에다 일체 맡겨 놓고서 병원 같은 데는 가지 않고서 오직 주인공만 붙들고 가야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답) 그거는 이런 게 있죠. 모든 게 한계가 있듯이 아마도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접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보약 하나도 안 먹고 자기가 생각에서 아예 그냥 보약을 먹고 있습디다. 모든 혈기가 통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자기가 생각해서 '아, 거기서 기운을 내게 해야지,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일거수일투족 다가오는 대로 근본에다 맡겨야

☞ 25면에서 계속

응? 거기서 기를 넣고 해야지. 피가 좋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보약도 그냥 부처님한테 자기 성의대로 갖다 놓고는 자기들이 해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을 먹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을 아주 끊고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예요. 근기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거지, 근기가 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고정됨이 없어요.

그러니깐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유대로 하세요. 편리하게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좀 너그럽고 여유 있게, 병으로 인해서 먹는 약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피로회복제도 좀, 간장약이 피로회복제라고 합디다. 그런 거를 좀 먹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냥 잡수셔도 좋고요. 거기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또 병원에 갈 일이라면 병원에 가는 것도 참선이고, 그것도 법이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이것이 외려 해가 될 병이라면 차라리 안 가는 것만 못하죠.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 넓적다리에 부스럼이 났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그거를 악성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하고는 이렇게 잘라 내고 도려 내고 방사선을 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방사선을 쐐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런데 방사선을 쐐 가지고 이 다리 하나가 그냥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울고불고하며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선량하고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서 퇴원시켜라. 퇴원시켜 가지고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다른 데로 가서 진찰을 해 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쬐는 데서 끌어냈죠. 끌어내 가지고선 얼마를 저거 하다가 그 안의 모든 것이 좀 유해지고 물렁물렁해지고 그런 연에 "야, 병원으로 가라, 인제. 딴 병원에, 아주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해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병원에서 진찰을 하니까 이건 방사선 쬐지 않을 거를 쬈다 이겁니다. 쐐 가지고는 이게 살이 굳어져 가지고 도대체 마비가 되고 자꾸 부어오르는 거예요, 살이.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다시 방사선기를 없애면서 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인제 아물기만 하면 된다고, 스님이 그렇게 나오란 말을 안 하셨으면 얘는 죽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일에는 가야 하지만 안 갈 일에는 안 가야 합니다. 공부하는 데에 바로 그것도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가야 할 건지 안 가야 할 건지 벌써 자기가 먼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기독교다 가톨릭교다 이런 걸 떠나서입니다. 부처님은 당시에 이런 공부를 그냥, 실상 속에서 실현을 하게끔 참선을 가르치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 주셨지, 무슨 육신을 고쳐 주거나 이런 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만 고친다면 육신의 병은 여러분이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문)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지 화목하게 잘 살던 저의 집이 아버지의 주식 놀음으로 갑자기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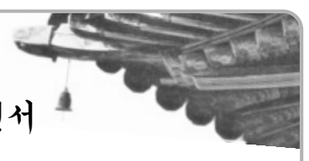
답) 여러분이 사는 게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아이구, 내가 웬 이렇게 죄가 많고 업이 많아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조금도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더 어려워지고 더 산만해지고 가정은 더 융성하게 되질 않습니다. 이 주인공에다 관하시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선 화목지 않은 사람은 화목하게 말하고, 또 안되는 집은 되게 하는 걸로 말하고, 이렇게 갖은 각색의 용도를 자기 스스로 알아서 거기다 맡기시고 아주 편안하게 계세요.

자동차가 '내가 거북하다. 왜 이렇게 죄 박았느냐?' 이런 말 합디까? 운전수가 다 해 놓고 운전수가 다 고쳐요, 또. 안 그럽니까? 운전수가 찌그러트리든지 기름이 없든지 해도 운전수가 다 해결하지 누가 해결합니까? 그래 운전수가 해결하고 그 차가 너무 못 쓰게 되면 폐차시키고 다시 새 차를 꺼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이 물질이 없어지면 바로 새 걸로 형성시킵니다, 진화시켜서. 그것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에 의해서 모습과 삶과 이 모든 거를, 자기가 그냥 그 보배를 안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폐차를 시키고 또 차를 새 거를 꺼내도 그 주인공이 하는 거죠. 그러니 주인공이 절대적인 책임이죠. 책임을 전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전장을 하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놔야 앞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입력이 된 정수에는 누구나가 다 컴퓨터가 있다고 그랬죠? 이 대뇌를 통해서 이 정수의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고요. 그래 과거에도 입력이 됐고 지금 현재에도 입력이 돼서 과거에 입력된 게 현실에 자꾸자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보죠.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절대적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죄가 많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누가 그 집을 망하게 했다느니 하거나 가정의 누굴 탓을 한다든가 그러죠. 탓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는데 상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하든 못하든 내 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남의 탓 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래 가지고선 그 원망의 진원이 그냥 스스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게끔 만들지 마시고 마음의 반야줄 즉, 자기 운전수에게 모두 맡기시면서 다가온 경계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모든 것 근본에다 놓을 때
> 연방 입력되고 연방 없어지면서
> 그릇은 항상 빕니다



업장 소멸을 하려면…

문)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정해진 업이 있어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절이나 사경 등 여러 가지 방편으로 기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관법을 가르치시는데 업장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요

답)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말하고 행하고 한 그 자체가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되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일도 알고 내일의 할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에 그렇게 입력이 된 대로 차례차례로 거기에서 유전성도 나오고 영계성도 나오고 또는 세균성도 나오고,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과성이나 모두가 인연에 따라서 입력이 된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업이다, 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나오는 대로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다면 '주인공 감사해!' 하고, 언짢은 일이 생긴다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한다면 그대로 그게 대뇌를 거쳐서 입력이 됩니다. 대뇌를 거쳐서 사대를 통하면, 통신이 되면 바로 즉시 찰나에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나올 때 바로 거기다 되입력을 한다면, '거기다 놓는다면' 하는 소리가 '입력'이라고 합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놓고,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지. 또 '너만이 지켜줄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너만이 의사가 돼 줄 수 있어. 너만이 모든 벌어진 일들을 원만하게 이끌어 줄 수 있어.' 자기한테 일거수일투족 다 오는 거를 전부 거기다가 맡겨 놓고,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잘되는 거는 '감사해!', 잘 안되는 거는 굴려서, 즉 말하자면 '너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 낫게 할 수 있어.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어. 이끌어 줄 수 있어. 해결사가 돼 줄 수 있어.' 이 모든 거를 그렇게 거기다 놓을 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연방 입력이 되면서 연방 없어지고 연방 입력이 되면서 없어지고, 그릇은 항상 빕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또는 업보성이나 인과성이나 세균성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아무리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해도 그것은 거기에 통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자리는 일체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와 더불어 일체 만물만생이 다 거기에 통신이 되는 통신처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도 거기서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근본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우리가 이 생활을 할 때도 좀더 늠름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명이 무엇인지요

문) 질문이 좀 부끄럽지만 무명이 무엇인지 좀 헛갈립니다.

답) 이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이나 우리들 이 껍데기, 주인이 있으면서도 주인의 심부름꾼이 무명입니다, 이게. 이 몸뚱이 자체가 무명입니다. 모든 일체 만물만생이 차원에 따라서 자꾸 쫓고 쫓기면서 이렇게 진화되면서 인간까지, 최고의 동물까지 올라왔죠. 그 진화되는 과정이 바로 무명을 벗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금반지였는데 금방에 가서 금을 다시 녹여 가지고 다시 귀걸이가 된다면서 반지라는 무명을 벗고 귀걸이라는 무명을 또 쓰고 나온 거죠. 이것을 진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벌레도 자기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언짢은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은 마음의 차원이 더 높아서 무명을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도 사람 노릇 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아주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대천세계의 차원, 중천세계의 차원, 소천세계의 차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얼른 쉽게 말을 하죠. 상점에 가 보십시오.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배는 배대로 놓고, 자기의 차원대로 다, 넝마는 넝마전에 놓고 금은 금방에 있고 사람들도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에 모이고 말입니다. 또는 어느 직업을 가졌으면 직업 가진 대로 모이고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이렇게 하듯이, 전부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닦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노릇을 하다가 자기 차원이 금이다 이렇게 된다면 금방으로 저절로, 누가 가라 오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금방으로 가서 모입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을 벗는 것도 무슨, 죽어서나 벗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아휴, 언제나 무명을 벗고 내가 자유인이 될 것인가? 이 마음의 무명을 벗어야 진짜 무명을 벗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명이라는 게요. 아리송하십니까?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불자 세상보기

이혜숙
금강대 초대교수

공정한 거래와 윤리적 소비

불교계 NGO 가운데 하나인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불교아카데미'의 도반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또 하나 생겨나고 있다.

굳이 이름 붙이자면, 요즘 사회 일각에서 말하는 공정무역(fair trade)과 윤리적 소비운동이다. 공정무역이란, 간단히 말해서, 원생산지의 노동인력을 너무나 헐값에 사들인 자본가들이 오히려 유통과정에서 몇 배의 이윤을 창출하는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려는 취지가 있다.

흔히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 값과 생산농장의 커피 값을 비교하며 그 부당성을 설명하는데, 실은 멀리 커피농장의 문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다. 바로 우리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보면 불공정 구조의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찍이 불교아카데미는, 인도에서 불가촉천민들이 해마다 불교신자로 개종하는 것을 돕고 그들의 신행을 이끌어가는 대표적 불자공동체(TBMSG 인도지부)를 지원하며 서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특히 불교아카데미 임원 가운데 한 분은 모든 불자들에게 영적(靈的) 고향이라 할 인도에서 불교가 다시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으로, 인도 TBMSG에 기숙학교 부지와 건축비를 보시하기도 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 터전에서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불교교육·생업 기술교육· 복지· 인권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불교아카데미의 도반들이 이번에는 인도 TBMSG에 속한 불가촉천민 가정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들이 인도 불자공동체의 생산품을 한국에서 우리가 직거래로 구매하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의 불자와 인도의 불자가 넓게 보면 하나의 사방승가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도와야 할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우리가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판매시장이 넓어지므로, 인도에서 가난한 도반들의 생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지원책이다. 또한 직거래를 함으로써 아무도 중간에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 공정무역이라고 할 만하다.

둘째, 총체적으로 제품들을 생산할 때 소모되는 환경자원을 생각하면, 평소 사람들이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윤리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산품을 골라서 구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 TBMSG 공동체의 생산품은 주로 가내수공으로 만들어진다. 때문에 여타 공장에서의 대량생산이나 가공체제에 비하면, 지구생태에 끼치는 폐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윤리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고도로 가공된 상품들 대신에 이처럼 자연친화적인 제품들을 구매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환경자원을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또 다른 측면에서 윤리적 소비란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양심적으로 적절히 나누어 쓰는 일이다. 예컨대 승가의 발우공양과 같이 이웃의 필요를 사전에 배려하는 것이다. '나' 개인의 식탐을 누르고, 식구대중과 준비된 음식 양을 우선 고려하며 적절히 자기 몫을 덜어먹는 것이 발우공양의 미덕이다. 그와 같이 아름다운 생활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소득분배가 양극화된 이 시대의 궁핍한 이웃을 생각하며 더욱 검박한 소비생활로 윤리적 소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인도 불자공동체의 제품은 대부분 상업적 마인드에 따른 화려함 보다는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어서 각기 고유한 제 값을 지니는 물건들이다.

불교아카데미의 도반들이 최근에 시작한 공정무역을 통해서, 천박한 자본주의가 질펀하게 소비를 부추기는 세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그처럼 공정하고 윤리적인 소비생활 운동이 우리 불교계를 넘어서 일반사회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지구촌 공동체에까지 이르러서 궁극적으로는 상호의존하는 연기법적 세계관을 널리 각성시키는 좋은 계기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부대중 칼럼



정운 스님
동국대 외래교수

지금, 행복하십니까?

과거를 쫓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염려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오로지 현재 일어난 것들을 관찰하라. 〈중아함경〉

차를 한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완연한 가을 날씨다. 노란 국화가 가을의 향기를 물씬 품기고, 하늘은 쾌청하고 푸르다. 이런 날씨는 차 마시기에 매우 좋다. 차 맛은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차 맛이 좋을 때는 건강 상태도 좋다는 것을 의미할 만큼 컨디션과도 밀접하다. 오전에 늘 차 마시는 습관이 있어, 오전 외출을 삼갈 만큼 그 시간 만큼은 오로지 홀로이고 싶다. 며칠 동안 강의에, 여러 일로 인해 외출할 일이 많아 혼자 차를 마시지 못하다가 간만에 차를 마시는데, 날씨까지 좋으니 금상첨화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 날, 홀로 차를 마시면서 오늘 새삼 깨달았다. 매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차를 마시지만, 내 인생에서 이 시간과 이 공간은 딱 한번밖에 없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을, 그리고 단 한번뿐인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행복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번뇌를 끌어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일컬어 '일기일회(一期一會)'라고 한다.

이 말은 선사들이 선호했던 말이다. '일기(一期)'란 우리의 단 한번뿐인 일생을 말하고, '일회(一會)'란 단 한번의 만남이라는 뜻이다. 법정 스님이 자신의 저서에 제목으로 삼아 유명해진 말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가(?)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한번 뿐인 이 순간에 나는 행복해 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자문해본다. 당연히 지금 순간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쉐우민 센터의 떼자니아 사야도가 이런 말을 했다.

"수행할 때, 똑같은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 같아 권태로운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똑같은 대상을 알아차림[sati]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매 순간이 새롭고 특별한 순간이다.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내일이, 모레가 소중하지 않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순간이 소중한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톨스토이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농부 :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톨스토이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농부 :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농부 :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작품의 특징인 휴머니즘으로 보면,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현재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인생의 지극한 행복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했다. 결국, 톨스토이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현재 함께 하는 사람 뿐만이 아닌 모든 것의 소중함이리라.

여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 가서도 행복할 수 없다. A라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불만이 있다면 B라는 사람과 함께해도 만족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주어진 직업이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다른 직업이 주어져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법이다.

계절에는 가을이라는 시간적인 결실이 있다. 우리들은 인생의 가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순간, 만족이라는 열매를 영글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곧 지금 현재에 행복해하고, 지금 이 순간 홀로 있든 누군가와 함께 처해 있든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순간순간의 결실이 진정한 결실이다.

한 해를 살찌우게 하는 이 가을, 열매를 맺는 가을의 결실이란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더불어 그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주위 사람에게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인생의 큰 결실이 아닌가 싶다.

사 설

자승 스님, 역동성 보여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체제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취임 첫 일정으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고, 용산참사 유가족을 찾아 위로했다. 자승 스님이 대내외에 내건 '소통과 화합'에 걸맞는 행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1년이라는 시간은 한 종단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그렇지만 종단을 발전의 도상에 올려놓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의미 있는 기간인데, 무엇보다 종단을 안정시켰다는 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역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연초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 8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로써 출범 초기부터 권력투쟁으로 빠져들었다. 최근에는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계파 나눠먹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직할사찰 주지 인사고과제는 의욕적으로 도입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 후유증은 종도들이 총무원과 중앙종회에서 멀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종단의 기반이며 종무행정의 궁극적인 수혜자이어야 할 종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여러 종책 집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4개 계파의 연합이 공고할수록 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종도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안정은 분명 발전의 디딤돌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역동성을 잠식하는 카르텔의 결과일 수도 있다. 종도들이 흔쾌히 기대하고 뒷받침하는 총무원이 되어야 한다.

종단 수익사업 신중해야 한다

종책연구소인 불교무설연구소가 지난 3일 '조계종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사례연구와 사업모델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무설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천주교와 원불교의 사례를 분석해 식품유통, 용품조달, 상·장례, 보험, 건설 등 5가지 분야의 수익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1년 예산액이 3백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종단 재정 형편에서 수익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종단 수익사업을 주제로 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익사업은 계획한대로 과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또 기존의 사업체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 종단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도 시장의 경쟁에서 자유스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수익사업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한다. 지방의 한 사찰이 그 지역 특산물 생산과 유통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일이 있었다. 실패 사례를 찾아 분석하는 것도 빼놓아선 안 된다.

종단이 하는 수익사업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해주고, 바람직한 사회문화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고하게 설정해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선하는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만 생각하다가는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빚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上권·下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재혈이란, 서기어린 땅의 생기가 감돌아 서리는 명당터를 정확히 짚어서 찾아내는 일이다.
● 재혈의 과정과 결과가 곧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학의 핵심과제이고 최종의 목표다.
● 그래서 '심룡3년, 재혈10년'의 대명제가 영원한 의미로 끊임없이 전해온 것이리라.
● '한국의 재혈풍수' 상·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많은 사람은 '한국의 재혈풍수'를 왜 주목하는가! 처음 시도된 한 분야의 전문적 질문에 응하는 답은?]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上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下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새로운 滴天髓 풀이 1·2 신국판/慧源 羅明祺 지음/각 40,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02)921-8434 Fax.(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TEL 063)631-0108 / FAX 063)625-2946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핫키퍼 발열내의

인터넷주문 hotkeeper.net 국제공인인증기관 한국의료시험연구원(KATRI)시험검사필

난로보다 훨씬 낫다 온몸이 후끈후끈~

입기만해도 뜨끈뜨끈 3.3℃~5.6℃까지 상승시켜주는 기능성 발열내의

현장근무, 군인, 경비, 시장상인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낚시, 골프, 야외활동에 안성맞춤
• 기업납품 및 단체주문 환영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운데 겨울은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골프나 등산, 낚시, 조깅 등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추위에 민감하다. 이런 계절에는 사람들의 옷은 두꺼워지고 여러 난방 기구들을 준비하지만 출, 퇴근 시간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은 좀처럼 피할 수 없다.

겨울철에 내의를 입게되면 체감온도가 1℃~ 2℃까지 올라가지만 움직임이 둔하고, 뚱뚱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잘입지 않으려고 한다.

첨단기술로 특허 받은 발열내의

핫키퍼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자체 기능성 발명특허(특허번호: 10-0863991)원단을 소재로 만들어져 입고 있기만 해도 체감온도가 3.3℃~ 5.6℃까지 상승하며 뛰어난 신축성과 초경량의 무게로 신체의 유연성까지 확보해 주는 발열내의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주)MFT에서 출시한 '핫키퍼 3.3'은 순수한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9년간 연구개발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기적같은 발열섬유로 이슈화된 상품이다.

'핫키퍼3.3'은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발열 기능성 조형물로 인체에 무해한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피부와 접촉하여 혈류량을 높이고 미세한 기모가 피부와 마찰하면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온열을 지속적으로 보온해 주기까지 한다. 또한 내구성이 우수해 세탁에도 발열 기능성이 오래 유지된다.

입은듯 안입은듯 얇고 가볍고 뛰어난 신축성

또한 스포츠 의류의 경우 운동시 발생하는 땀을 즉시 건조, 배출시켜 신체의 온도를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핫키퍼 3.3'은 통기성이 좋고 땀흡수력이 뛰어나며 자체 항균기능이 있어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안심할 수 있다. 콜라겐과 포도씨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핫키퍼3.3'은 50여가지의 피부테스트를 거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아도 아무런 자극이 없다.

국내 최초 발열 기능성 조형물 부분특허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의 시험성적서를 통과하여 검증된 '핫키퍼 3.3'은 입기만 해도 난로를 품고 있는 것처럼 체감온도를 높여주고 99%이상의 자외선 차단효과와 정전기방지 효과, 원적외선 효과까지 있어 겨울철 야외활동에 큰 도움이 되며 디자인이 뛰어난 본래 기능인 내복으로 입어도 좋고 멋스러운 부츠에 레깅스로 센스있게 연출할 수도 있다.

일상생활은 물론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 겨울철 야외활동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매일 출, 퇴근하는 직장인, 건설현장, 노점상, 택배기사 등 추위와 싸우며 일하는 사람들이나 스키, 골프, 등산 등 겨울철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방한복과 맞먹는 체감온도 상승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발열내의 '핫키퍼 3.3'은 상의와 하의세트를 **파격가 6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2세트 구입시 130,000원**에 추가할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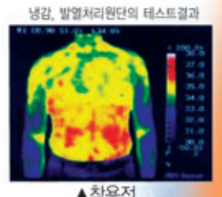
특허번호 : 10-0863991
국내 최초 발열 기능성 조형물 부분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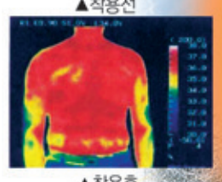
• 색상 : 검정색, 진회색(S, M, L, XL)

■ 구입문의 : 080-840-7000
■ 농협 : 317-0002-3339-31 (주)오투넷

상·하의 세트
69,800원
〈택배비 무료〉

냉감, 발열처리원단의 테스트결과


▲착용전


▲착용후



FUJIKA
2011년 최신형

추워지면 생각나는 브랜드!! 40년 전통 그명성 그대로 난로 전문메이커

인터넷주문 www.fujica.co.kr

후지카온풍기겸용명품전기히터

고유가시대! 기름대비 60~70% 연료비절감!



초강력 온풍기능의 강력난방, 촘촘한 2중 안전망

2011년 FUJIKA STOVE 正品 MADE IN KOREA



360°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FUJIKA S-3600(온풍) 15~20평형
▶정격접압 : AC220V/60Hz ▶중량 : 12kg
▶소비전력 : 3,600W□▶사이즈 : 465×465×690mm
(업소 및 사무실용)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3.1㎾×8=1,683원
특별할인가 198,000원

따뜻한 겨울, 후지카와 함께 하세요~

올 겨울은 엄청난 추위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지카 히터가 그 해결책입니다!
절전형 설계로 전기세 절감은 물론 상황에 맞는 온도설정 기능으로 평소에는 약하게, 추울때는 강하게 온도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거부! 후지카는 다릅니다!"

- 2단계/3단계 온도설정으로 전기세 절약형 전기히터
- 동급최강의 성능(우수한 발열력과 열효율을 자랑)
-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3중 안전망 /화재 안전장치 장착
- 무연,무취,저소음의 웰빙 정정난방 기능
- 탄소섬유 가열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100% 국내생산 제품으로 항시 A/S 가능

간단한 다이얼 조작으로 손쉽게 강/약조절 가능

FUJIKA A-1800 4~6평형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1,800W ▶사이즈 : 365×365×710mm
(업소 및 가정용) ▶방식 : 세라믹코일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8=978원
특별할인가 98,000원



FUJIKA AF-3000 10~14평형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3,000W ▶사이즈 : 365×365×710mm
(업소 및 사무실용) ▶방식 : 세라믹코일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3.0㎾×8=1,630원
특별할인가 148,000원



FUJIKA SA-1800 5~7평형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1,800W ▶사이즈 : 365×365×710mm
(업소 및 가정용) ▶방식 : 탄소섬유발열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8=978원
특별할인가 168,000원



• 탄소히터란?
동급전기히터에 비해 2배의 열효율이 발생되며,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 방출량은 기존히터에 비해 약 3배 많은 최첨단 발열체입니다.

고효율 탄소관램프를 사용하여 열전도율을 극대화 했습니다. 기존의 원적외선히터나 할로겐히터에 비해 열효율과 열전달율이 더욱 좋습니다.

후지카 SAF-3000만의 특별한 기능인 온풍시 바람을 뿜어내주는 송풍구입니다. 히터기능은 기본! 온풍기능으로 후끈하게 사용하세요.

간단한 다이얼버튼으로 손쉽게 온도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온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FUJIKA SAF-3000 12~16평형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3,000W ▶사이즈 : 450×450×750mm
(업소 및 사무실용) ▶방식 : 탄소섬유발열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3.0㎾×8=1,630원
특별할인가 248,000원

무소음! 무냄새! 무연료!
용량은 같아도 난방효과는 2배!

삼성화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이런 곳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사무실, 가정,식당, 교회, 사찰, 골프장, 스키장, 공장, 학교 카센타, 야외시설, 체육관, 유치원, 학원, 병원, 미용실, 악국, 새벽시장, 피부관리실, 포장마차, 지하상가 등 난방이 필요한 곳

※멀티탭을 사용하지 마시고 콘센트에 직접 꽂으세요.

A/S 100%국내생산과, 확실한 A/S보장!
생산부터 검수 판매까지 논스톱 시스템으로 최저가보장!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탄생한 완벽한 제품 후지카 믿고 구입하십시오!!!

주문전화: 080-840-7000
• 전국무료배송 입금계좌 : 농협 317-0002-3339-31 (주)오투넷